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32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윤2월 29일)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온다 부처님오신날! 매년 오는 날이지만 매년 새롭고 반가운 그날, 부처님오신날이다. 매년 그날이 새롭게 반가운 것은 속세의 힘겨움 또한 끊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모든 고통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일러주신 부처님, 부처님이 또 우리 곁으로 오고 계신다.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4월 12일 서울 조계사 신도회 회원들이 제등행렬에 들고 나갈 행렬등을 만들고 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열암곡 마애불 세우기 시나리오案 나왔다

경주시 · 문화재청 '열암곡 마애불 보존' 학술대회서

3D 수치모델 통해 입불 방안 모색

56:44로 상부하중이 하부보다 높아

인양벨트 기립 시 2개 이상 안정적

마애불 본래 위치, 현 '직상부' 추정

불상 바라보는 방향, '서북서' 예상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의 역점 추진 사업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시기 위한 시나리오 가안이 나왔다.

경주시(시장 주낙영)와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4월 14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상의 가치와 보존' 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열암곡 마애불의 역사적 가치를 비롯해 입불(立佛), 보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특히, 마애불 입불의 최대 관건이었던 기립방안에 대한 시나리오가 제시됐으며, 입불 위치 및 불상이 바라보는 방향에 대한 모색도 이뤄졌다.

박상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경주 열암곡 마애불상의 디지털 복원 및 거동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에서 마애불상 일원에 대한 3차원 모델링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립을 위한 시나리오 가안을 제시했다.

박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의 체적은 31.027㎥이며, 질량은 약 80t으로 나타났다. 하중은 비율은 56:44로 상부하중 비율이 하부하중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수석연구원은 "마애불상 거동시 상부하중이 하부하중보다 큰 것으로 판단돼 불상의 상부 쪽을 우선적으로 거동시켜야 불상이 안전하게 거동 가능하다"고 봤다.

마애불을 거동하는 방안으로는 인양벨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3차원 수치모델로 확인한 결과 1개보다는 2개 이상의 인양벨트를 활용했을 때 안정성이 높고, 이동식 크레인인 '지그' 와 인양벨트를 함께 가동했을 때도 높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수석연구원은 "마애불을 들어 올릴 때 인양벨트의 강성은 충분해 이동과정에서 끊어지거나 추가적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가정했고, 지그 역시 강성이 충분함을 전제로 했다"면서 "지반의 경우 불상을 들어올리거나 지그 활용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이동을 담당하는 레일이 필요한 부분도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광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주 열암곡 마애불상 주변정비 이력 및 현황' 을 통해 마애불의 본래 위치와 불상이 바라보는 방향을 추정했다.

이 연구위원은 "훼손된 문화유산의 복원은 최초 조성 당시 있던 위치에 동일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면서도 "열암곡 마애불상은 주변 여건이 열악하고 원위치가 아직 밝혀지지 않는 상태여서 원위치 복원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마애불상의 원래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 부조된 불상이 큰 훼손이 없는 점과 주변 노두가 발달돼 있는 절리의 상태를 고려하면 현 위치에서 바로 세운 위치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연구위원은 열암곡 마애불이 전도된 위치의 '직상부' 를 추정 본래 위치로 봤다.

이에 대해 그는 "열암곡 마애불상 직상부 20~30m로 주능선이 발달하고 있으며, 전도된 마애불상의 장축의 방향이 전도 방향과 평행해 전도시 여러 차례 굴러내림(회전)이 발생하기 어렵다"면서 "전도 과정에서 다수의 회전이 있었다면 마애불상의 손상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추정 이유를 설명했다.

마애불의 자세와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서는 불상과 주변 암석 노두에서 채취한 시료를 통한 '대자율이방성 분석' 으로 측정했다. 그 결과 열암곡 마애불상 방향이 282° 방향, 즉 서북서 방향이었음이 확인됐다.

또한 현장지질지표조사를 통해서는 280~297°의 방향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연구위원은 "조사 결과 마애불상의 고부조가 가능한 암벽은 동서 방향의 주향과 남북 방향의 주향을 갖는 암석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현재의 전도 형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도시 약 90° 의 수평회전운동이 수반돼야 해 남북 방향의 주향을 갖는 암벽에 서쪽을 바라보는 방향성을 보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아미타요양병원 병원불자聯 MOU 체결

전문 의료인력 대한 자문 등 승려복지 활성화 협력하기로 5월 3일 개원…제2병동 추진

조계종이 처음으로 직영하는 불교요양병원이 5월 3일 개원을 앞두고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류재환, 이하 병불련)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병원 발전과 승려복지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의료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대표이사 호산)와 병불련은 4월 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조계종 승려복지 활성화 적극 협력 △전문 의료인력에 대한 자문역할 △각종 교육, 행사 협력 사업 공유 등에 상호 협력한다.

업무협약식에서 의료법인 승려복지 대표이사 호산 스님은 "연꽃마을 각현 스님의 원력과 삼천사 성운 스님의 보현행원,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결단 그리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승려복지에 대한 관심과 추진력으로 한국불교 사상 최초로 조계종단 직영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이 탄생할 수 있었다"면서 "병불련 회원들도 합심, 요양병원 운영에 큰 힘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류재환 병불련 회장은 "스님들을 위한 요양병원은 25년간 의료봉사를 해온 병불련의 큰 서원이기도 했다"면서 "앞으로 병불련 회원들과 합심,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이 스님 전문 요양병원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종단적인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의료전문 인력 확보와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의 전신인 파라미타요양병원은 연꽃마을 각현 스님이 2008년 설립했다. 2014년 각현 스님 원적 후 운영을 맡아온 삼천사 성운 스님은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병원 운영을 수차례 요청했고 자승 스님은 종단이 직영하도록 결단을 내렸다. 스님 전용 요양병원은 진우 스님 체제의 37대 집행부의 핵심종책이었다. 지난 1월, 성운 스님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종단 직영 요양병원이 탄생하게 됐다.

요양병원은 현재 5월 3일 개원식을 앞두고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공간으로 변모 중이다. 의료법인 승려복지는 중장기적으로 80병상 규모의 제2병동을 신축, 250병상의 시설을 확충해 스님들을 위한 전문요양병원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직영
의료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
아미타 불교요양병원 개원식

출가에서 열반까지 종단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고 노후에도 안정되게 지낼 수 있는
종단 직영의 아미타 불교요양병원을 개원하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일 시 불기2567(2023)년 5월 3일(수) 오후 2시
장 소 아미타 불교요양병원(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녹배길 139)
후원동참 국민 601501-01-456325(예금주 : 의료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
문 의 02) 2011~1727, 1981



의료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 이사장
대 한 불 교 조 계 종 총 무 원 장 진우 真愚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천년 세우다’ 불사에 불자 마음 ‘하나로’

전국 사찰들, 불사 기금 전달 잇달아
조계종 원로 종상, 종하 스님 기부
제주 약천사 신도 부부 기금 전해
대구 대관음사 사부대중 보시 동참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위한 사부대중의 보시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종하 대종사, 분당 석가사, 제주 약천사 신도 부부, 대관음사의 전달 모습.

신성민 기자 · 오윤겸 수습기자

조계종이 추진하는 ‘천년을 세우다’ 불사의 성공을 위해 종단 원로스님부터 지역 불자까지 사부대중의 기금 답지가 이뤄지고 있다.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종하 대종사는 4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나 천년을 세우다 기금 5000만 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종하 대종사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후 원력 불사들이 천 리 길을 빠르게 달리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종단 불사가 더욱 활기를 띠도록 축원하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열암곡 마애 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비롯해 아미타 요양병원 개원 등 종단 추진사업에 기금이 잘 활용될 것”이라며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동참해주신 대종사 스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분당 석가사 주지이자 조계종 원로의원인 종상 대종사도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에 동참했다.

석가사 대중은 4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 기금으로 1550만 원을 전달했다.

기금은 석가사 주지 종상 대종사(조계종 원로의원)을 대신해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부주지 성행 스님(청계사 주지)이 아름다운동행에 기탁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날 기금전달식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전달된 성금 덕분에 마애불 바로 모시기 원력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번 불사에 동참한 공덕으로 부처님 가피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행 스님은 “청계사와 석가사가 지역은 다르지만 서로 교류를 자주 하고 있다”면서 “두 사찰 신도들과 함께 경주 남산 성지순례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지역 불자 부부가 뜻을 모아 천년을 세우다 모금에 동참하기도 했다. 제주 약천사 신도인 정준섭 · 정선이 불자 부부는 4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기금 1000만 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아내 정선이 씨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직접 보고 왔다. 누워계신 부처님을 보니 눈물이 흐르며 불사에 동참하고 싶었다”면서 “현재 제주도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번창한다면 더 큰 금액으로 불사에 동참할 마음이 있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제주에서 불사에 동참하고자 먼 길을 달려와 줘 고맙다”면서 “마애부처님과 함께 평안한 마음으로 임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는 4월 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 및 천년을 세우다 기금으로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기금은 천년을 세우다 2500만 원,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 500만 원으로 아름다운 동행에 기탁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귀한 성금을 전달해줘 고맙다”며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에 동참하는 것은 불교의 자비심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도 동참한 대관음사 신도들에게 “열암곡 마애불을 보러 직접 가보길 바란다”면서 “넘어진 마애 부처님을 바로 모시면 대관음사도 더욱 잘 될 것”이라고 격려를 전했다.

회주 우학 스님을 대신해 참석한 주지 대륜 스님은 “회주 스님께서 더 큰 금액으로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을 전하셨다”며 “동문회장과 신도단체들의 신심 원력으로 앞으로 전법 포교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태고종, 유명무실 ‘불교문예원’ 활성화 나선다

중앙종회 제147회 임시회서
‘불교문예원법’ 개정안 가결
문예원장에 성해 스님 임명
총무원장 후보 토론회 ‘파행’



태고종 중앙종회가 4월 11일 개최한 총무원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前 총무원장이 도산 스님이 난입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태고종이 그간 유명무실했던 종단 기구인 ‘불교문예원’을 활성화 한다. 이를 통해 전통사찰 발굴과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담)는 4월 11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제14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불교문예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의안 발의한 ‘불교문예원법 개정안’은 전통사찰, 문화재 보유 사찰의 발굴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직능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대해 태고종 총무부장 도성 스님은 “종단의 유명무실했던 불교문예원을 활성화하고 대정부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시키려 한다”면서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유 사찰에 대한 전문인력 배치와 전문위원회 구성하도록 유도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에 따라 제2조 직능에 △전통사찰 보존 발굴 및 계승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에 대한 사항 △문화재 보호 및 문화재 사찰 보존 발굴 및 계승 발전에 대한 지원 사항이 추가됐으며 △전통사찰 주지회 △문화재사찰 주지회 △대정부 협력기획단 등 전문분과위원회 구성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태고종 중앙종회는 불교문예원장 및 부원장 임명동의안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불교문예원장에는 성해 스님, 부원장에는 대원 스님이 임명됐다. 임명동의 가결 직후 성해 스님은 “태고종 전통 사찰이 90여 개에 이른다. 이에 대한 지원이 오래 전부터 과제로 대두됐다”면서 “종단 발전을 위해 문예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태고종 중앙종회는 중앙종회법, 초심원법, 승려법 등의 자구 수정과 종무원 자격 기준표 정정을 골자로 한 종헌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분과위원장 회의에서 개정안을 다시 마련키로 하고 6월 종회로 이월했다.

또한 태고종 중앙종회는 △2022년도 종단 종무행정 및 사정직무 감사보고 △2022년도 종단 세입 세출 결산안 등을 안건 상정하고 처리했다.

하지만, 태고종 중앙종회가 개최하기로 했던 제28대 총무원장 후보자 종책 토론회는 일부 스님의 돌출 발언과 주최 단체에 대한 이견으로 막말과 고성이 오가며 결국 파행되며 마무리됐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前총무원장 도산 스님이 토론회에 앞서 “청련사 재단 설립 승인을 한적 없다”면서 기호 1번 상진 스님에 대한 자격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이 “오늘은 선거인단의 한 축인 중앙종회의원들이 후보자의 정견을 들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다. 질의는 쪽지로 받겠다”면서 장내를 정리하려 했지만, 도산 스님은 계속 고성을 지르며 발언권을 요구했다. 급기야 법담 스님은 “퇴장시키라”며 상호 고성이 오갔다.

논란 끝에 토론회가 시작됐지만,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만 진행되고 질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기호 2번 성오 스님이 진행 방식의 문제를 삼아 언쟁을 벌였다. 결국 첨예한 대립과 설전 끝에 토론회는 1시간여 만에 파행으로 끝을 맺었다.

신성민 기자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 임명

진우 스님 임명장 수여…천년 세우다 기금 전달도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에 성효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12일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에 성효 스님을 임명했다.

진우 스님은 “용주사는 총무원과 가장 가까운 본사 중 하나이고, 여러 위상으로 볼 때 중요한 교구살림이므로 주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주 만나 종단 대소사를 서로 협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성효 스님은 “종단과 총무원장 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 종단과 총무원이 추진하는 주요 종책들이 원만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임명식에 앞서 성효 스님은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태산을 무너뜨리는 각오로 종무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성효 스님은 “교구와 종단의 현안을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이다. 태산 같이 산적한 문제들을 무너뜨려야 한다. 핵심은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법, 포교 방안에 대해 스님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춰 포교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그러면서 스님들의 의식 전환을 주문했다.

성효 스님은 “요즘 유튜브를 보면 일반인들이 자신들이 전문 지식들을 전하고 있다. 스님들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미디어가 범람하고 고도의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스님들은 공학도, 과학자가 돼야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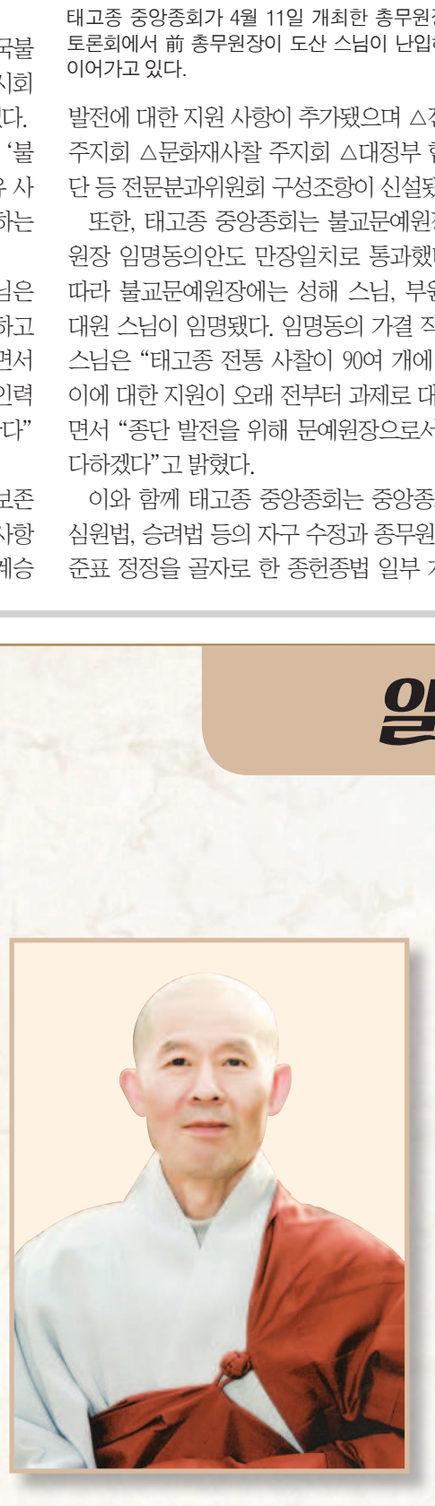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12일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에 성효 스님을 임명했다.

효행본찰인 용주사의 특성을 살린 포교 종책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성효 스님은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면서 “부모, 가족, 친구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제2교구본사 주지로 임명된 성효 스님은 정대 스님을 은사로 1982년 수계(사미계)했다. 제14 · 15 · 16대 중앙종회의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총무원 호법부장, 삼막사 주지,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를 역임했다.

한편, 성효 스님은 임명식 직후 ‘천년을 세우다’ 기금으로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신성민 기자

일붕신문 창간 40년 기념식



제5대 총재 화산 월인
(습득) 대종사 추대 취임식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회장 · 이사장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일 시 4월 25일(화) 오후 2시
장 소 백범 김구기념관 컨벤션홀

• 주최 : 일붕신문사 • 주관 : 봉행위원회 • 후원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세계법왕일붕문도중앙회 (사)세계불교연합법왕청

세계 最古 금속활자 '직지' 50년 만에 수장고 밖으로

프랑스 국립도서관 7월 16일까지 전시회 개최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 앞서
진우 스님 "정신적 지혜 주는 기회"
조계종 '인쇄유산' 주제로 컨퍼런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현존하는 금속활자 인쇄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직지심체요절' (直指心體要節, 이하 직지)이 반세기 만에 수장고 밖으로 나왔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프랑스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은 4월 12일 관내에서 전시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 개막식을 열고 〈직지〉를 선보였다. 이번 전시는 인류 역사에 혁명을 일으킨 인쇄술의 역사를 되짚어보기 위해 기획됐다. 〈직지〉가 일반 관람객에 실물을 드러낸 것은 1973년 같은 도서관에서 열린 '동양의 보물' 전시 이후 50년 만이다. 전시회는 7월 16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공개된 〈직지〉는 현재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있는 금속활자본 하권 1책(총 38장)으로, 도서관 1층 전시장 초입에 초반 부분을 펼쳐 놓은 상태로 공개됐다.

〈직지〉의 정확한 명칭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다. 고려 후기 선승(禪僧) 백운경한(1298~1374) 스님이 역대 여러 부처님과 고승의 대화, 편지 등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 편찬했다. '마음의 본체를 바로 보면 그 본성을 바르게 볼 수 있다' 는 설법의 중요한 절목만을 집어내 기록했으며 수행자들에게는 '선의 지침서' 로 불리고 있다.

〈직지〉는 세계 인쇄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구텐베르크 성서〉(1455년)보다 78년 앞선 시기인 고려 공민왕 21년(1377년)에 충북 청주 흥덕사에서 상·하 2권으로 인쇄됐다. 이후 1년 뒤 1378년 취암사에서 목판으로 다시 인쇄됐으며 목판본 직지는 1992년 보물로 지정돼 현재 완전한 상태로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보관돼 있다. 2001년 9월 4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금속활자본 하권 〈직지〉는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朝佛修好通商條約) 이후 주한대리공사를 지낸 프랑스인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Victor Collin de Plancy, 1853~1922)가 수집,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최초로 공개 전시했다. 프랑스의 동양학자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1853~1935)이 저술한 「한국서지」(보유판 1901년, 3738번)에 게재됐다. 플랑시가 죽은 후 〈직지〉를 구입한 예술품 수집가 앙리 베베르(Henri Vever, 1854~1943)의 유언에 따라 프랑스국립도서관에 기증됐고, 1952년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소장품 목록에 편입됐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한국관 전시, 1972년 '세계 도서의 해' 전시, 1973년 프랑스국립도서관의 '동양의 보물' 전시에서 공개된 것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직지〉 실물이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어 이번 공개는 무려 반세기 만의 일이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4월 12일 개막한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 에 세계최고 금속활자 〈직지〉가 공개돼 화제다.

조계종은 2022년 프랑스국립도서관에 불어번역서를 전달하며 직지에 담긴 동양 선사상과 가치를 알려왔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사회부장 범종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650여 년 전 고려말 대선사인 백운 스님이 편찬하시고, 그 제자가 2년 뒤 금속활자로 인쇄한 직지는 우리 불교계에는 매우 소중한 성보"라며 "이번 직지의 공개는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물질문명의 흐름 속에서 우리 인류가 잊지 말아야 할 정신적 가치와 지혜를 되새겨주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주프랑스 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4월 13일 6시 30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는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되며 사회부장 범종스님이 〈'직지' 의 편찬배경과 한국불교의 인쇄문화유산〉을 주제로 강연한다. 통역은 2022년 직지 불어번역서 번역을 담당했던 파리 7대학 동양학부 브뤼노통 야닉(Bruneton Yannick)교수가 담당한다.

한편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프랑스국립도서관과 4월 11일 〈직지〉 전시지원과 학술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해당 특별전과 관련한 대중강연 개최 △전시관련 이미지 제공 및 번역 등의 지원 △전시회 홍보를 비롯해 향후 프랑스국립도서관이 소장한 한국문화유산에 대한 학술조사나 연구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재청 측은 "앞으로도 나라 밖 중요 유물 발굴은 물론, 해외 현지에서 한국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한 활발한 국제교류로 세계 속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함께 공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엔 환경 생각을"

기후행동, 4월 22일~5월 27일
환경 생각하는 봉축 캠페인 전개
"기후위기 인식…성찰 시간 되길"

지구의날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불자들의 실천 행동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진행된다.

불교계 시민사회단체와 사찰 등 60여 개 단체들로 구성된 불교기후행동(상임대표 일문)은 4월 11일 서울 불교환경연대 교육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 22일 지구의날부터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까지 '2023 환경을 생각하는 부처님오신날 캠페인' 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캠페인은 스님과 불자들이 불교 수행의 일환인 108배와 연등 만들기 등을 통해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성찰과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교기후행동은 4월 22일 오후 1시 서울 조계사 일대에서 '2023 환경을 생각하는 부처님오신날 선포식' 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선포식은 조계사 앞마당에서 지구등 만들기를 시작으로 등을 들고 조계사와 안국사거리, 종로경찰서 등을 도는 지구등 행진, 발원문 낭독, 환경 명상절 108배와 명상, 환경 5계 낭독, 후원 ARS 실천(060-900-3108)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불교환경연대도 같은날 울산 백련사에서 '지구의 날 천그루 축제 환경콘서트' 를 개최하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환경명상절 기도 캠페인' 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에도 동참한다. 불교기후행동은 5월 20일 오후 6시 종로 일대에서 개최되는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에 지구등을 들고 참여, 기후생태 문제에 대해 불자와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5월 27일 오전 11시 전국 사찰에서 열리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법문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사찰에 생명존중과 탄소중립 메시지, 발원문 문안을 제공, 불자들이 기후위기 심각성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 분리배출, 채식위주 공양, 사찰 방문시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실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불교기후행동 상임대표 일문 스님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적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하는 데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기후행동은 지구등을 연등축제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 지구등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구등 만들기 프로그램은 4월 27일 오전 11시,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5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불교환경연대 그린담마홀에서 동참할 수 있다. 02)720-1654

임은호 기자

강릉 인월사, 산불로 피해…비구니회 모연

4월 11일, 오후 12시 도량 전소
복구 위한 보시금 생필품 급구

4월 11일 오전 발생한 강릉 경포 산불로 인해 위빠사나 수행도량 경포 인월사(주지 재범)가 소실됐다.〈사진〉

경포로 번안길에 위치한 인월사는 이날 오후 12시 20분경 산불로 소실됐으며 스님과 신도들은 대피령에 따라 인근 중학교 등으로 대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월사는 일주문과 대웅전, 관음전, 담마선원 등이 있는 위빠사나 수행도량이다. 최근 조계종 포교원이 순례 프로그램 확산을 기원하며 개설한 강릉 해맞이길 순례 코스에 포함된 사찰이다. 2005년 개원한 이래 일년에 4차례씩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위빠사나 수행을 전파해 왔다. 문화재 보유사찰은 아니지만 강릉 지역 유일 위빠사나 수행도량으로 지역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왔다.

인월사 주지 재범 스님은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강원 일대에서 포교에 진력했으며 보시행도 꾸준히 실천해왔다.



이에 전국비구니회는 인월사 도량과 신도들을 위한 성금을 모연하고 있다. (국민은행 208601-04-073935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전국비구니회는 인월사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지원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02)3411-8103

한편,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는 강릉 산불피해로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구호 모금을 시작했다. (신한은행 100-035-0864047 예금주 :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더프라미스는 임시대피소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이재민 피해 규모 파악 및 강릉시자원봉사센터와 강릉 생태전환마을내일협동조합과 함께 피해 지역 조사를 통한 지원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02)735-3119 임은호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나눔 템플스테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이하 문화사업단)은 "사회적 약자 및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국전통불교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2023년 나눔 템플스테이' 를 진행한다"고 4월 12일 밝혔다.

올해 '공익 나눔 템플스테이' 를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주도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위해 전환해 진행한다.

공익 나눔 템플스테이는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이주노동자, 저소득층, 독거노인, 학생, 복지기관 종사자, 의료관계자, 기업 및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전통불교문화 대중화 및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명상, 스님과의 차담, 사찰음식 체험 등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치유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23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3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을 공고합니다.

신청 자격

1.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2.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 단, 종단 미등록 사찰 · 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신청 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방문 발급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발급
   3)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1355) 전화 신청 후 팩스 발급 요청
   4) 모바일앱(Play스토어) 〈내곁에 국민연금〉 설치 ▶ 로그인(간편인증) ▶ 우측상단 증명발급 선택 ▶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 선택 ▶ 화면 맨 하단 팩스발급 선택 ▶ 팩스번호 입력 후 확인 선택 ▶ 요청하신 팩스번호로 발급 완료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5월 31일(수)**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3. 지원절차 :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 → 지원금 입금(2023년 7월 말 예정)

보험료 지원중지 대상자

1.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미제출된 스님
   ※ 신규 지원신청하신 분들은 차기년도부터 해당되며, 기지원자 스님은 보험료 납부종료시까지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지원 혜택이 가능함
2.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된 스님
3. 2020년도 분한신고 및 전 결계 미등재된 스님
4.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 스님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종료된 스님
6. 보험료 미납하신 스님
7. 군 복무 중인 스님
8. 기타

※ 위 항목에 해당되시는 스님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중도에 변동사항 발생 시 꼭 승려복지회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1인당 월 36,000원(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문의처

1. 문의처 : 02-2011-1980~1, 1726~7
2. 기 타 :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게재

불기2567(2023)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호 산

한국 최초 테라와다 계단 '시마' 설치된다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 6월 9~10일 법회

스리랑카 교단 종정등 15명 한국 방문
한국 테라와다 승단 형성…갈마 · 결집
시마 공간 건축불사 위한 상시 모연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주한스리랑카 사찰인 마하위하라 사원(주지 담마끼띠)이 한국 최초의 테라와다 계단 '시마(sīmā)'를 설치한다.

아산 마하위하라는 6월 9일~10일 스리랑카 불교교단 종정 마쿠라웨 위마라 스님을 비롯한 장로 15명을 모시고 테라와다 계단 인가를 위한 시마 대법회를 봉행한다.

시마(sīmā)는 테라와다(남방불교)에서 계를 받는 공간, 즉 경계(결계)를 의미한다. 이번 대법회에서의 시마 인가를 통해, 앞으로 한국에서도 테라와다 승가공동체 형성 및 유지를 위한 전통의식들이 공식적으로 봉행될 수 있게 된다.

테라와다에서 시마는 승단의 근본토대다. 시마 없이는 비구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마가 설정되어야 출가를 하고, 비구가 될 수 있다. 시마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여러 지역으로 포교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부처님의 인가로 처음 만들어졌다. 비구들의 숫자와 승가의례(saṅghakamma)가 크게 늘어나면서 승가가 한 곳에 모일 수 없게 되자,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의 화합을 위해 각 지역 내에 승가공동체(samagga saṅgha) 경계를 설정한 장소인 '시마'를 만들 수 있도록 허락했다.

한국 최초로 봉행되는 시마 대법회는 6월 9일~10일 봉행된다. 대법회를 위해 스리랑카 불교교단 종정 마쿠라웨 위마라 스님을 포함한 15명의 장로 스님들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테라와다 전통에 준해 이 같은 인적 구성을 갖추는 데에만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마하위하라 사원 내 시마는 특별하게 청정한 공간으로 분류해 관리된다. 해당 공간의 시마 인가는 15명의 장로 스님들에 의해 6월 9일 받게 되며, 인가 직후인 6월 9일 밤부터 10일까지 율장을 독송해 시마를 청정케 하고 인가를 공고히 하는 법회를 봉행한다.

시마 대법회 이후에는 한국에서도 테라와다 승단의 갈마, 자자, 포상, 결집 등 부처님법에 의거한 전통의식이 공인되므로, 테라와다 승가공동체의 형성과 확대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하위하라 사원 주지 담마끼띠 스님은 "이번 법회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테라와다 시마가 설정되는 행사로 부처님의 교법이 이 땅에 정식으로 뿌리내리게 되는 뜻깊은 법석"이라며 "시마는 붓다의 교법을 유지하고 출가자를 배출하는 불교의 근간이 되는 장소인 만큼, 시마홀(시마공간)이 한국에 있음으로 인해 테라와다 불교의 저변 확대와 안정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한편 시마 대법회에는 테라와다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불자들도 참석할 수 있으며, 법회 봉행을 위한 보시도 가능하다. 다만 현재 스님들의 비자와 왕복 비행기표는 이미 모연이 완료됐고 시마 경계 비용은 선착순 지정 보시에 한정된다. 이 외의 보시는 자율보시로, 일괄 취합 후 항목을 배정해 법회 봉행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할 예정이다.

시마 인가 후에는 해당 공간에 시마 전용공간을 조성하는 건축불사도 함께 진행된다. 시마는 마하위하라 사원 내 40평 가량의 공간이며, 향후 건축물을 조성해 청정한 수행공간으로 활용된다.

기업 641-042679-04-016 예금주 : 사단법인 마하위하라. 010-8427-0106

조선 '사찰 민화' 속 화승 역할 조명

불교미술사학회 · 민화학회, 4월 8일 공동 학술대회

조선시대 후반 사찰 민화의 등장과 화승의 역할을 조망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불교미술사학회(학회장 송천)와 한국민화학회(학회장 유미나)는 4월 8일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서 '불화와 민화: 사람과 물질의 조우와 만남'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불화와 민화가 교류한 영향과 화승들의 역할을 살펴보며 민족 문화 속에 불교가 끼친 문화 영향력을 살피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윤진영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석연구원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전개된 불화를 보면, 이전 시기에 비해 유난히 민간의 취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사찰민화라고 하는 포벽화 등에서 민화의 분위기를 강하게 읽을 수 있다"며 "민화가 유행하며 전래된 이미지와 상징은 불화를 그린 화승들이 차용하여 그림에 응용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화승에 대해 "대중적이고 개방적인 불교의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민화적인 요소는 불화에 수용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민화의 자체적인 유행과 이를 적극 수용한 화승들의 역할이 있었기에 불화 속의 민화 혹은 사찰민화는 일반 민화가 미치지 못한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윤진영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석연구원의 기조 발표에 이어 1부에서는 박세진 통도사성보박물관 학예사가 '사찰 벽화 고전소설도 연구', 박본수 경기도박물관 학예실장이 '통도사 감로탱화에 그려진 풍속화와 민화적 장면 고찰'에 대해 발표했다.

2부에서는 김수연 금산사성보박물관 학예사가 '영남지역 산신도에서 보이는 민화적 요소'를 주제로, 신은미 인천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장이 '금호당 약효작 독성도의 도상 특징과 배경 요소'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현중 전남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교수가 '조신 신앙과 조선 후기 사찰의 조왕도 봉안', 김윤정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이 '마포 복개당 무화 연구' 주제의 발표를 소개했다.


불교미술사학회와 한국민화학회는 4월 8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와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불교미술사학회 회장 송천 스님을 비롯해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송천 스님은 "일반 민중의 정서가 담긴 민화와 불교의 종교적 기능이 담긴 불화의 만남은 새롭게 자리잡은 전통문화예술의 분야"라며 "앞으로도 발전을 위해 양학회의 교류와 연구를 이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

유미나 한국민화학회장은 "오늘 학술대회가 열린 이곳 통도사는 불화와 민화가 만나 새롭게 전통미술이 구현된 장엄한 도량"이라며 "이곳에서 학술대회가 열려 뜻깊으며 학술대회를 통해 민화연구 확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마음과학원, 제9회 한마음부모교육 모집

5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진행

삶에 대한 긍정 가치관 형성
배우자, 자녀 대한 이해 증진
안양시 지원사업, 무료 수업
선착순 40명, 홈페이지 접수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이 '제9회 한마음 부모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마음 부모교육인 '행복한 부모되기' 프로그램은 안양시 평생교육지원사업 선정 프로그램으로 최근 4년동안 시민인성 함양 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다.

제9회 교육 참가 대상은 총 40명으로 학부모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는 이들은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한마음 부모교육은 부모 이전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수용하고 스스로 치유하며, 삶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모가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가운데, 삶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이를 통하여 프로그램 참가자는 배우자 및 자녀의 심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갈등 해소로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한다.

교육은 5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안양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안양시 지원사업으로 수강료는 무료로 선착순 접수 받는다. 신청방법은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edu.hansi.org)나,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한마음과학원 측은 "아이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행복해지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 가족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031)470-3200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뇌성마비 성인제 시인 '당신을 닮은' 출간

보리수아래, 감성시집 발간
세상 소통 시 70여 편 수록



장애불자들의 모임 보리수아래(대표 최명숙)가 최근 보리수아래 감성시집 시리즈 제11집 성인제 시인의 '당신을 닮은 오늘'을 출간했다.

'당신을 닮은 오늘'에는 뇌성마비장애를 가진 성인제 시인이 매일 세상과 소통하며 써온 시 70여 편이 수록됐다. SNS와 시 낭송회를 통해 대중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던 시들로, 화려한 문체가 아닌 일상적인 단어들로 표현됐다.

성인제 시인은 70여 편의 시를 통해 있는 그대로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글로 옮겨, 진솔한 시인의 삶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당신을 닮은 오늘' '행복할 준비' '밥 한번' 등이 대표적이다.

향기 가득한 오늘 / 고운 햇살 쏟아지는 화창한 날 / 오늘의 날씨는 당신을 닮았습니다 / 오늘은 당신처럼 맑습니다 / 오늘은 당신처럼 아름답습니다 / 맑고 아름다운 날씨가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 화창하고 아름다운 당신이 나를 설레게 합니다 / 당신의 맑고 고운 마음이 오늘을 편안하게 합니다 / 당신의 아름다운 자태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 오늘은 당신 때문에 편안한 행복을 느낍니다 / 당신처럼 아름다운 향 가득한 날씨가

〈당신을 닮은 오늘〉 전문

성인제 시인은 "공개된 낙서장에 써놓은 것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좋아요나 댓글을 달아주셨다"면서 "생활 속 일상을 있는 그대로, 느낌 그대로 글로 옮기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이렇다 할 활동을 못하던 차에 그동안의 시들을 하나둘 모아 책을 엮어 이렇게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게 돼 설렌다"면서 "몇년 간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 출신인 성인제 시인은 2006년 보리수아래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으며 아시아장애인공동시집 활동에 참여했다. 보리수아래 음반 '꽃과 별과 시' 등에서 작사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2020년 2월 첫 번째 시집 '행복한 기다림'으로 사람들에게 어두워가는 세상에 희망의 빛을 주기도 했다.

보리수아래는 감성 작품집 발간 사업으로 2020년부터 성인제, 이경남, 김영관, 홍현승, 이순애, 성희철, 장효성, 고명숙, 윤정렬 등 장애시인들의 시집 11권과 수필집 2권 등 13권을 발간했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장애시인들의 작품활동을 사회에 알려 작가로서 성장하게 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창작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힘쓰고 있다.

보리수 아래 최명숙 대표는 "이 사업은 보리수아래 장애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시인에게도 기회를 열어놓고 있다"고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진우 스님,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에 공로패

4월 7일, 경찰불자회와 제주불교 발전 공로 표창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4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경찰 내 불교 포교 활성화와 제주불교발전에 이바지한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에게 총무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현재 대한민국경찰불교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1988년 경위로 경찰에 임관 후부터 다양한 보직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전해왔다. 2017년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 재직 시에는 서울경찰청 불교회장을 맡아 조계사 템플스테이와 부산 범어사 성지순례를 진행하며 경찰불자회를 이끌었다.

2021년 12월 경남경찰청장으로 부임 시 협소하던 경남경찰청 법당을 확장하고 쾌적한 법당을 조성해 불자 경찰들의 신행 활동을 도왔다. 또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제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새로 준공된 제주경찰청사에 개신교 경목실, 가톨릭 경신실과 함께 제주경찰청 최초로 경찰법당을 마련했다. 제주경찰법당은 오는 5월 9일 점안식과 함께 5월 10일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봉축 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이상률 청장은 "경승 스님들의 원력으로 제주경찰법당을 조성할 수 있었다"면서 "법당은 참혹한 범죄현장을 목격 후 트라우마가 심한 경찰관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간이 되어줄 것"이라 말했다. 이어 "명상을 통해 감정을 컨트롤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 한다"면서 "법당을 개방해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제주 경찰이 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이에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명상을 통해 경찰관들의 마음이 안정되면 능률도 오를 것"이라며 "마음에 잡념이 없는 상태로 경찰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의 명상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 · 전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다하는 불자 경찰관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를 전했다.

오윤겸 수습기자

화엄사, 올해도 동국대에 1000만 원 기부

'지역불자 육성장학' 기금 전달
구례, 순천 학생 10명에 장학금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국대에 1000만 원을 기부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4월 12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화엄사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수여식에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법인에서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지정학 법인사무처 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윤재웅 총장, 하홍열 대외협력처장, 장환영 학생처장과 화엄사 장학생들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건학위원회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건학위원회가 지역사찰과 동국대에 재학 중인 해당지역 학생들을 연결해 수여하는 장학금으로 지역사회 공헌과 미래불자 육성 등 인재불사를 목표로 한다.

기금 전달은 지난 2021년 11월 포항 원법사를 시작으로 이날 37회를 맞이했다. 특히 화엄사는 지난해 1월에 이어 올해 1천만 원을 추가로 기부해 눈길을 끌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지역사찰과 해당지역 학생의 인연을 맺어주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제도는 동국대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장학제도"라며 "학생들이 화엄사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사회진출해 해당지역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재웅 총장은 "동국대와 모든 불교계가 동국대의 미래이자, 한국불교계의 미래인 여러분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오늘 이 장학금을 통해 좋은 학생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지 덕문 스님은 "이 장학금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미래인재로 커나갈 수 있는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장엄한 지리산 아래의 화엄사라는 품 안에서 학생들이 좋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바라지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학금 수혜를 받게 된 선경화(대학원 불교학과 2학기) 학생이 장학생을 대표해 화엄사와 덕문스님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선경화 학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학금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덕분에 대학원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지난 2월과 3월 43일 간 1167km, 불교 8대 성지를 순례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현지 영상을 장학생들과 함께 시청하며 순례의 의미를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Meet yourself!

(너의 진면목을 만나라!)

중도, 마음 작용과 반작용의 조화 (下)



붓다는 중도를 발견한 사상가이며 동시에 0을 발견한 대수학자이다. 서기 6세기 인도에서 0이 발견될 때 무명인(無名人)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원전 6세기 공(空) 사상이 천년 후 0으로 변신했다는 반증(反證)이라고 대수학자이셨던 김용운(金容雲) 교수께서 2003년 필자에게 서신으로 밝혀주셨다. 따라서 불교의 교의(敎義)는 삼법인(三法印), 사성제(四聖諦), 육바라밀(六波羅蜜), 팔정도(八正道), 108번뇌 등 숫자로 되어있다. 삼법인(三法印)의 인(印)은 믿을 수 있는 3가지의 진리라는 뜻이다. 오늘날 인감(印鑑)도장의 신뢰성 같은 것이다.

무한대(無限大)인 겁(劫)과 찰나(刹那) 같은 극단적인 불교의 시간 설정의 근거는 무엇일까. 금강경의 교의가 무아(無我)라면 화엄경은 자아(自我)의 발견이다. 무아는 유한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자아발견의 충격요법인 셈이다. 색즉시공(色卽是空), 속세(色)가 곧 천국(空)이다. 어느 진보적인 불교학자의 해석이다. 인생은 가까운 미래의 일을 모르는 현재완료 형의 삶이다. 인도는 고대에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를 창제한 언어 선진국답게 석가모니 부처님 시절에도 간단하게 소통이 가능한 원시언어는 있었던 듯하다. 어느 날 붓다께서 제자들에게 낙서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데서 추론해보았다.

제자가 질문했다. "사후(死後)의 서방정토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에 붓다는 답했다. "아궁이에서 나무가 다 탔을 때 연기는 동서남북 어디로 가겠느냐?"

제자의 답은 이렇다. "꺼진 후 아궁이에 재만 남습니다."

한편, 훗날 같은 질문에 육조혜능은 "극락에 사는 서방정토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했다.

나는 이 글의 스승과 제자와의 대화에서 이런 느낌을 받는다. 오늘날 대학사회에서 교수와 제자가 편안한 사은회(謝恩會) 같은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상상해보았다. 즉 강의시간에서 듣지 못한 쉬운 내용인데 오히려 더 감명 깊은 말씀으로 평생 간직하게 되는 경우이다. 우리 조상들은 오랜 세월 불교사회의 풍토에서 살았음에도 뜻밖에 내세(來世)에 대한 속담이 단 한 편도 없다. 오히려 "죽은 정승보다 산 개가 낫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처럼 현생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다.

나에게 불교를 눈뜨게 해주신 어른은 현 BTN 불교TV 회장이신 석성우 대종사다. 내게 일자관(一字關)인 염(念)자 화두를 내려주셨다. 염(念)을 풀이하면 지금(今)+마음(心), '제로 마인드(Zero mind)'이다. 사람들의 괴로움은 이미 지나간 일과 아직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생긴다. 지금이 모여 오늘이 되고 오늘이 모여 금생(今生)이 되는 것이다. 날짜의 0인 오늘에서 '(-)1'은 '어제'요, '(+)1'은 '내일'이다. 오늘은 말기 환자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다. 오늘은 어제의 열매요 내일의 씨앗이다. '오늘'은 '오!(감탄사)'와 '늘(항상)'로 오늘 속에 영원이 있다. 영원은 특별한 미래가 아닌 '오늘'을 닮은 '내일'일 뿐이다. 인생은 오늘의 반복으로 오늘은 위대하다. 오늘 하루는 짧은 일생이다.

불교의 정수(精髓)인 중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전법륜(初轉法輪)과 108번뇌의 계산과정을 통해야만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

인도는 붓다의 공(空)사상이 수학 세계에 0으로 편입되면서 눈부신 과학의 강국(强國)이 되었다. 한국의 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인도의 과학기술연구원을 모델로 삼았다. 따라서 고대 인도의 전통의학도 과학적이었다. 붓다의 첫 설법인 사성제(四聖諦), 고(苦)·집(集)·멸(滅)·도(道)에서 고(苦)라는 병이 생겼을 때 '눈·귀·코·입·몸·마음'에서 일어난 욕망 때문에 집(集)이라는 진단 결과 이는 금강(金剛)몽둥이로 벼락처럼 한방에 내려쳐 소멸(消滅)하라는 지혜의 처방이다. 따라서 〈금강경(金剛經)〉을 일명 '벽력경(霹靂經)'이라고도 했다. 붓다는 득도하신 후 더 이상의 깨달음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수행의 제1막을 마치신 셈이다. 이를 이고(離苦)의 수행단계라고 한다. 붓다께서 득도하신 후 더 이상의 깨달음은 구하지 않는다는 선언(宣言)에 주목해야 한다.

불교, 붓다가 아닌 붓다 말씀을 믿는 종교

'자등명 법등명' 유훈 붓다 가르침의 진수

여름 겨울 거쳐야 '중도의 봄·가을' 느껴

중도, 일상생활서 보통의 맛 음미하는 행복

圓에 만족하는 삶이 圓滿한 인생이 아닐까

이제 수행의 제2막부터는 애벌레에서 해탈한 나비같이 갖가지 꽃으로 장엄(莊嚴)된 화엄(華嚴) 세계에서 중도(中道)의 삶을 향음(享音)하는 것을 득락(得樂)이라 한다. 고집멸도(苦集滅道)를 이처럼 현 불가(佛家)의 해석과 달리 이고득락(離苦得樂)의 관심석(觀心釋)이 필자가 주창(主唱)하고 싶은 견해이다. 화엄(華嚴)은 잡화엄식(雜華嚴飾), 갖가지 꽃으로 장엄하게 장식됨을 말한다. 화(花)는 육안으로 보이는 꽃이고, 화(華)는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꽃이다.

108번뇌를 수학적으로 푸는 과정에서 난해한 중도의 정수(精髓)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등산에서 인간은 몸이 느끼는 세 가지의 감정이 있다.

산등성마루 걷기는 중도의 행복으로 (-)의 시간이 없이 케이블카를 타고 산에 올랐다면 즐길 수 없는 시간임을 강조하고 싶다. 일상의 힘들고 괴로운 시간은 중도를 잉태하는 시간이다. 한자로 '산등성마루'를 강(岡)이라고 한다. 일본의 지명 후쿠오카(福岡)는 '일상의 평지 보행의 행복', 시즈오카(靜岡)는 '고요한 산등성마루 걷기의 행복' 필자의 관심석(觀心釋)이다. 손에 쥐고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켜 더위를 식혀주는 부채는 쓰임을 아는 데 있지 않고 실제로 사용해야 뜻이 있다.

중도 역시 일상생활에서 발견하고 즐겨야 한다. 그리고 중도는 중간의 개념이 아니다. 우선 야구경기에서 10할의 절반인 5할은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도 달성하지 못한 꿈의 타율이다. 보통사람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중간이 아닌 좋은 사람이다. 무더운 (+)의 여름을 거쳐야 중도(0)의 가을을 느낄 수 있으며 (-)의 혹독한 겨울 추위의 맛을 보아야 중도(0)의 봄을 몸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은 중도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축복받은 나라이다. 알려지지 않은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있다. 음미하지 않은 인생은 헛되이 산 삶이라고 하였다. 중도의 영역인 '해피 미디엄(Happy medium)'은 절묘하다. 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는 말을 실감한다. 중도는 평범한 생활에서 발견한 보통의 맛을 음미하는 행복이다. 생활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중도의 예이다.

시자(侍者)였던 아난(阿難)존자는 80세 고령의 붓다께서 열반에 드시게 될 듯 하자 앞으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느냐고 여쭙는다. 붓다의 유훈(遺訓)에서 불교의 진수(眞髓)를 발견할 수 있다.

"너는 그동안 나를 믿고 살았느냐? 앞으로는 나의 설법을 믿고 살아라. 그리고 궁극에는 너의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에게 귀의하여라."

자등명·법등명(自燈明·法燈明)의 가르침. 불교는 의자(依自) 종교이다. 불교는 붓다가 아닌 붓다의 말씀을 믿는 종교이다. 붓다의 가르침을 분모(分母)로 자신의 정신세계를 분자(分子)로 독창적인 세계를 이룬 불자를 작가(作家)라고 한다. 작가는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연설(演說)처럼 불교에서 온 말이다. 나는 인도여행 중 야간열차를 기다리는 켄트역(驛) 구내의 아담한 책방에서 다음의 책 이름을 발견하는 순간 꿈속인 듯 황홀하였다. 어떻게 붓다의 정수(精髓)를 이처럼 번역할 수 있을까. 필자의 의역(意譯)이다.

'Meet yourself!(너의 진면목을 만나라!)'

오늘날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기성복 같은 행복론은 허다하다. 일상에서 밥 먹고 차 마시는 일이 곧 행복이라는 항다반사(恒茶飯事), 원(圓, 0)에 만족하는 삶이 원만(圓滿)한 인생 아닐까. 나는 잠시 작가 불자가 되어 다음의 명제(命題, proposition)를 지어 보았다. '천상천하(天上天下) your 독(獨) zone!' 나의 인생 후반기에 발견한 중도. 아! 중도여! 이제는 유레카(Eureka, 발견의 희열)를 노래하고 싶구나.〈끝〉

▲이규항 前 KBS아나운서 실장은?



서울 출생. 고려대 2학년 때 학년을 4학년으로 올려 KBS 아나운서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으나, 규정에 어긋나 졸업하던 해 다시 KBS 아나운서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야구, 씨름, 유도 전문 캐스터로 활동하며 35년 동안 KBS 아나운서로 봉직했다. 퇴직 후에는 일본 프로 야구의 주니치로 이적한 선동렬, 이종범, 이상훈 선수의 활약상을 중계했다. 저서로 〈부처님의 밥맛〉 〈0의 행복〉 〈한국어 발음사전〉 등이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불교의 현대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일 정 2023년 9월 6일(수) ~ 8일(금), 2박 3일

장 소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연수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1일차 (9월 6일,수)	2일차 (9월 7일, 목)	3일차 (9월 8일, 금)
09:00~12:00		지혜를 밝히는 법회 '기획부터 시연까지'	마음불사 도량불사 스님들의 고민 톡!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한마음과학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수행 법회 사찰운영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지혜를 밝히는 법회 기획부터 실습
▶ 한마음과학 특강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범어사 기초수행지원금’ 후원 이어져

4월 13일, 주지실에서 전달식 개최
정관 대종사 문도 · 마하다도회 등
승·재가 후원 4월 총 4600여 만원
보운 스님, “스님 복지 위해 최선”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범어사는 4월 13일 주지실에서 기초수행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보운)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기초수행지원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승 · 재가의 후원과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4월에 총 4600여 만 원의 성금이 전달됐다. 성금은 불국당 정관 대종사 문도 대표인 범산 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들이 3800여 만 원을 기초수행지원금으로 희사했다. 성금은 지난 3월 15일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불국당 정관 대종사의 49재를 범어사에서 회향하면서, 정관 대종사의 포교 · 전법 정신을 받들고자 장례와 49재 후 모은 성금을 범어사 기초수행지원금으로 전달했다.

재가불자들의 희사도 이어졌다. 금정총림 범어사 마하다도회는 800만 원을 범어사 기초수행지원금으로 회향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3월 범어사에서 봉행한 제43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당시 의전을 담당한 마하다도회에 지급된 진행경비 전액이다.

범어사는 4월 13일 주지실에서 전달식을 개최하고 기초수행지원금 후원의 의미를 설명했다. 불국당 정관 대종사 문도 법열 스님은 “입적하신 정관 대종사 스님은 90년대 초 복지가 미흡하던 당시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를 창립하시고 복지에 초석을 놓으신 분이시다. 이번 기금 전달식에서 큰스님의 정신이 반영된 것 같아 기쁘다”며 “이번 후원금은 큰스님 입적 후 영결식을 진행하고 모은 금액을 모두 복지기금에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는 문도 대표이신 범산 스님과 문도들의 뜻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백영선 마하다도회 회장은 “범어사에서 진행된 구족계 수계산림에서 회원들이 새벽에 나와 늦은 밤까지 정성껏 공양을 올렸다. 저희 회원들은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복전(福田)을 일구는 수행이라 여기며 감사하게 생각했다”며 “범어사 사중에서 지급된 행사 경비를 받고서 더 좋은 취지로 회향하기로 모든 회원들이 마음을 모았고 범어사 기초수행지원금 성금으로 전달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지 보운 스님은 “불국당 정관 대종사의 생전 가르침이 담긴 뜻깊은 회향이며, 문도스님들께서 먼저 마음을 내주시고 범어사 스님들의 복지를 위해 회향해주셨다. 또 마하다도회는 구족계 산림 기간 동안 봉사하며 노력과 비용이 지출되었을텐데 이렇게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스님은 “스님들을 위한 복지는 계속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스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의료복지 등 노후 복지를 위한 계획도 세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범어사 기초수행지원금 제도는 2023년 1월 15일 시작된 범어사 최초의 정기승가지원제도이다. 범어사는 재적스님들 중 월보시를 100만 원 이하로 받는 스님들에게 매월 20만 원의 기초수행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범어사 재적스님은 총 378명이며 기초수행지원금을 신청한 스님은 210여 명이다. 매월 신청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신청자격은 비구 · 비구니계를 수지한 범어사 재적승으로 △결계 및 포살에 관한 종단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스님 △사찰(공찰, 사설, 포교소, 산내암자)의 주지(대표, 감원)가 아닌 스님 △사찰, 종단, 기관 및 시설의 소임자면 신청가능하다. 범어사 수사찰에 책정된 특별분담금을 기금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찰 특별분담금 지정사찰은 부산 마하사(주지 정산), 법륜사(주지 각진), 선암사(주지 원타), 운수사(주지 범일), 장안사(주지 무관),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 김해 은하사(주지 혜수) 7곳이다. 범어사는 매월 문자메시지를 통해 재적스님들에게 지원 현황을 알리고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신청은 범어사 종무소와 우편 또는 종무소 이메일(beomeosa@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 (051)508-3122

통도사, 계묘년 윤달 가사불사 회향

42일 동안 영산전 가사당 지정
도편수 명천 스님 참여해 지도
오조가사 100 · 보살계가사 500


영축총림 통도사가 4월 9일 경내 설법전에서 ‘계묘년 윤달 가사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가 4월 9일 설법전에서 ‘계묘년 윤달 가사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통도사는 윤달을 맞아 가사불사와 생전예수재를 함께 입재하고 경내 영산전에서 오조가사와 마니가사를 직접 제작하는 가사불사를 진행했다. 통도사는 42일 동안 영산전을 가사당으로 지정하고 도편수 명천 스님이 참여해 불자들에게 가사 짓는 법을 지도했다. 통도사는 전국의 조계종 사찰 중 유일하게 가사당을 운영하는 사찰이다. 대가사는 조계종 가사원에서 제작하는 가사를 사용하고, 불자들의 신심 고취와 가사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가사당을 이 기간 동안 특별 운영한다. 불사기간 동안 통도사 가사당에서 불자들은 오조가사 100벌, 보살계가사 500벌을 제작했다.

회향법회는 먼저 이운식으로 진행됐다. 이운식은 가사당에서 설법전까지 가사를 이운하는 것이며, 이운 행렬에는 30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장관을 연출했다. 이운된 가사는 설법전 불단에 안치되었으며,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가 집전한 점안의식이 진행됐다. 점안의식 불자들을 대신해 통도사 강원 학인 스님들이 종정 성파 대종사와 주지 현덕 스님, 율주 덕문 스님 등 스님들에게 가사 공양을 올렸다. 새 가사를 받은 스님들은 사부대중이 정성으로 올린 가사를 받아 이마에 정대하고 “훌륭하다. 해탈의 옷이여 더할 나위 없는 복전의(福田衣)”라며 “내가 지금 이 가사를 받아 머리에 이었으니 태어나는 세상마다 항상 이 옷을 입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법회에서 통도사는 가사불사 공로자를 위한 감사장 전달식을 진행했다. 주지 현덕 스님은 가사불사대중을 지도한 도편수 명천 스님을 비롯해 편수 금강수 불자, 양공 선덕화, 보명화, 신심원, 미란, 보타행 불자 등 6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주지 현덕 스님이 주지 취임 후 사부대중에 처음으로 인사말을 전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먼저 가사불사를 위해 노력한 불자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스님은 “불사 기간 동안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가사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힘써준 도편수 명천 스님과 많은 불자님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스님은 “불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도량으로 열심히 정진하고 사부대중 모두가 도반이 되어 함께 격려하는 화합의 도량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 연종학림, 이전 개원 및 점안법회



대한불교조계종 연종학림(주지 청명)이 4월 9일 법당에서 이전 개원 및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연종학림은 개원법회를 통해 경전을 연구했던 연종학림 법당과 바즈라야나 명상센터를 통합운영하고 경전 교학 및 명상수행이 함께하는 도량으로 거듭났다. 또 준제보살 점안의식을 통해 진언밀교 수행의 수승함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도성 스님은 “준제보살님의 준제라는 의미는 맑고 깨끗하다는 말”이라며 “우리가 탐진치를 놓아버리면 준제보살이 된다. 도량을 찾아 수행하고 진언 염송하면 준제를 굴리고 여의주를 굴리고 있는 것”이라고 법문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견강암, ‘이웃과 함께하는 정나누기 만발공양’

지역민에 짜장면 800인 분 공양
사상구 보건소 의료봉사도 함께



자비나눔 실천도량 견강암(주지 향공)이 4월 12일 고동바위공원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정(情)나누기 만발공양’을 진행했다.〈사진〉 견강암은 매월 2 · 4주 수요일 고동바위공원 일원에서 지역 어르신 및 소외이웃을 위한 국수 무료급식을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는 특식으로 짜장면 800인 분을 마련해 공양을 대접했다.

만발공양 나눔에는 주지 향공 스님을 비롯해 윤태한 부산시의회 의원과 견강암 산하 봉사단체 사단법인 부산 정각원 회원 4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향공 스님은 “불교계에는 많은 무료급식소가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에 사라지고 활동을 쉬는 경우를 보았다”며 “지속적인 나눔 실천으로 위축된 나눔 활동을 응원하고 봄날 어르신들의 만수무강과 활력을 위해 특식으로 급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견강암은 지역 소외 이웃을 위한 봉사와 나눔 실천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짜장면 만발공양에서는 특별히 부산 사상구 보건소가 동참해 어르신들의 혈압과 당뇨 측정, 치매 예방 등 의료봉사도 함께 진행했다. 함께 진행된 의료봉사는 사상구 보건소가 견강암에서 진행하는 무료급식 소식을 듣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먼저 동참을 청해왔다. 또 이번 짜장면 만발공양을 위해 중식당을 운영하는 대표가 직접 참여해 음식을 직접 만들었다. 또 윤태한 부산시의회 의원이 7년 동안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견강암 나눔봉사는 주지 향공 스님이 30여 년 전 국제시장 난민촌에서 국수만 발공양으로 시작했다. 이후 16년 전 현재 부산 사상구로 도량을 이전 개원한 후 국수만발공양을 이어왔다. 스님의 봉사에 함께하는 봉사회원들이 모여 ‘정각원’을 창립했고, ‘정각원’은 2022년 11월 1일 사단법인 부산정각원으로 발돋움했다. 사단법인 부산정각원 회원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 현재 1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견강암은 매월 둘째, 넷째 주에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모라동 고동바위에서 무료급식을 진행 중이다. 무료급식과 함께 장학금 전달, 어르신 효잔치, 팥죽, 김장김치, 라면 등 음식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무료급식이 어려운 시기에도 500여 가구에 도시락을 전달하며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오봉사, 78주년 개산대재 봉행



울산 약천산 오봉사(주지 혜원)가 4월 6일 경내에서 ‘78주년 개산대재 및 선덕여왕 추모봉향대재’를 봉행했다.〈사진〉

개산대재에는 회주 영현 스님, 주지 혜원 스님, 원성 스님, 능행 스님, 천도 스님을 비롯해 차영환 신도회장, 이순걸 울주군수, 서범수 국회의원, 김영철 의회의장, 김용주 변호사, 청명심 명예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삼귀의 △육법공양 △타종 △공양의식 △축원 순으로 이어졌으며, 2부는 △차공양(다례) △창건유래 안내 △내빈소개 △제례행사 △장학금전달 △인사말 △축사, 3부는 축하무대 순으로 진행했다. 장학금은 유성욱(삼정초) 학생 외 6명에게 각 20만 원, 총 120만 원을 전달했다.

주지 혜원 스님은 “78주년 개산대재를 맞을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영현 은사 스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다.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린다”며 “앞으로도 선덕여왕의 덕을 기리며 국민의 안식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파라미타, 신입생 환영 및 발대식



사단법인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총재 보운, 이하 부산파라미타)가 4월 8일 범어사 일대에서 신입생 환영대회 및 발대식을 봉행했다.〈사진〉

발대식에는 범어사 포교국장 눌은 스님, 범어사 홍보과장 벽해 스님을 비롯해 백명숙 협회장, 김석조 前 부산파라미타회장, 왕선자 부산여성불자회 고문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총재 보운 스님은 대독을 통해 “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들은 미래 희망이자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 갈 동량”이라며 “불교는 여러분들이 삶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자산이자 등불이 될 것이다. 마음자리가 깊은 청소년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명숙 협회장은 “우리 학생들을 3년 만에 이 자리에서 만나니 감개가 무량하다”며 “새롭게 입회한 학생 여러분들이 파라미타 활동에서 지혜를 얻기를 바란다”며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을 갖추신 분이시다. 부처님의 지혜를 닮아가고 깨우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4회 가야의 숨결 녹색걷기명상 개최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도명)이 4월 8일 김해 수릉원 및 대성동 고분군 일원에서 제4회 가야의 숨결 녹색걷기명상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걷기 명상은 가야국제명상센터와 인도 사티 인스티튜트가 함께했으며,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 스님, 바라밀선원 인해 스님, 경남포교사단 단원을 비롯해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걷기명상 방법 안내 및 이사장 도명 스님의 선무도 시범, 대성동고분군 걷기, 회향 순으로 진행됐다.

이사장 도명 스님은 “자비명상 및 호흡명상 등 명상문화가 생활 속에서 일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명상을 널리 알리고 모두가 적용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녕 무심사, 수륙용왕 방생대재 봉행



경남 창녕 무심사(주지 무심)가 4월 9일 대웅보전 및 낙동강 일대에서 제15회 수륙용왕방생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법회를 통해 무심사는 국가와 지구촌의 안녕을 기원하고 전쟁 종식으로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기원했다.

방생법회에는 무심사 주지 무심 스님, 회심사 법조 스님, 염불선원 진암 스님, 봉암사 애심 스님, 국불사 무천 스님, 우포정사 대영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무심 스님은 “생명의 소중함과 존귀함을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복덕을 얻는 불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며 “방생을 통해 자비심을 증장시키고 생활 속에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방하착해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참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한국명상진흥원 ‘명상학교’ 출발!



한국명상진흥원 명상학교(교장 마가)가 4월 6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명상 안내 프로그램 ‘어서와! 명상은 처음이지! 心봤다!’를 시작했다.〈사진〉

명상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위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강백을 초대해 4월 6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명상학교 프로그램은 재가자 및 일반시민 60여 명의 참가자가 동참했다.

첫 강의에서 마가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실천해 행복을 얻기를 바란다”며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삶의 변화를 체득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첸코리아 대표 용수 스님, 해인사 상임포교사 광우 스님, 석태사 주지 만초 스님, 보디야나 선원장 혜안 스님, 목탁소리 운영자 법상 스님 등 11명의 스님 및 불자가수가 명상에 대해 안내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화합 · 평화 기원한 해인사 '정대불사'

4월 7~8일 팔만대장경의 날 행사
팔만대장경 조성정신 · 가치 조명
다양한 대중 참여 체험프로그램


해인사가 4월 7일부터 8일까지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정대불사)' 기념행사를 봉행했다. 사진은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우측 첫 번째)과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우측 두 번째) 등 대중의 정대요잡 장면.

성낙두 경남지사장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가 팔만대장경에 담겨있는 소중한 뜻과 조성과정에 깃들어 있는 선조들의 정성을 기리기 위한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정대불사)' 기념행사를 4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봉행했다.

해인사 및 장경판전 일원에서 열린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정대불사)' 기념행사의 첫째 날인 7일에는 해인사 성보박물관 주차장에서 팔만대장경 이운행렬이 재현됐다.

저녁예불 후에는 만불보전과 보경당에서 일자일배 사경의식이 진행됐고 팔만대장경 법문과 철야기도가 보경당에서 봉행됐다.

둘째 날인 8일에는 보경당 앞마당에서 대장경 인경체험행사가 열렸고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 호국금광명경 합송. 법보전 합장순례 및 정대요잡, 소전 및 회향, 생전예수재 2재가 봉행됐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인사 곳곳에서는 경판에 먹물을 묻혀 팔만대장경을 찍어내는 인경 체험, 에코백 만들기, 전통열쇠고리 만들기, 솜사탕 나누기 등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은 고유문을 통해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는 고해에 빠진 중생들을 위해 팔만대장경을 설하셨고, 우리 선조들은 몽골의 침략으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을 때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팔만대장경을 목판에 새기고 종이에 찍어내어 세상에 유포했다"며 "오늘 고려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팔만대장경에 새겨진 부처님의 가르침과 대장경을 조성했던 뜻을 기림으로써 이 시대의 모든 재난을 극복하여 국민화합을 이루고 세상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고자 한다"고 부처님 전에 고했다.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은 법어를 통해 "몽고의 침략으로 전 국토가 유린당할 때 이를 이겨내기 위해 팔만대장경을 조성했고 호법이라는 팔만대장경의 영험은 결국 백성을 지켜주는 호민으로 나타났고 호민은 그대로 국토를 지켜준 호국으로 이어지는 세월이 800여 성상을 지나 판전의 영험은 법복음의 기도자가 되었고, 그 영험의 가치를 잇고자 백성들의 호법을 위한 참배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종훈 문화재 보존국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팔만대장경은 외세의 침입과 재난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 16년에 걸쳐 8만 매가 넘는 목판에 모든 불경을 판각했고 이후 무려 1천 년에 가까운 시간 걸쳐서 전해진 우리나라의 국보이자 세계 기록유산"이라며 "팔만대장경에 새겨진 부처님의 8만 4천 법문이 전쟁과 질병 그리고 가난처럼 오랜 시간 동안 인류와 함께해온 어려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새롭게 찾아온 난관 또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윤철 합천군수의 축사, 심재상 해인사 신도회장의 정대불사 발원 낭독이 이어졌다.

기념식을 마친후에는 대적광전 마당에서 호국금광명경 합송, 탑마당-독성각옆길-연화문-장경판전 내부-학사대-청화당 옆길-해인도-보경당 앞에 이르는 법보전 합장순례, 공덕주 위패이운, 정대요잡에 이어 팔만대장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13명의 공덕주에게 올리는 헌다례와 소전을 마무리됐다.

법보종찰 해인사는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정대불사)' 기념행사를 통해 선현들의 팔만대장경 조성 정신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 부처님의 가피로 전쟁 · 질병 · 가난이라는 삼재를 소멸하여 국운융창을 발원하고, 특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함께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민의 건강과 평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자비 평화의 꽃내음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원하고자 매년 양력 4월 둘째 주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 봉행해 오고 있다.

보은사, 월암스님 초청 백고좌 법회



보은사(주지 도제)는 4월 9일 대웅전에서 제4회 보은사 고월 백고좌 법회를 열고,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 초청법회를 개최했다.

매월 1회씩 10년 동안 진행하는 백고좌 법회는 올해 4번째로 전국 선원수좌회 의장을 역임한 월암 스님의 '참선수행 어떻게 할까?' 라는 주제로 1시간의 열띤 강연을 진행했다.

월암 스님은 법회에서 "본래 마음자리 심지가 빛이요 광명이다. 무등에 빛고을이 있으니, 광주는 빛을 밝히고 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중생이 본래 부처이니 본래 부처님이 사는 마을이 광주"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참선수행에 대해 "최근 4차 산업혁명 이후 명상이 대세이다. 명상과 수행을 통해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달아야 한다"며 "사람은 하루에 생각을 5만 번을 한다고 한다. 우리는 한 생각에 천당과 지옥을 만들어, 육도(六道) 윤회가 자신의 한 생각에 있다"며 "하루에 5만 번 태어나고 5만 번 죽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일반에서는 탄생부터 죽음을 일생이라고 하지만, 선(禪)문에서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생(生)이요, 생각이 멸(滅)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본성 자리는 한 번도 태어나거나 죽는 것이 없다. 이 도리를 깨우치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제 스님은 법문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 시대 수좌로 꼽히는 월암 스님을 모시고 큰 말씀을 듣게 되어 감사하다. 마음을 가진 모든 생명이 모두 부처이니, 모든 생명을 대하기를 부처님 모시듯이 해야 하며, 이것이 곧 불공이고 법당에서 하는 기도"라고 강조했다.

보은사는 5월 6일 정목 스님(BTN-나무그늘아래서) 초청 백고좌 법회를 이어간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정토원 아미타부처님 개금불사 점안식



김해 봉화산 정토원(이사장 선건)이 4월 9일 정토원 수광전에서 아미타불 개금불사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개금불사 점안법회는 30년 만의 일로 정경원 불자의 원력으로 봉행하게 됐다.

선건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토원 수광전 아미타부처님께 금빛 새 옷을 입혀드리는 의식으로 새로이 불상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이번 불사를 계기로 봉화산 정토원 사부대중은 아미타부처님께는 새 옷을 입혀드리며, 우리 스스로는 더욱 더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며 내가 거추장스럽게 입고 있는 탐진치 삼독심이라는 불필요한 옷을 벗어버리는 수행의 방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음무, 극락무, 민홍철 국회의원의 축사와 기념축시 낭독이 진행됐다.

김해 봉하마을 봉화산자락에 자리 잡은 정토원은 1964년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을 역임한 故 선진규 법사가 사상과 이념, 정치와 종교, 지역, 사회 계층 간의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통합하자는 염원으로 호미든 관음상을 조성한 후 2021년 평화통일 염원탑을 조성한 바 있다.

노무현 前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이 있었던 선진규가 법사가 수광전에 노무현 前 대통령과 김대중 前 대통령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토원은 바람개비 책방을 새롭게 단장하고, 경내 일원에 봉하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쉼터도 조성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경우 스님 "지역 맞춤형 전법 나서겠다"

4월 8일 특별무대서 주지 진산식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 대중 참석


선운사는 4월 8일 경내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제20대 주지 경우 스님의 진산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는 4월 8일 경내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제20대 주지 경우 스님의 진산식을 봉행했다.

이날 진산식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해 경우 스님의 주지 진산을 축하했다.

주지 진산식 봉행위원장 대원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선운 수행공동체 구성원들은 언제나 서로 의지하고 탁마하고 기도하고 운력하고 화합할 것을 다짐하며, 금일 도솔산을 불국토로 장엄한 진산 공덕을 널리 법계에 두루 회향하고자 한다"고 불보살전에 고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취임사에서 "오로지 전법 포교를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늘려가고 있으며, 수행, 신행, 복지, 문화 공동체로서 승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금까지의 변화와 성장을 밑거름 삼아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전법포교의 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우 스님은 이어 "안정 속에서 변화를, 변화 속에서 화합을, 화합 속에서 본래면목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선운사 대중은 물론 교구스님들과 함께 선운사의 본래면목을 찾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 경우 스님은 지난 8년간 선운사 본 · 말사 공개 살림을 실현해서 재정 투명성을 높여왔고, 승려 노후 수행마을 운영 등 승려복지 프로그램도 확대해 왔으며 이를 통한 교구 승가 공동체를 회복하고 교구의 지역사회 활동을 증대시켜 왔다" 고 치하했다.

스님은 또 "앞으로 승가공동체 회복과 지역과 함께하는 교구 본 · 말사의 역할 그리고 선 명상을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선운사가 큰 역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 법의 화합 제일이다.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자주 모이고 정법을 논하고 서로 대중의 뜻을 모으는 것 밖에는 없다"며 "대중들의 마음을 모아 나아가고 뜻을 모아 앞으로 선운사의 발전과 우리 종단에 기여할 바를 크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도 스님은 축사를 통해 "오늘 진산식에 있어 총무원장 스님과 원로 대덕스님, 기관장들과 같이 축하할 수 있어 저도 더 없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지혜가 있는 분이 우리 종단에서 역할을 하고 지역에서 역할을 했을 때 선운사가 더욱 빛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교구본사 주지스님들도 뜻을 모아 뜻을 펼 수 있게 축원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선운사 원로 범여 스님, 선운사 임종혁 신도회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오후에는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의 집전으로 생전예수재 회향법회가 저녁 무렵까지 봉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세계불교교황청 석가여래 정법안장 건당식



세계불교교황청 칠곡 각황사가 4월 10일 세계불교교황청 총본산 각황사에서 석가여래 정법안장 77세 및 78세 건당법회를 봉행했다.

세계불교교황청장 능인 스님은 석가여래 정법안장 77세 석담 스님, 혜광 스님, 78세 곡담 스님, 경산 스님, 거불 스님, 청명 스님에게 전법게를 설하고 전법을 증명하는 대가사, 장삼, 발우, 전법게, 장실, 계보를 전달했다.

능인스님은 법문을 통해 "전법의식을 통해 석가여래 부처님의 안심법문을 모두 전했다"며 "수행과 전법을 통해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전하기 바란다"고 설했다.

이 날 입실건당을 마친 스님들은 "중생제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항상 중생 속에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수행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입실건당법회에는 세계불교교황청장 석능인 대승통, 대한불교호법조계종 호법 스님, 세계불교교황청 7대 총무원장 운봉 스님, 청련암 원산 스님, 유리정사 봉화 스님, 백이사 청아 스님, 성원사 법연 스님, 금산사 보우 스님, 혜광선원 혜광 스님, 위봉사 석담 스님 등 가산문도회 스님들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세계불교교황청장 능인 스님은 제7대 총무원장 운봉 스님에게 임명패를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정관암 제7회 차 · 시 · 락의 밤 개최



울산 정관암(주지 대활)이 4월 8일 대웅전 앞마당에 차려진 야외무대에서 차와 시, 음악이 함께하는 제7회 '차시락의 밤' 을 개최했다.

차시락의 밤 행사는 신록이 짙어가는 산사의 진달래 꽃길을 걷고 절 마당에 차려진 장마당에서 떡메를 치고, 그 떡으로 화전놀이를 즐기고 저녁공양을 마친 후 시작됐다.

이날 행사에서 제7회 울산연주인의 상은 최기삼 전자 올겐연주가가 수상했다.

정관암 주지 대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날들을 돌아보면 코로나19가 그간 우리의 삶을 너무 힘들게 했지만 이제 우리의 일상도 코로나19라는 어둡고 긴 터널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촐한 행사지만 잠시라도 일상의 고민을 훌훌 털어버리는 힐링의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축사에서 "7회째를 맞이하는 '차 · 시 · 락의 밤' 은 문화예술을 아끼는 주민들과 지역 예술인들에게 소중한 행사로 여겨지고 있다"며 "특히 기량이 뛰어나지만 소외받기 쉬운 연주인을 매년 발굴하여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고요하고 아늑한 산사에서 자연의 소리와 어울리는 공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감각을 일깨우는 훌륭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주었다"고 치하했다.

서범수 국회의원은 "차시락의 밤은 많은 분들께 위로와 감동,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으며 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차 · 시 · 락의 밤' 이 더욱 기대되고 기다려진다"며 "정관암의 맑고 청명한 기운으로 세속에서 지친 마음을 달래고 번뇌를 벗어나 내면을 들여다보는 치유의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공연에는 드러머 김민동의 드럼연주, 마술공연, 박선혜의 색소폰 연주가 이어졌으며 트롯공주 전유진이 출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내소사 · 부안해양경찰서 업무 협약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와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가 4월 10일 직원 복지향상 및 정서 안정, 내소사 템플스테이 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소사는 해양경찰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정서 안정을 위해 부안해양경찰서 직원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부안해양경찰서는 내소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내소사와 부안해양경찰서 양 기관은 협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다섯 차례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협약안을 도출했고, 이번 템플스테이 협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템플스테이 체험이 한국 전통문화로서 종교를 떠나 문화체험 또는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고, 부안해양경찰서와 내소사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소사 템플스테이는 사찰예절과 명상 등 휴식 프로그램과 직소폭포 트레킹, 백팔 염주 만들기, 전나무숲 걷기 등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해양사고 및 범죄 현장에서 각종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부안해양경찰서 소속 직원들에게 내소사의 아름다운 자연풍광 속에서 전통사찰 수행체험 기회를 통해 정신 수양과 정서 안정을 통해 마음 치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기주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대한불교조계종 내소사 주지 월봉 진성 스님과 묘향 스님을 비롯해 애써주신 내소사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템플스테이체험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힐링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본말사 생전예수재 회향



금산사(주지 일원)는 4월 9일 본 · 말사 합동 생전예수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계유년 윤달을 맞아 지난 2월 20일 입재 후 49일간의 기도를 회향하는 이날 생전예수재는 조계종 어장 인묵 스님과 종장 덕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의 집전으로 전통방식으로 봉행됐다.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은 법문에서 "이번과 같이 윤달이 돌아오면 생전예수재에 동참해 자신이 쌓은 업보를 녹여내고 미리 죽음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각자에 맞는 수행방법을 골라 업장을 소멸하는 수행을 하면 삶에서 장애가 사라지고 죽음을 두렵게 여기지 않게 된다"고 참회기도와 지속적인 수행을 당부했다.

이날 생전예수재에 동참한 불자들은 평소 스스로의 신행생활을 점검하고 불보살님과 호법신중의 가피력으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닦아나가는 보살행의 실천할 것을 서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네팔 불교, 연극에 빠지다

3월 27~30일, 제3회 불교연극제
부처님 생애 · 문학 작품서 각색도
팃낙한 스님 소설 연극화해 인기
"불교 미학 · 정신 담겨" 호평 이어

박영빈 객원기자



네팔에서 개최된 불교연극제의 모습. 사진출처=더 카트만두 포스트

부처님이 태어난 나라인 네팔에서 불교를 주제로 하는 연극제가 개최됐다. 이번으로 벌써 3회차를 맞는 네팔 불교 연극제를 통해 네팔 연극인들 사이에서 불교의 스토리텔링이 인기를 끌고 있다. 4월 8일, 네팔의 '더 카트만두 포스트' 는 불교 연극제의 내막을 상세히 보도했다.

지난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다발리 극장에서는 연극감독이자 배우인 푸스카르 구룽 감독의 지도아래 제3회 '불교 연극제' 가 개최됐다. 불교설화를 각색하거나, 불교적인 모티프를 주제로 한 극들이 상연됐고 불교희극에 대한 학술 세미나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연극제에서 상연된 연극들은 주로 부처님의 생애 속에 등장하는 설화들에서 가져오거나, 불교를 주제로 한 다른 문학 작품들을 연극으로 각색한 작품들이다. 특히 올해는 유녀 암바팔리의 설화나, 틱낫한 스님의 단편 소설인 〈옛길, 흰 구름〉 등이 연극화 됐다.

연극제를 이끈 구룽 감독은 "불교 연극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이다. 연극인들은 각자 그들이 가진 불교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제 공연에 결합하는 실험을 대중들에게 보이는 것"이라며 연극제에 더욱 다양한 주제와 해석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했다.

연극제에서 '마야부인의 꿈' 이라는 제목의 연극을 상연하고 직접 연기한 극작가 아비 수베디는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 이야기 속에 네팔의 근현대사를 담아내고자 시도했다. 등장인물들의 이름이나 이야기와은 미장센은 불교지만 실제 관람객들의 눈에는 연극에 등장하는 마오주의 게릴라, 테러, 가난 등의 우리가 겪어온 이야기들이 먼저 다가올 것"이라고 전했다. 아비는 "연극과 공연을 예로 들어 우리 삶속에 불교의 정신을 보이고 싶었다. 반드시 불교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보일 필요는 없다. 불교의 미학과 정신이 담겨 있다면 그 자체로 훌륭한 불교 희곡이라고 생각한다"며 불교 연극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연극제 마지막 날 진행된 학술 세미나에선 현재 공연되고 있는 불교 희곡에 있어서 부처님의 생애라는 테마의 한계와 다양성을 보여주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주로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인 자비와 평화가 중심적으로 다뤄졌고, 환경이나 정치와 같은 주제도 함께 발표돼 주목을 끌었다. 특히 저명한 티베트학 학자인 푼야 파라줄리 박사는 현재 티베트 전통희곡에서 티베트로 시집간 네팔의 공주 브리쿠티가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설명하며, 연극을 통해 불교적인 내용과 정치적인 내용이 함께 주제로 다뤄 질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더 카트만두 포스트는 아비 수베디의 말을 인용하며 "네팔 연극인들의 불교에 대한 애정은 불교의 미학과 실용주의적이고 중도적인 가르침에서 비롯한다. 특히 불교문헌들의 다양한 비유화 설화는 연극인들에게 영감의 보고와 같다"고 설명했다. 연극제를 이끈 구룽감독은 "장래 이 연극제를 법인화하여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진행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300년 된 불상, 도난 하루 만에 제자리

"불상 때문에 재난 생겼다"며
용의자, 정신착란 증세 보여



도난당했던 빈두로 존자상이 모셔져있던 불단. 사진출처=제로 테레 뉴스 화면 캡쳐.

황당한 이유로 일본에서 도난당한 불상이 다행히 하루 만에 원래의 사찰로 돌아왔다. 지난 4월 6일, 일본의 '제로 테레 뉴스' 등의 현지 언론들은 나가노(長野)시의 젠코지(善光寺)에서 도난당한 '빈두로존자상(賓頭盧尊者像)' 의 환수 경위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지난 5일 오전, 미타성지로 유명한 일본의 고찰 젠코지의 본당에 봉안되어 있던 빈두로존자상이 도난당했다. 도난 직후 사찰의 발 빠른 신고로 익일 오전, 시내에서 용의자인 모리모토 신타로를 체포하고 불상을 환수했다. 불상은 사찰측의 요청으로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6일 낮 무렵 사찰에 다시 반환됐다.

젠코지 측은 "용의자는 5일 오전 6시 아침예불 무렵 본당을 참배했다. 당시 본당을 지키는 종무원에게 '이 불상이 있기에 재난이 일어난다' 라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후 오전 8시경 참배자가 드문 시간에 용의자는 빈두로존자상을 안고 나왔다. 빈두로존자상은 종파를 따지지 않고 일본의 사찰에 흔히 모셔지는 나한상으로, 직접 불상을 만져 기원하는 풍습이 있어 불특정한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하기에 도난에 취약했다.

나가노 경찰 측은 "모리모토 용의자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왜 훔쳤는가에 대한 질문에 '불상에 원한이 있다. 그 불상이 있으면 지진이나 재난이 일어난다. 땅에 파묻으려 했다' 고 진술했다" 고 밝혔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용의자의 모친은 "1년 전 퇴사하고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불교나 종교적인 부분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했다. 범행동기에 대해선 "어째서 불상을 훔쳤는지 짐작도 가지 않는다. 일주일 전에 나가노에 간다고서는 집을 나간 게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전해했다. 실제 용의자는 젠코지를 방문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밝혀졌다.

젠코지 측은 "빈두로존자상은 예로부터 만져서 기원하는 부분의 병고가 사라진다고 알려진 불상이다. 그런 불상 때문에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불상은 300년 이상 이 자리에서 사람들을 돌보아온 불상"이라며 용의자의 진술과 태도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 사찰 측은 당분간 빈두로존자상을 본당의 원래 자리에 봉안하지 않고, 경비체제를 검토 후 재봉안 할 방침이다.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상세한 동기와 범행 경위를 조사 후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 캄보디아 불교 사원 건립 '청신호'

산호세 시의회 만장일치로
"단순 종교 아닌 삶의 방식"



산호세 시 의회에서 사원 건설을 두고 토론하고 있다. 사진출처=산호세 스포트라이트

지난 3월 31일 미국의 'ABC뉴스',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 은 산호세 캄보디아 사원 건립 승인 소식을 전했다.

산호세 시의회는 지난주 캄보디아 공동체의 불교 사원 건설을 승인했다. 캄보디아 승려 12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회의 결정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에버그린 지역 주민들은 교통 체증과 소음 발생 우려해 사원 건립에 반대 목소리를 냈었다. 사원은 건설 승인을 얻기 위해 인근 주민들을 설득하고 건설 계획을 공유하며 수년간 노력해왔다.

승인 소식에 크메르 불교 재단의 리나 람은 "캄보디아 공동체를 위한 순수한 기쁨이다. 사원은 우리에게 단순한 종교가 아닌 삶의 방식이다"이라고 말했다.

사원 건립 지역을 대표하는 '도밍고 칸델라스' 시의원은 "이웃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위해 이 프로젝트에 약 40개의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사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정규 운영 시간을 정하고 대규모 행사에 대한 교통 통제와 보안 조치를 해야한다. 시의원은 "4년간의 작업, 투입, 프로젝트 변화, 커뮤니티 토론을 거쳐 이제는 올바른 일을 해야 할 때" 라면서 "지역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킬링필드의 비극을 겪은 그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내줘야 한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사원은 에버그린에 1300평방미터(약 400평)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완공 시 인근에 위치한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를 포함한 샌프란시스코 해안 대도시권에서 가장 큰 불교 사원이 될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커뮤니티 센터와 캄보디아 공동체를 위한 집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두올 손 스님은 "사원이라고 부르지만 캄보디아 난민에게는 하나의 집"이라면서 "캄보디아 불자들에게 제공할 더 많은 공간과 스님들이 삶의 방식을 실천하기 위해 사원이 필요했다"며 "성스러운 예배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한 관습과 문화, 언어 교육의 수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리나 람은 "기존 캄보디아 사원의 거주 인원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대규모 모임을 위한 충분한 예배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사원은 우리의 종교를 보존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원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조화로운 관계를 보장하기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사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커뮤니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될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미국불교문화협회, 6층 규모 사원 착공

환경 친화 방법으로 건립
2024년 말 개관 목표로



삼보사 투시도 사진출처=SOM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미국불교문화협회가 6층 규모의 사원 착공을 발표했다.

지난 4월 6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 은 미국불교문화협회 사원 착공 소식을 전했다.

미국불교문화협회(ABCS) 미국 샌프란시스코 재팬타운과 차이나타운 사이에 있는 반 네스가에 6층짜리 사원 착공을 발표했다.

370평에 달하는 사원 건축지는 1989년부터 ABCS가 대만 불광산사의 말사인 삼보사와 함께 사원과 서점을 운영했고 지역 불교계의 중심지였다. 현재 단층 시설을 현대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문화센터로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원은 2024년 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건물에는 법당, 명상실, 행정실, 공양시설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기숙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건물 중앙에는 공공미술관, 서점, 찻집, 주민 센터 등 부대시설도 제공할 계획이다.

미국불교문화협회의 후이 지 스님은 "사원 건립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부처님 법을 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설계와 건축을 맡은 SOM사는 "사원 디자인에 불교의 근본인 하심과 이웃에 대한 자비,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아름다움을 담았다"면서 "사원 전면은 전통적인 불교 건축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전통적인 사찰 지붕의 넓은 처마를 재현하고 입구에는 삼문(三門)의 요소를 가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쁜 도시 환경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있는 조용한 휴식과 명상을 즐길 수 있는 내부 공간을 구성했다"며 "수수한 자연의 재료인 인디애나 석회암과 천연 목재를 중심으로 빛의 시학을 더해 감각적인 공간으로 탄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재 객원기자

쉽고 재미있게! 불교명상 A에서 Z까지!



불교명상이란 무엇인가? 불교명상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불교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불교명상의 역사와 원리, 실천 방법과 효과까지 폭넓게 다룬 입문서 겸 실천 가이드북!

방경일 글, 정기영 그림/사륙배판/무선/228쪽/값 20,000원

생전예수재 여법하게 지내기!



예수재의범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석문의범』, 『요집』, 『수생경』, 『시왕경』, 『영산대회작법절차』, 『오종범음집』 등 각종 의식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생전예수재 의식 절차 및 의식문!

편집 해사/사륙배판/양장/276쪽/값 25,000원

入中論 講解

『중론』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인
월칭보살의 『입중론』 해설서!

입중론 강해



『입중론』은 티베트 불학원의 학승들이 필수적으로 게송을 암기하며 달라이라마 존자도 매일 독송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논서로, 이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체가 번역, 해설되었다.

월칭 조송/법존 역강/지엄 한역/신국판/양장/408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대중 극락왕생 염원하며 그린 '극락세계'

조이락 초대전 '극락세계'
무우수갤러리 4월 14~30일

아미타내영도 등 15점 전시
모친 극락왕생 염원도 담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고려불화의 맥을 잇고 있는 조이락 작가가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무우수갤러리에서 초대전 '극락왕생'을 개최한다.

조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아미타내영도, 관세음보살도, 만오천불도, 비천도 등 15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아미타내영도'는 가장 최근작으로, 203cm에 이르는 원작을 줄이고 재구성한 작품이다. 아미타여래가 왕생자 쪽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또한 풍만한 몸체와 느슨하게 둘러져 있는 옷 주름의 묘사도 돋보인다.

아미타여래의 발치에는 연꽃에서 왕생한 아름다운 여인이 푸른 연꽃을 바치고 있다. 왕생자는 아미타여래의 손에서 뿜어내는 형형색색의 빛을 받으며 자석에 이끌리듯 아미타여래를 향한다.

'아미타삼존도'는 〈관무량수경〉의 내용에 따라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관음보살을, 오른쪽에는 세지보살을 그린 것이다. 채색은 주, 녹청, 군청을 주조색으로 했고, 금니로 마무리를 하여 전통적인 고려불화기법을 따르고 있다. 조 작가는 "양대 보살의 이지적이며 살아있는 듯한 눈매와 단아한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화엄경〉에서 선재동자를 맞이하는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기본으로 한 '수월관음도'는 중생을 구제하고 깨우침을 주는 자비의 보살이다. 관음보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고 있는 베일의 부드러운 감촉이 화면 밖에서도 고스란히 전해진다. 이 화려하고 뛰어난 장식성을 보고 있으면 수월관음도가 고려불화 중 왜 가장 인기가 있는지 알 수 있다.


아미타삼존도, 비단에 석채, 110X74, 2006

'모자관음도'는 조 작가가 창작한 수월관음도이다.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대중을 위로하고, 아동 관련 범죄와 저출산 문제 등 사회문제를 생각하며 관세음보살의 자애와 지혜 그리고 법성을 바라는 마음의 작품이다.

'꽃이 피다'와 '진달래 꽃비 내리다'의 바탕은 '만오천불도'이다. 조 작가가 작업실에서 백호와 육계에 수없이 많은 흰점과 붉은 점을 찍던 중, 밖을 내다보니 벚꽃 잎이 후두두 떨어지고 있었다고 한다. 화실 앞 보도블록 위에 떨어진 꽃잎이 마치 점점이 그려진 부처님의 모습 같아 당시의 감동적인 모습을 구현한 작품이다.

'황금새'와 '황금꽃'은 여러 종류의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금, 은, 유리 등 찬란한 보석으로 장식된 나무와 황금 모래가 깔린 연못을 묘사한 〈아미타경〉의 극락세계를 연상케 한다.

한편 이번 전시의 주제인 '극락왕생'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조 작가의 어머니가 극락정토에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 작가의 염원이 담겨 있다. 조 작가는 작가노트 말미에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이라고 적고 있다. 서쪽으로 십만억불토를 지나서야 있는 극락세계는 신심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고 선업을 쌓아야만 갈 수 있는 곳이기에 조 작가는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아미타불의 정토인 극락은 안양, 안락, 연화장세계라고도 한다. 극락은 즐거움만 있는 곳으로,

그 즐거움은 아미타불의 본원이 성취된 깨달음의 즐거움을 말한다. 〈아미타경〉에 의하면 극락세계는 아미타불이 머물며 설법하는 곳으로 서방으로 십만억 불국토를 지나야 있다. 이 같은 공간적 거리와 죽어서 간다는 시간적 거리는 물질적 낙토관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중생구제'의 사상이 담겨 있다.

조 작가는 "관람자도 끝없는 목숨과 끝없는 빛의 의미가 있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아미타불의 명호를 불러보길 바란다"며 "지금은 떠나가고 없는 사랑하는 이의 극락왕생을 기원해 보기도 하고, 또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남겨진 이들의 현세의 삶이 평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이락 작가는 용인대학교 대학원에서 고려불화와 유물재현을 공부했으며 모사와 보존과학 부문 문화재수리 기능자이다. 조 작가는 서양화가로 활동하던 중 우연히 본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에 매료돼 20여 년 동안 불화를 그리고 있다. 10여 회의 개인전과 30여 회의 초대전 및 유물모사 작업에 동참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청, 대구 부인사 등에서 조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신예지 불교미술 작가 첫 번째 개인전 '다다를'

흥천사 4월 15일~5월 28일


신예지 作, 반야를 찾아

신예지 작가가 4월 15일부터 5월 28일까지 서울 흥천사(주지 각밀) 전법회관 2층 북카페 갤러리에서 첫 번째 개인전 '다다를'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흥천사에서 젊은 불교미술 작가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첫 번째로 신예지 작가가 선정됐다.

동국대학교 불교미술 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작가는 불화가 지닌 예술적 가치와 종교적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본인의 작품에 담고 있다. 특히 전통 도상을 기본으로 삼고 있지만 채색의 변주를 주고 섬세한 문양을 가미하여 새로운 미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전시에서 눈에 띄는 작품은 '반야를 찾아'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흥천사의 삼신불 괘불도 하단부를 모본으로 하여 문수동자와 보현동자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화면 전반을 저채도로 하여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함과 동시에 화려한 금문양과 금선을 더해 주목도를 높인 작품이다. 원본의 형태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감각으로 새롭게 변용했다는 점에서 작가의 깊은 성찰을 엿볼 수 있다.

'상수제자1, 2'는 수덕사 노사나불 괘불도 상단부의 십대제자를 두 개의 화폭에 대칭으로 나누어 담은 작품이다. 수많은 존상들 가운데 제자를 주목한 데에서 불교미술을 대하는 작가의 마음과 수행의 지를 느낄 수 있다. 원본의 오색찬란한 빛과 달리, 담백한 채색과 운문으로 배경을 처리하여 십대제자를 명료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제자들의 생동감 있는 표정, 자유로운 자세가 조화를 이루어 작품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섬세한 표현력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선 주요 작품들 외에도, 번뇌를 떨치고 구제받고자 하는 염원이 담긴 '보리심', '처염상정', '수월관음도', '갈애' 등의 작품도 선보인다. 시선을 사로잡는 꽃장식과 영락장식 등의 화려한 표현과 작가의 불심을 볼 수 있다.

전시문의 (02)929-6611. 박재완 기자

특별전 '세계유산 선암사'
국립순천대博 10월 27일까지

세계유산 선암사 문화재 첫 산문 밖 나들이


선각국사 도선 진영

선각국사 도선 진영 등 127점 선보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선암사의 유물이 처음으로 외부에서 전시된다. 국립순천대학교박물관이 10월 27일까지 특별전 '세계유산 선암사'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선암사 유물은 '선각국사 도선 진영', '대각국사 의천 진영', '33조사도', '선암사 동종'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등 보물 5점과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은입사향로', '선암사중수비(탁본)' 등 전남유형문화재 3점 등 모두 127점이다.

이번 특별전은 선암사 유물의 최초 속세 나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암사가 창건된 이래로 선암사 유물이 외부에서 공개되는 첫 번째 전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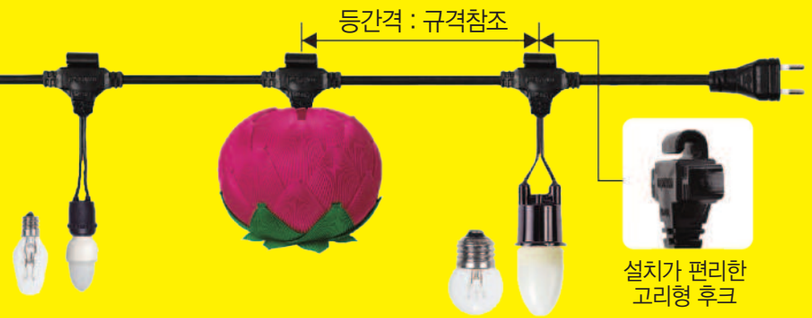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순천을 대표하는 고찰 중 한 곳인 선암사의 유물을 지역민에게 선보이는 한편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되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을 위해 순천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세계유산 선암사의 불교문화재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그동안 일반인들이 쉽게 관람할 수 없었던 유네스코 세계유산 선암사 불교문화재의 진면목을 볼 수 있게 됐다.

순천 선암사는 백제 성왕 5년(527년)에 현재의 비로암지에 아도화상이 창건했다. 사찰명은 해천사였다. 도선국사가 현 가람 위치에 중창하고, 의천 대각국사가 대각암에 주석하면서 선암사를 중창했다. 조선시대 말기에는 호남을 대표하는 4대 강백을 배출했다.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강성호 국립순천대학교 박물관장은 "세계유산 선암사는 간화선의 수행정신과 경전의 강학전통 및 염불수행의 승풍을 고고하게 지켜온 청정도량이자 천년고찰로서 많은 불교문화재들을 소장하고 있음에도 오랫동안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에 선암사를 대표하는 보물들을 특별히 엄선하여 대중이 선암사의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박재완 기자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시대적 붓다상 통해 사회문제 해법 찾다



붓다전기의 변용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 묶음
동국대 출판문화원 펴냄
2만원



종교학, 불교학적 해명
윤영해 지음
동국대 출판문화원 펴냄
4만원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는 인간과 인간의 삶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했다. 인도불교가 직시해야했던 고민과 중국불교가 당면했던 고민, 그리고 한국불교가 처한 상황에서의 문제인식은 제각기 달랐다. 그렇기에 부처님 생애를 다룬 붓다전기(佛傳)는 불교의 전래에 따라 변용되어 왔다.

이러한 불교의 전파 경로에 따른 불전의 변용을 연구한 업적이 하나로 집대성됐다. 동국대 WISE캠퍼스에서 2023년 3월 발간한 〈붓다전기의 변용〉이 그 것이다.

한국불교에서는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수행적 접목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대(對)사회적 고민을 해왔다.

최근 들어 전통강원 교육방식에 더해 서양철학적 접근방식과 종교학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는 가운데, 새로운 조류가 일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불전의 전래와 변용을 새롭게 연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졌다.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은 지난 3년간 '불교의 전파경로와 붓다전기(佛傳)의 변용 양상'을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하나의 주제로 3년간 논쟁한 것은 그만큼 이 주제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석길암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원장은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서로의 전공영역에서 붓다전기에 대한 이해를 좁혀 나가며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붓다상, 추구해야 할 인문적 붓다상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 책은 이 시대에 맞는 붓다상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과연 얼마나 고민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화두를 던진다"고 말했다.

청바지 입은 붓다?

〈붓다전기의 변용〉에서는 경·율·론 삼장과 삼장에 대한 주석서 그리고 각 불교전통에서 만들어진 불교전적들을 다양한 시각에 따라 보여준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는 붓다전기의 모습들은 그 시대와 지역의 불교사상 또는 불교인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 총 8편의 수록 논문에서는 주로 불교 전파의 큰 두 갈래인 북전과 남전의 양상을 대조적으로 논한다.

북전과 남전의 두 전파 경로
상호비교로 '불전' 변화 살펴
활용 지점에서 시대 화두와
접점 모색, 해법 도출한 역작

정덕 스님, 법진 스님, 황순일 교수 등은 남방 상좌불교 및 동남아시아 불교전통에서 형상화된 붓다전기의 특유한 양상을 불교 내적배경과 외적인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동남아시아화 과정까지 살핀다.

한지연, 석길암, 정광훈, 김호귀 교수 등은 남방 및 동남아시아 불교와 비견하여 붓다전기의 동아시아적 형상화 과정과 문화적 확산과정을 제시하여 지역적 상호비교를 한다.

이를 통해 불교전파 상에서의 붓다전기 이해양상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 시대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새로운 붓다상을 제시한다. 동광 스님은 공감에 기반한 다문화 다민족 시대를 반영하는 다양한 붓다상의 형상화가 필요하다는 요청까지 내놓는다.

실라시안(Sillasian) 인문총서 '첫발'

이번 〈붓다전기의 변용〉은 신라를 중심으로 아시아라는 공간 전역에서 불교가 겪은 역사적 경험을 종합한다는 의미에서 붙은 '실라시안 인문총서'의 1권이다.

석길암 원장은 "인문적으로 작동해오면서 소통·공감을 통해 사회를 바꾸었던 불교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함이기에 '인문총서'라는 명칭을 사용해 총서의 제목을 '실라시안 인문총서'로 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붓다전기의 변용〉에 이어 윤영해 교수의 〈종교학, 불교학적 해명〉도 실라시안인문총서 2권으로 출간되었으며, 앞으로 여러 논문이 선별돼 총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윤영해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교수는 정년퇴임과 함께 불교사회문화연구원이 추구하는 불교와 연구와 사회와의 소통에 공감하며 후학들을 위해 그간의 연구성과를 실라시안 인문총서로 펴냈다. 윤영해 교수는 〈종교학, 불교학적 해명〉에서 종교학에서 중시하는 종교체험의 문제를 불교의 선과 접목시키는 연구, 다종교사회에서의 불교의 역할, 현대사회에 대두되는 생태철학의 불교적 근거로 확장하고 사회를 향한 불교의 역할을 강조했다. 실라시안 인문총서의 〈붓다전기의 변용〉과 〈종교학, 불교학적 해명〉을 통해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삶의 지혜, 네 글자로 만나다



불교사자성어
윤창화 지음
민족사 펴냄
1만3,800원

'문해력'. 최근 사회에서 많이 언급되는 '문해력'은 다양한 글 속에서 창의적 발상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유튜브를 비롯한 미디어의 홍수 속에 글을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새로운 발상을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가치를 띈다. 이러한 중의적 표현과 창의적 표현은 특히 한자가 혼용된 사자성어에서 발견된다. 네 글자 속에 담긴 사자성어는 은유적·간접적 화법으로 직접적 화법보다 주는 메시지가 깊다. 민족사 대표를 맡고 있는 윤창화 선생이 펴낸 〈불교사자성어〉는 단순한 '사자성어' 책이 아닌, 네 글자로 만날 수 있는 '삶의 지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자(漢字)는 한 글자에도 뜻이 있고(癡, 어리석음), 두 글자면(知足, 만족할 줄 알다) 어느 정도 의미를 표현할 수 있고, 네 글자(4字)면 모든 것을 표현, 전달할 수 있다. 〈불교사자성어〉는 불교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자성어(四字成語) 60여 개를 뽑아서 그 뜻과 의미, 그리고 메시지 등 관련된 여러 가지를 서술했다. 하루에 한 개씩 두 달 동안 이 책에 실린 사자성어 60개를 안다면, 불교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근심, 걱정 등 번뇌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 60여 개 사자성어 속에는 불교 교리, 사상, 문화, 가르침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자 윤창화 선생은 이번 책 발간을 6년전부터 준비했다. "독자들의 삶에 무언가 도움이 되었으면 했다"는 저자는 불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자성어를 통해서 혼탁한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부족하지만 대안 혹은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주고자 시도했다. 책을 통해 저자는 아울러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치관과 삶의 방법 등에 대해서도 논한다.

'문해력' 중요성 높아진 시대
한문 속 중의·창의 표현 습득
법문 키워드·주제 활용 가능

이 책을 통해 스님들은 '오늘은 어떤 법문을 해야 하나' 하고 생각이 들법한 법문의 주제와 내용에 대한 고민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다. '회자정리(會者定離)', '원증회고(怨憎會苦)', '몽중설몽', '소욕지족' 등 사자성어에 깃든 일화를 통해서 폭넓은 지식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네 글자로 만나는 삶의 지혜인 〈불교사자성어〉를 통해 삶의 고해(苦海)를 이겨내고 사자성어에서 마음이 흔들려 인생의 진로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훌륭한 인격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노덕현 기자



▲저자 **윤창화 씨**는?

강원 평창 출신인 윤창화 선생은 13년간 출가 생활을 했다. 8년 동안 월정사 조실 탄허 스님을 시봉하며 학문의 세계와 만나게 됐다.

1972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한 뒤 1978년 환속. 1980년 불교전문출판사인 민족사를 설립해 42년째 불교책을 내고 있다. 1999년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한국고전번역원)을 졸업했다. '창화'는 수계명. 논문으로 〈해방 후 역경의 성격과 의의〉, 〈한암의 자전적 구도기 일생패궐〉, 〈한암선사의 서간문 고찰〉, 〈무자화두 십종병에 대한 고찰〉, 〈경허선사의 지음자 한암〉, 〈성철스님의 오매일여론 비판〉, 〈경허의 주색과 삼수갑산〉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왕초보, 선 박사되다〉, 〈근현대 한국불교 명저 58선〉, 〈당송시대 선종 사원의 생활과 철학〉, 〈선불교〉 등이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17. 적습성성(積習成性) '습관이 인간을 만든다'

습관이 오래 되면 천성이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격·성품으로 굳어 버리게 되는데, 그것을 적습성성(積習成性)이라고 한다. 반복된 행동이 만드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지도론〉에는 "날마다 성질(화, 분노심)을 내서 오래도록 지속하게 되면 나쁜 성품(惡性)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였는데, 짜증, 화, 분노는 환경 탓, 성격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어쩌다가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5. 색즉시공(色卽是空) '색(물질)은 공한 것이다'

인간의 육체는 사망 후 12시간이 지나면 눈에 띌 정도로 부패하기 시작하고, 노출될 경우 한 달이면 폭삭 썩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빨리 부패하는 곳이 바로 이목구비라고 한다.

그리고 이목구비는 육체가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오염수 통로(하수구)가 된다고 한다. 그 예쁜 눈과 입, 코, 귀가 고름 같은 것이 질질 흘러 내리는 하수구라고 보면 그만 소름이 끼친다. 자신도 죽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허망해진다. 색즉시공이다.

37. 증사작반(蒸沙作飯) '모래로 밥을 만드는 사람'

증사작반은 '모래를 삶아서 밥을 만든다'는 뜻이다. 과연 모래로 밥을 만들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불가능하다. 증사작반은 어리석은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의 행동을 비유한 말이다. 증사작반은 원효 대사(617~686)가 지은 〈발심수행장〉에 나오는 사자성어이다. 이 책은 문장이 매우 감동적이어서 신심을 일으키게 하는 책으로, 80년대까지만 해도 갓 입산한 행자들을 가르치는 초급 교과서였다.

"비록 부지런히 수행한다고 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동쪽을 향해 가고 있지만, 실제는 서쪽으로 가고 있다. 또 지혜 있는 사람은 쌀로 밥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지으려고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수행해도 올바른 수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잘난 척 불교 사자성어



윤창화 지음 | 224쪽 | 13,800원

불교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자성어 60개를
하루에 한 개씩, 두 달 동안 익힌다면 문해력 최고의 지식인!!
글자의 뜻과 의미, 그리고 삶의 지혜
불교사자성어 60개를 완전히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미 지성인!

적습성성 (積習成性) "습관이 인간을 만든다"

습관이 오래 되면 천성이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격,
성품으로 굳어 버리게 되는데, 그것을 적습성성이라고 한다.
반복된 행동이 만드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문 중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12~4/1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가시를거두세요:소나무스님의숭늉처럼속편한이야기	광우	쌤앤파커스	6	조론:불교철학의자기념어섬과실현	승조/자운준식 주해	푼다리카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3	부처님의생애(종단본)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8	도법스님의신심명강의:중도연기의눈으로본깨달음의노래	도법	불광출판사
4	마음을어디로향하고있는가	백성욱/김원수 엮음	김영사	9	근본불교:붓다의원음	이중표	불광출판사
5	체계불학:신념체계로서의불교학	김성철	오타쿠	10	빠알리경전에의거하여엮은붓다의일생	비구 냐아나몰리 편역	고요한소리

책세상

매일아침 띄우는 경책과 위로의 문장들



불영이 띄우는 마음편지
심전일운 지음
담앤북스 펴냄
18,000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복잡한 대중교통에 몸을 실은 채 학교와 직장으로 향하는 아침. 천축산 자락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휴대전화를 울린다. 심전 일운 스님이 천축산 불영사에서 보내온 마음편지다.

"마음이 없는 몸이 없고 몸이 없는 마음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몸은 저절로 다스려지게 됩니다. 마음이 곧 이 우주의 주인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하십시오."

싱그러운 산사의 정취와 따뜻한 스님의 마음이 담겼다. 일상에 온기가 돌았으리라.

천년고찰 불영사를 대가람으로 일궈낸 심전일운 스님이 매일 아침 띄우는 마음편지가 한 권의 책으로 엮였다. 매일매일의 우리에게 보내는 응원의 글을 모은 〈불영이 띄우는 마음편지〉다.

올해로 12년째를 맞는 마음편지는 국내를 넘어 미국과 프랑스, 스웨덴, 대만, 일본 등 전 세계로 배달되고 있다. 3400회에 가까운 횟수다.

마음편지는 늘 새글이다. 천축산 자락 새벽공기는 차지만 예서 막 길어 올린 스님의 마음이라서 따뜻하다. 아침마다 편지를 받는 1만 5000여 명들은 특권이다.

매일의 마음편지는 선적 사유를 담은 선시(禪詩) 한 편과 짧은 수상(隨想)의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다. 마음편지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지금 이 순간' 과 '마음' 이다. "당신은 지금 현재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스님은,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자신을 잃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나무에 앉은 새는 나뭇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믿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보시길 희망합니다"라고 응원한다.

소란한 세상서 고요함
지키는 선시 한 편과
행복함 감사함 용기를
일깨우는 따뜻한 당부

〈불영이 띄우는 마음편지〉에 담긴 스님의 선시에는 자연이 전하는 깨달음이 가득하다. 꽃과 바람과 숲과 햇빛 등 불영사의 아름다운 사계절이 매 안거마다 수행 정진하는 스님의 사유(思惟) 속에 녹아서 '자연의 법문' 이 되었다. 스님의 선시를 읽다 보면 세상 사는 일이 쫓겨 체감하지 못하던, 우리 주변에 펼쳐진 자연을 귀하게 바라보고 느끼게 된다.

불영사 회주인 심전일운 스님은 1991년부터 불영사에 주석하며 20여 동의 전각을 세우는 가람불사를 일으켰고, 우리나라 대표 비구니 선원인 천축선원을 운영하는 수행불사를 일궈왔다.

2011년에는 염불로 수행하고 자비로 회향하는 '염불만일수행결사회' 를 결성했다. 이때부터 매일 아침 회원들에게 안부를 묻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편지를 띄우기 시작했다.

휴대전화 문자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편지를 전하는 매체는 바뀌었지만 관통하는 메시지는 그대로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것과 내 마음이 주인이고 세상이라는 것. 스님은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 가며, 내 삶은 오롯이 나의 삶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가르침을 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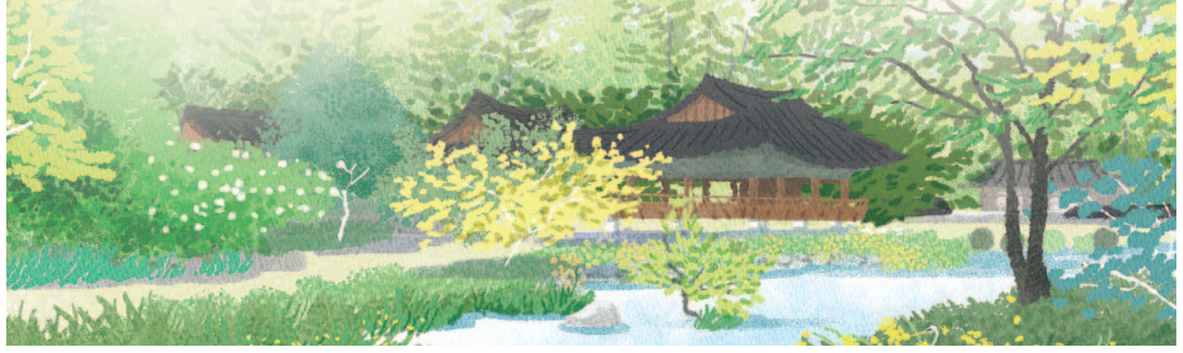
스님이 깊은 산중에 거처한다고 해서 세간의 일에 무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스님들의 수행과 우리들의 일상이 '둘이 아님' 을 알려준다. 마음의 본래 상태는 이미 완전하기에, 일상에서 알아차림의 명상 수행으로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우리를 격려한다.

▲저자 **심전 일운 스님**은?

1969년 경북 청도 운문사로 출가, 1991년부터 울진 불영사에 주석하고 있다. 그동안 불영사는 대가람으로 변모했고 대웅보전과 영산회상도, 불연(佛輦)은 보물로 지정됐다.

2011년에는 1만일 동안 일심으로 부처님을 염송하며 매월 1만원씩 나눔을 실천하는 염불만일수행결사회를 결성했다. 회비로는 캄보디아와 인도 어린이,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저서로는 〈불영이 감춘 스님의 비밀 레시피〉 〈김치나무에 핀 행복〉 〈산사에 홀로 앉아〉 등이 있다.



유훈 · 임종게서 '삶'을 사유하다



마지막 말의 철학
이일야 지음
김영사 펴냄
16,800원

사람이 산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잘 늙는다는 것,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도 그중 하나다. 주변도 잘 정리해야 하고 죽음과 맞서야 한다. 무엇을 가지고 맞서야 할까? 용기일까. 신념일까? 달관이나 체념 아니면 신의 품이나 내세에 대한 기약일 수도 있겠다. 우리는 주어진 삶의 조건들에 적응하기에도 바쁘고 일상을 유지하기에도 힘겹다. 그러나 인간은 생존의 조건 밖에 무언가가 더 있다. 주어진 공간과 시간에 잠시 왔다 가는 인생들이지만 생존의 조건들보다 중요한 뭔가를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최소한 후회나 아쉬운 한 같은 것은 남기지 않는 삶이었으면 하는 것이다. 〈마지막 말의 철학〉의 저자 이일야 작가는 독자들이 그 뭔가를 찾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책을 엮어냈다고 말한다.

유훈, 임종게, 묘비명은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기 위해 하직하는 마지막 인사다. 여기엔 한 사람의 치열했던 인생 기록이 압축돼 있기도 하고,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고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기기도 한다. 따라서 그것들을 다시금 들추어내는 건 떠난 자의 생애와 생각을 엿보는 일이자, 그들과 내 삶을 견주어봄으로써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일이기도 하다. 이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하게 된다.

〈마지막 말의 철학〉에는 소크라테스, 스피노자, 니체, 사르트르, 공자, 장자, 법정 스님, 틱낫한 스님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철학자와 종교인 30명 인물이 시간순으로 등장한다. 각각의 장마다 전반부에서는 등장인물의 인상적인 생애와 대표적인 사상을 소개한다. 그들이 남긴 혹은 그들이 기리는 마지막 말이 나온 배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후반부에서는 그들이 남긴 마지막 유훈이나 임종게, 묘비명을 오늘날의 시선에서 입체적으로 해석했다. 이일야 작가는 카뮈처럼 묘비명이 없거나 순자처럼 유훈을 남기지 않고 떠난 인물들은 그들의 작품에서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글을 뽑아 비명으로 삼는 재치를 발휘했다.

삶이 여무는 순간 남긴 말들서
위대한 인물들의 철학 엿보기

탈레스와 에피쿠로스, 틱낫한 스님의 말을 통해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성찰해내기도 하고 디오게네스와 니체, 이지의 삶을 통해 타인의 시선 및 허례허식에서 벗어나 진정 나답게 사는 것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며, 사르트르와 이황의 애틋한 로맨스를 통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고민해보게 한다.

때로는 시대와 인간을 통찰하는 예리한 시선과 때로는 삶에 지친 우리를 다독이는 특유의 다정하고 재치있는 입담으로 자칫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죽음이라는 소재를 유쾌하고 친근하게 풀어낸다. 또한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는 의문 형식으로 제시하거나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남겨두어 독자 스스로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책을 읽어가는 시간은 '인간이라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것인가' 라는 궁극적인 질문에 자연스럽게 답을 찾는 여정이 될 것이다.

▲저자 **이일야 작가**는?

전북대 철학과에서 학부와 석 · 박사과정을 마쳤다. 현재 전북불교대학 학장을 맡고 있다. 어린시절부터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그 해답을 찾아 철학과 종교 등 다양한 방면의 공부를 했다. 이를 통해 생과 사는 둘이 아니라는 성찰을 하게 됐고 신문이나 잡지 등에 삶과 죽음을 철학하는 글을 써왔다. 또한 영화나 시, 대중가요 속에 담긴 의미를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연구 및 저술에 집중하고 있다. 저서로 〈아홉 개의 산문이 열리다〉(13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동화가 있는 철학 서재〉(2020 세종도서) 〈불교에 대해 꼭 알아야 할 100가지〉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이 아닌가〉 등이 있다.

임은호 기자

책 속의 밑줄 긋기

니체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비굴하게 행동하면 다음에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문제의식이 생겼을 때 앞뒤 재지 말고 자유 의지가 명령하는 대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용기다. 〈p.139〉

붓다의 마지막 유훈은 우리에게 인문학의 근본 물음인 '인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 에 직접적인 답을 준다. 붓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이란 본래 우주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때문에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과 진리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등명법등명' 이다. 〈p.180〉

평생 무위자연의 삶을 살았던 장자는 죽음에 이르러서도 그러한 태도를 견지했다. 제자들은 스승이 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를 후하게 치르겠다고 했다. 그러자 장자는 제자들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한다. "태양과 대지가 나의 관이다." 〈p.247〉

우수콘텐츠잡지 2023

삼국유사를 저술한 일연 스님이
37년 머문 산, 비슬산

since 1974 불교인문교양 매거진



"일연이 꿈꾼 삼국유사 비슬산"

대견사, 유가사, 용연사 등 유서 깊은 사찰과 참꽃(진달래)군락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암괴류(岩塊流) 등 풍부한 자연·문화유산이 깃든 비슬산으로 일연 스님의 자취를 따라 떠나봅니다.



월간「불광」 582호
이하석 외 지음 | 176쪽 | 12,000원

월간「불광」 579호
돌봄과 수행 공동체, 실상사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운동의 근본도량으로, 연기법에 의거해 공존과 상생·평화를 통한 생명살림을 지향하고 실천해 온 지리산 '실상사'. 그곳에 담긴 자연, 사람 그리고 불교 이야기.
주수완 외 지음 | 208쪽 | 12,000원

월간「불광」 580호
입춘, 삼재 그리고 부적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부적부터, 삼재부, 화재부, 질병부 등 각종 부적까지. 불광과 함께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구해보세요!
유현주 외 지음 | 184쪽 | 12,000원

월간「불광」 581호
촘말로 몰랐던 제주불교
유배지로 버림받았던 땅 제주도. 지금은 '힐링과 여유의 섬' 제주도. 그 속에 우리가 '촘말로(정말로)' 몰랐던 제주 불교문화, 바다·오름·산, 사람들의 이야기.
김새미오 외 지음 | 176쪽 | 12,000원

불광미디어 www.bulkwang.co.kr | @m.bulkwang | @monthly_bulkwang
불교전문서점 및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정기구독(1년 12권) : ~~144,000~~ → 108,000원 (25% 할인)
정기구독 문의 : 02)420-3200 (홈페이지에서 구독 신청 가능)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14



▶한줄요약
스리나가르를 향해 가던 일행은 길이 막혀 난감했다. 이 기자는 조실스님으로부터 받아온 이석원의 노트를 계속 읽어나갔다. 붓다가 난타를 제도하기 위해 탁발을 나선다.

출가 못한 난타, 제도에 나선 붓다

뉴델리에서 며칠 ②

1 갈림길

-행여 딴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니시지요. 모두가 출가한다고 해서 당신까지 출가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절 버리지 말아 주세요.

-손타라,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어찌 그대를 버릴 수 있겠소.

-전 당신 없이 못 살아요. 행여 출가를 결심하시기라도 하시면 전 목숨을 끊고 말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러오. 우리는 죽을 때도 같이 죽자고 약속하지 않았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들이 그러는 사이 붓다는 라후라의 귀의만 받아들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고 한 다음 니그로다 정사로 돌아갔다. 가끔 니그로다 정사의 소문이 들려 왔다. 부모의 반대로 출가를 포기했을 줄 알았던 아나율과 밧디야가 어느 날 난타를 찾아왔다.

-미치겠어. 부모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 죽어도 출가를 허락할 수가 없다니 말이야.

아나율의 말이었다.

밧디야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는 가문의 기둥이지 않은가. 반대하는 것도 당연하지.

-네 형이라고 지금 제정신이겠어. 출가병(出家病)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던데 뭐.

아나율이 한숨을 쉬었다.

-나는 꼭 출가하고 말 거야. 그런데 난타 넌 어떻게 된 거냐. 아직도 여편네 치마폭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이냐?

-형님, 왜 꼭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 사람아. 아나율 형이 네 부인이 하도 미인이라 질투가 나서 그러잖는가.

밧디야가 허허거리며 웃다가 말했다.

-그럼 결혼하면 될 게 아닙니까. 그런 양반이 출가는 무슨….

-말을 말자. 그런 말을 하는 내가 한심하지.

아나율이 머리를 홰홰 내저었다.

-그러나저러나 밧디야, 아직도 생각을 못 바꾼 것이야.

-글쎄? 우리 집 반대도 자네 집 못지않으니.

-우리 부모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네놈이 출가한다면 나의 출가를 허락하겠다는 것이야. 네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출가는 하지 않을 테니…. 아주 못을 박았다며?

-누가 그래?

-누가 그러긴 우리 부모들이 그러던데, 너 본을 보라고 말이야.

-아니야. 반대가 하도 심해 안심시키느라 그랬을 뿐이야.

-밧디야. 옛날을 생각해 봐. 그 풀밭. 그 위를 떠다니던 구름송이들, 입 속에서 녹던 코코넛 과자 그때 우리는 영원히 변치 말자고 헤어지지 말자고 약속했었잖은가.

-아나율, 내게도 어릴 때의 추억은 아름답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제 갈 길을 가야 할 때가 되었어.

-밧디야, 내 말은 어릴 때의 추억거리 속에 영원히 살자는 게 아니라 이제 어릴 때의 꿈을 성취할 때가 되었다는 말이야.

-우리의 어릴 때 꿈이 무엇이었기에?

-너는 말했었지. 어느 날 싯달타 삼촌이 바깥세상으로 나가보고 와서는 세상은 수라다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고. 그때 뭐라고 했지. 세상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라면 그 고통을 우리가 구하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밧디야가 시선을 내리깔았다.

-이제 그때가 온 것이야. 너도 듣지 않았느냐. 붓다의 말씀을.

-그래 나도 들었지. 그래도 내 부모님들이 허락하시지 않아.

-밧디야, 이미 그날 모였던 애들은 모두가 약속했어. 너와 난타만 빠진 거야. 심지어 수라다까지도 출가를 결심했다는데….

-뭐라고 수라다까지도!

-그래 그 시기심 많던 수라다도 붓다의 설법에 감화되어서는 출가를 결심하게 된 것이야.

-그렇다면 용기가 나는구나! 아나율. 사실 나도 붓다를 뵙는 순간 저분을 따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던 중이었어.

-그럼 어서 가서 부모님에게 허락받아. 내가 가겠다면 어쩔 것이야. 우리 모두 붓다께 가서 그를 의지하여 또다시 모여 앉는 날을 만들어 보자.

-알았다, 아나율.

아나율에게 설복당한 밧디야는 굳은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용기를 내어 부모에게 출가할 것을 간청했다.

그들이 출가하는 날 난타는 홀로 풀밭에 앉아 있었다. 다시 붓다를 중심으로 둘러앉은 그들의 모습이 부러웠다. 비록 다디단 코코넛과 그것을 싸 먹던 보리수 나뭇잎은 없겠지만, 그보다 단 붓다의 감로수 같은 법문이 있을 것이었다. 가고 싶었다. 그곳으로 가고 싶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도대체 사랑이, 이 질긴 인연이, 진리가 무엇일까 싶었다. 그러면서 난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길이 막혔다는데요.

송 서화가가 들어서면서 말했다.

글을 읽다 말고 나는 고개를 들었다. 워낙 글 읽기가 힘들어서 쉴까 하던 참이었다.

-스리나가르로 가는 중간 길이 아직 눈이 녹지 않았답니다.

걱정스러웠다. 읽기가 힘들어도 글을 읽고 싶었지만, 시일도 있고 해서 밖으로 나가 여러 곳을 돌아다녀 보았다. 송 서화가의 말이 맞았다. 눈길이 뚫리지 않아 갈 수가 없다고 했다. 굳이 가겠다면 도보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주 위험해요. 가다가 얼어 죽거나 사나운 맹수, 또는 식인종에게 잡혀 산 채로 먹힐 수도 있어요.

현지인의 말에 송 서화가가 싱글싱글 웃었다.

-설마 아직도 식인종이 존재하려고. 전에도 그런 말은 듣긴 했지만 멀쩡했는데….

그 말을 듣자 이곳 사정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도 도보로 갔었나요?

내가 물었다.

-아뇨.

송 서화가가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다.

-그렇겠지요. 실제로 잡아먹힌 일이 있답니다. 아주 산 채로 구워 먹혔다고 해요.

-설마요.

-설마가 아닙니다.

돌아오는데 송 서화가가 돌아다니다 보니 복사집이 아직도 문을 열어 놓았더라고 해 방으로 돌아오기가 무섭게 노트를 들고 갔다. 악필이라 읽기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복사해 송 서화가에게 주기 위해서였다. 가보니 문이 잠겨 있었다.

-아예 문을 닫은 거 같은데요. 장사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송 서화가가 주위를 둘러보며 실망한 어조로 말했다.

-생각이 나네요. 프린트기기나 복사기를 가지고 다닐 수는 없는 여행객들만 상대해도 장사가 되겠다 싶던 때가…. 하기야 그때만 해도 옛날이지요.

-중국 대사관 앞에 가면 프린트 가게들이 있긴 한데 여기서 너무 멀고…. 저는 천상 다 읽고 나서 읽어야겠네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원체 악필이라….

그러다 보니 시간이 꽤 흘렀다.

2 이 분 마르기 전에 돌아오소서

석가모니 붓다가 고국을 떠난 지도 두어 해가 흘렀다. 가끔 난타는 교단의 소식을 듣곤하였다. 사람들이 힘을 모아 붓다에게 더 큰 건물을 지어 보시하였다고 하였다. 그 소문을 들으면서 난타는 입술을 씹었다. 그들의 신심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실 출가는 하고 싶지 않았다. 손타라와의 꿈결 같은 사랑을 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깨달음이란 게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명치끝이 타고 입안에 불을 머금은 것 같았지만 머리를 내저었다. 결코 손타라를 버리고 출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때 이미 붓다는 그의 제도를 생각하고 있었다. 한 여인을 사랑함으로써 출가하지 못하는 그의 아픈 마음을 구해 주기 위해 붓다는 다시 고국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붓다는 이른 아침 제자를 데리고 난타의 집에 이르렀다. 그때쯤 난타는 손타라와 함께 궁을 나와 한적한 교외에 살고 있었다. 붓다가 난타의 집에 이르렀을 때 난타는 보료 위에 번듯이 누워 아름다운 아내가 화장하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금빛 광명이 집안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그는 아랫사람을 시켜 밖으로 나가 보게 하였다. 분명히 이런 신통을 놓을 분은 붓다밖에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아니나 다를까. 아랫사람이 밖으로 나가보고 헐레벌떡 돌아와서는 난타에게 일렀다.

-붓다께서 이곳까지 탁발을 오셨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그러합니다.

-내 이럴 때가 아니구나. 어서 나가 보자 어서.

난타가 부리나케 밖으로 달려 나가려 하자 눈치를 챈 손타라가 벌떡 일어나며 그를 잡았다.

-아니 됩니다.

-아니 왜 그러시오?

-이는 필시 예삿일이 아닙니다. 붓다께서 당신을 출가시키기 위해 찾아오신 게 분명합니다. 저 금빛 광명이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 길로 나가신다면 저와의 인연은 끝입니다. 안 됩니다. 나가시면 안 되세요.

-이보시오. 그 어른이 어떤 어른이요. 예전의 내 형님이 아니오. 세상을 구할 붓다가 아니오. 내 잠깐 예배만 하고 돌아올 터이니 이 옷 좀 놓으시오.

-아니 되십니다.

-그럼 도대체 나더러 어쩌란 말이오?

-저와 약조해 주십시오.

-무슨 약조 말이오?

-방금 제가 얼굴에 한 이 화장이 마르기 전에 돌아오셔야 합니다. 만일 더디거나 어기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좋소.

난타는 그 길로 대문 밖으로 나갔다. 대문 밖에는 붓다가 제자를 뒤로하고 서 있었다.

-붓다시여, 어서 오십시오.

-그래 그동안 잘 있었느냐.

-그러합니다.

그는 붓다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안으로 들것을 간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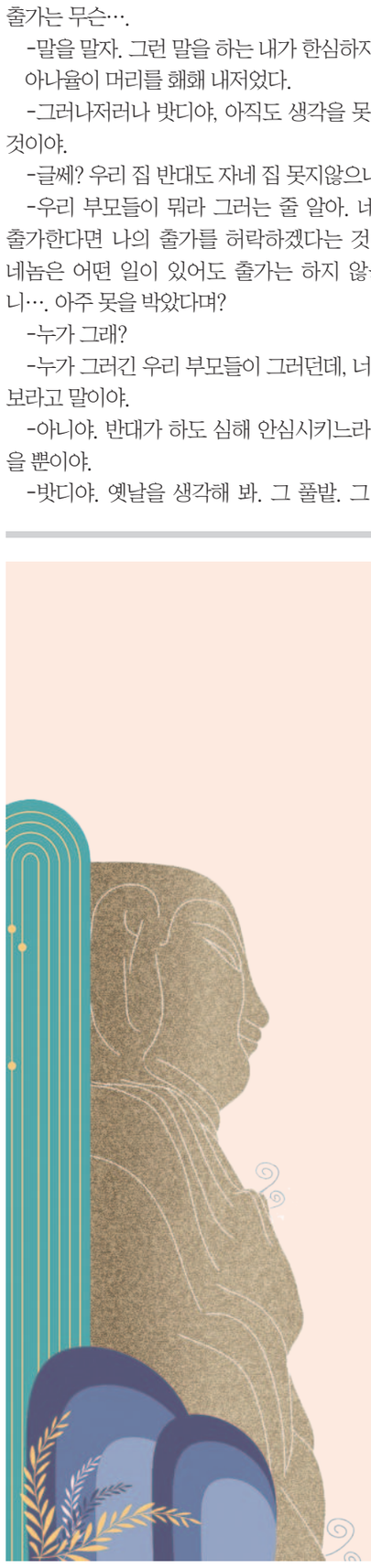
-붓다시여. 안으로 드시지요.

붓다가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내저었다.

-난타야, 나를 의식하지 말거라. 나는 탁발을 왔느니라.

말뜻을 알아챈 난타는 붓다의 발우를 받아 집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는 맛있는 음식을 가득히 담아 내왔다.〈계속〉

불기 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축하광고
접수 받습니다



불기 2567년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현대불교신문사는 계묘년 봉축특집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세상의 어지러움을
희망과 나눔의 등불로 가득 비출 수 있도록 자비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다시 희망과 꽃피는 일상으로
평화롭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053-985-9190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문화사업단	구광국	T 02-2004-8213	H 010-3048-4008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0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KB(국민)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박희승의
현대인을 위한 禪의 지혜 ⑧ 화, 분노에 대한 선의 지혜



▶한줄요약
나와 우주 만물에 대해 중도 정견의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세우면 '내가 본래 중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

분노 해독 못하면 행복해질 수 없다

명상이나 참선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흔히 듣는 말이 '참선은 어렵고, 명상은 쉽다' 는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다. 흔히 선(禪)에서는 참선을 '세수하다 코만지는 것과 같다' 고 한다. 이 말은 참선은 너무나 쉬워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사람들은 참선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본래는 그대로 완전한데 스스로 중생이라는 착각에 빠져 어리석은 분별심을 내고 있거니와 눈 밝은 선지식에게 선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괴로움을 느끼는 화, 짜증, 분노에 대한 선의 지혜에 대하여 살펴보자.



승찬 대사는 신심명에서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통연히 명박하리라"며 미움과 증오에 대한 유명한 법문을 남겼다.


틱낫한 스님은 "마음 속에서 화를 해독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숭산 스님은 "모든 생각을 끊으면 '참나' 로 돌아갈 수 있다"고 안내한다.

화, 분노의 심리 분석

화, 분노란 무엇인가? 화 또는 분노(憤怒)는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성' 또는 '자신의 욕구 실현이 저지당하거나 어떤 일을 강요당했을 때 이에 저항하기 위해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 라고 한다.

화라는 의미의 영어는 'anger' 이다. 'anger' 는 근심, 괴로움, 고통을 뜻하는 고대 스칸디나비아어 'angr' 에서 유래한다고 사전에 나온다. 현대 의학에서는 화, 분노는 괴로움과 같은 감정이라 한다.

한국인에게 많다는 '화병(火病)' 은 화가 쌓여서 나타나는 감정적인 장애로 우울증과 유사하다. 그래서 '울화병(鬱火病)' 이라고도 한다. 화병은 특히 여성들에게 많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이래 유교 전통이 강하다보니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남존여비 사상으로 여성 인권이 무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 와서 짜증과 화, 분노는 특히 심해지고 있다. 치열한 경쟁 위주의 자본주의 경제 제도에서 생존과 성취를 위해서 남과의 경쟁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지식정보화시대인지라 날로 급변하는 생존 환경은 어지러울 정도이니 복잡한 인간 관계와 일이 부담스럽고 대립 갈등이 빈번해 짜증과 화, 분노가 일상적이다.

화에 대한 치유 명상의 해법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던 냉전시대에 서구의 대학을 중심으로 한 젊은이들은 베트남과 전쟁을 반대하고 흑인 인권운동을 지지하는 히피 문화운동이 일어났다. 인간의 가치와 자유를 기치로 내세운 이 운동은 마약이나 알코올 등 중독성 물질을 통한 정신적인 해방감을 누리고자 하였고, 여기에 동양의 정신 수련법인 명상이 하나의 좋은 대안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때 불교의 깨달음 명상인 참선을 만나 인생이 바뀐 이들이 있으니 바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와 세계적인 치유 명상 프로그램인 MBSR의 창시자 미국 MIT 존 카밧진 박사이다.

현대 서양에 불교의 참선 명상을 전한 3대 고승이 바로 한국 조계종의 숭산 스님, 티벳불교의 달라이라마, 그리고 베트남 임제종 틱낫한 스님이다. 세 분 스님은 각자 특색 있는 불교의 깨달음 명상을 전하며 화에 대하여 이런 지혜를 전했다.

현대사회서 심해진 짜증과 분노
선어록에서는 번뇌 망상으로 봐
선에서 깨달음·중도 어렵지 않아
화 없애려면 중도로 정견 세워야

틱낫한 스님의 베스트셀러 〈화〉

틱낫한 스님은 베트남 임제종 법맥으로 일찍이 전법과 평화운동을 하다가 프랑스로 망명하여 오지 보르도지방에 플럼빌리지라는 불교 수행공동체를 만들었다. 스님은 프랑스 사람들이 경쟁사회에 지치고 힘들어 화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불교 명상으로 치유하는 방법을 안내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약 없이 내면의 명상으로 화와 우울을 치유할 수 있다니 이보다 기쁜 소식이 없었다.

틱낫한 스님은 그런 경험을 정리하여 〈화〉라는 책으로 펴냈는데,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스님은 〈화〉에서 "시기, 절망, 미움, 두려움 등은 모두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독, 화"라고 정의하고 "마음 속에서 화를 해독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러므로 화를 다스릴 때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잃어버린 작은 행복을 다시금 찾을 수 있다. 화를 다스리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의식적인 호흡, 의식적인 걷기, 화를 끌어안기, 나의 내면과 대화하기 등을 권한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평화의 길이며 행복을 만드는 법칙"이라고 틱낫한 스님은 안내한다.

달라이라마의 〈화를 말하다〉

티벳불교의 법왕인 달라이라마는 그의 법문집 〈화를 말하다〉에서 "일천 겁 동안 쌓아 올린 보시와 부처님께 올린 공양 등 어떤 선행이라도 단 한 번의 화로 모두 무너질 수 있다. 자만, 오만, 질투 등 고통스러운 마음을 일으키는 데에는 많은 번뇌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증오와 화가 가장 악하다"고 말한다.

달라이라마는 많은 번뇌 중 가장 악하다는 증오와 화를 다스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인내를 수행해야 한다. 수행자는 증오와 맞서 싸워야 하고 인내하고 감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달라이라마는 "증오는 그 시작이 없다.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그것은 견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는 반면에 연민이나 지혜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은 기반이 확고하다"라며 지혜와 자비심의 닦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제시한다.

숭산 스님의 '오직 모를뿐' 화두

숭산 스님은 한국선을 대표하여 국제적으로 활약한 대선지식이다. 숭산 스님은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가서 화두선을 기반으로 서구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선의 지혜를 전했다. 스님은 "말과 단어는 단지 생각이다. 이 생각이 고통을 만들어낸다. 모든 생각을 끊으면 '참 나' 로 돌아갈 수 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다. 오직 모를 뿐으로 정진하라"고 안내한다.

숭산 스님은 화와 같은 괴로움의 원인이 생각이라며 일체의 생각을 끊어 참 나로 돌아가자고 한다. 참 나는 생사의 괴로움도 초월한 세계다. 괴로움의 원인인 생각을 끊는 화두로 "Only Don' t Know(오직 모를 뿐)"하라 하였다. 깨달음이란 말과 문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문자에 기반한 생각을 끊어야 한다. 생각을 끊는 화두로 '오직 모를 뿐' 을 제시한다.

화, 분노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

화, 분노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 부처님께서는 화를 깨달음에 가장 장애가 되는 탐진치(貪嗔癡) 삼독심(三毒心)의 하나라 하셨다. 우리가 본래 완전한데 욕심과 화,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지혜와 능력이 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화에 대하여 이렇게 경계하신다.

"성내는 마음은 불과 같아서 모든 계율을 파괴한다. 성을 내면 얼굴빛이 변하는데 그것은 나쁜 빛깔의 인(因)이다. 분노는 큰 도끼와 같아서 능히 법의 다리를 부수고, 마음 속에 머무르면 마치 원수의 집에 들어간 것과 같다. 그것은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한결같은 마음과 바른 행을 모두 부숴버린다. 성내는 마음을 버려라.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제일의 사자이다. 그러므로 오직 선한 사람이나 법을 들은 사람만이 그것을 버릴 수 있다." (〈정법념처경〉)

화, 분노에 대한 선의 지혜

현대인이 시달리는 짜증, 화, 분노의 감정을 화두선에서는 어떻게 볼까? 선어록에는 화, 분노에 대한 말씀은 보이지 않는다. 화도 번뇌 망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선종 초기 어록인 3조 승찬대사의 〈신심명〉에 미움과 증오에 대한 법문이 있다. 승찬대사는 〈신심명〉 첫 구절에서 그 유명한 법문을 하셨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음이요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리라."

그렇다. 선에서 깨달음, 중도는 어렵지 않다. 세수하다 코만지는 격이다. 우리가 이대로 본래 완전하고 중도로 존재한다. 본래 깨달음이 다 갖춰져 있다. 그래서 본래 성불, 본래 부처라 한다.

우리가 이대로 본래 부처인데, 미움과 사랑이라는 분별심을 일으키니 짜증, 화가 일어난다. 사랑과 미움이라는 양변에 떨어져 집착하는 분별망상이 있는 한 본래 갖춰진 지혜와 능력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 사랑과 미움의 양변을 버리면 통연히 부처의 지혜와 능력이 나툰다. 먹구름이 지나가면 태양은 저절로 드러나는 이치와 같다.

우리 이대로 본래 완전한데, 양변에 떨어져 짜증, 화, 분노, 미움, 사랑 등을 일으키니 부처가 중생으로 사는 것이다. 본래는 부처인데, '중생' 이라는 착각에 빠져 미움과 사랑의 양변에 떨어져 생로병사의 괴로움과 업을 짓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화두선에서는 화, 분노를 실체가 없는 망상이라 '정견' 을 세우라 한다. 내가 중생이라는 착각에서 화가 난다. 우리 마음은 이대로 본래 완전한데 사랑과 미움의 분별망상을 일으키면 짜증과 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화에서 벗어나려면, 화가 없으려면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를 공부하여 정견을 세워야 한다. 나와 우주 만물에 대하여 중도 정견의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세우면 '내가 본래 중도'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정견을 세우면서 화와 어리석은 분별망상이 일어나면 화두로 차단해야 한다. 화두를 자꾸자꾸 챙기면 망상이 사라지고 화도 가벼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화두 삼매의 강한 힘을 체험한 사람은 화가 나지 않는다.

불교 수행자라면서 화가 있다면 정견이 아직 서지 않았거나 선정 삼매의 힘이 약해서 그렇다. 미움과 사랑의 양변에서 흔들리는 것이다. 사랑과 미움을 버리면 통연히 명백하다는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남방 상좌부 승가의 수행지침서 〈청정도론〉에는 화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마음속에 화가 있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지도교수 /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⑧ 문경 대승사 대웅전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 한줄 요약
불화와 조각이 결합한 목각탱은 극락정토를 실감하게 하는 관상과 염불수행의 방편장엄으로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입체감 극대화한 '관상장엄' 목각탱

목각탱의 전형을 보여주는 기준작

후불탱화 중엔 대단히 인상적인 형식이 있다. 나무로 조각한 목각탱이 그것이다. 목각탱은 나무로 조각한 후불탱화를 의미한다. 불화와 조각이 결합한 형식으로 '탱화의 조각화'라 하겠다. 두꺼운 나무 판재들에 밑그림을 그려서 투조나 고부조, 환조로 조각한 후 조형에 금박을 입혀 완성한다. '판탱', '후불목탱'이라고도 부르는 목각탱은 흔치 않다.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의를 가진 현존하는 목각탱은 10점 정도다. 그 중 국보, 보물로 지정된 것은 여섯 점으로서 다음 표와 같다.

목각탱	제작시기	크기(cm) 세로×가로	판재 수
문경 대승사	1675년	347×279	10매
예천 용문사	1684년	265×218	8매
남장사 관음선원	1694년	165×195	7매
서울 경국사	17세기말~18세기초	177×176	6매
남장사 보광전	18세기초	226×236	8매
실상사 약수암	1782년	181×183	4매

위 여섯 점의 목각탱은 동일한 장면을 표현한다. 아미타여래의 극락회상 설법 장면을 담고 있다. 그래서 여섯 점 목각탱에는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라는 정식 명칭이 뒤따른다. 탱화의 조각화라는 독특한 형식의 목각탱은 17세기 후반에 영주, 상주,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목각탱은 불교장엄의 보편 양식은 아니다. 제작시기와 지역성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지역 집중성은 제작기획자와 조각승의 지역 유파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희귀한 10점의 목각탱 중에서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한국산사 목각탱의 시원이자 범본으로 꼽힌다. 범본(範本)은 조형의 전형을 보여주는 기준작을 말한다.

부석사와 대승사 목각탱 소유권 분쟁

대승사 목각탱은 현존하는 목각탱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인 강희14년(1675년)에 제작됐다. 목각탱 하부 나무틀과 아미타불 뒷부분에 화기와 조성기가 남아 있다. 화기는 붉은 바탕에 검은 묵서로 기록해뒀다. 기록에 따르면 대승사 목각탱은 1675년에 태백산 부석사에서 조성했다. 증명비구는 종현 스님이었다. 부석사 목각탱은 동치8년(1869년)에 문경 대승사로 이안됐다. 화기에서 아쉬운 점은 조각승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화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대승사 목각탱은 원래 부석사 소유라는 사실이다. 1862년 대승사에 화재가 발생하여 법당과 승방 등을 소실했다. 새로 법당을 지었지만 불상을 모실 형편은 아니었다. 그래서 모색한 방안이 부석사에서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이운해 오는 것이었다. 목각탱은 원래 부석사 금색전에 모셨다. 금색전이 낡아 허물어져 무량수전 한 쪽에 옮겨 방치 수준으로 내버려둔 모양이다. 19세기 후반 부석사는 폐찰 위기에 있었다. 1869년에 부석사 목각탱을 대승사로 이운해왔다. 그때부터 목각탱의 소유를 두고 두 절간의 소송이 시작됐다. 대승사에는 소송과 관련한 1869년에서 1876년 사이 11건의 문서 기록이 남아있다. 그 중 4점은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관계문서'로 분류해 보물로 지정됐다. 소유권 소송은 대승사에서 부석사 조사당 보수비용 250냥을 부담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여 분쟁의 막을 내렸다.

그렇다면 대승사 목각탱은 누가 제작하였을까? 화기에 나오는 증명법사 종현 스님이 주목된다. 또 목각탱의 조형을 살펴봐야 한다. 대승사 목각탱은 크기가 347×279cm에 이르는 대작이다. 판재 두께도 근 30cm에 이른다. 입체감이 대단하다. 현존하는 목각탱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크다. 그래서 국보로 지정했다.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대승사 목각탱과 매우 유사하다. 규모를 줄인 축소판에 가깝다. 남장사 보광전 목각탱과 서울 경국사 목각탱에도 대승사 목각탱의 조형양식이 엿보인다. 이 조형들의 제작에 소영당 신경(제작기획), 종현(증명), 단응과 탁밀(조각승)의 인연이 얽히고설킨다. 특히 예천 용문사 목각탱 화기의 화원질에서는 단응과 탁밀 두 조각승을 첫머리에 올려두고 있다. 대승사 목각탱을 제작한 수화승 역시 단응과 탁밀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광대무변의 우주세계관을 구현한 목각탱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상중하 3단으로 구성했다. 판재는 모두 10매를 사용했다. 화면의 중심인 중단에 세로로 판재 7장을 사용하고, 상단과 하단에 가로 판재를 각각 2장, 1장씩 엮어 화면을 만들었다. 화면 가장자리엔 액자처럼 각재로 사각형 테두리를 둘렀다. 삼단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단: 대연화와 천개, 제1 비바시불과 타방불, 비천. △중단: 중앙의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에 팔대보살, 사천왕 등 12분씩(총 25분). 내용은 아미타여래설법상. △하단: 보병과 구품연화좌. 내용은 구품왕생. △틀: 주역의 64괘 중 12괘와 화기, 범어 '옴', 卍자 등.

상단은 오색찬란하다. 아미타불께서 놓으신 오채의 광명에 타방불이 내왕하고, 주악비천과 가무비천이 환희의 분위기를 북돋운다. 상단 중앙 천개엔 과거칠불 중 제1불이신 비바시불을 금빛 찬란한 연화좌에 모셨다. 석가모니불은 과거에 출현하신 칠불 중 일곱 번째 부처님이시다. 그분들의 한결같은 가르침을 '칠불통게'라 이른다.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행하며,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누누이 가르치셨다. 과거칠불과 타방불의 출현은 법의 시공을 초월한 광대무변을 상징한다.

중단은 불보살과 성중, 호위신중이 결집한 아미타여래설법 장면을 표현했다. 중단엔 총 25분이 결집했다. 수미좌에 앉아 설법하시는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에 짝 맞춰 12분씩 배치했다. 팔대보살, 사천왕, 대범천과 제석천, 가섭 · 아난존자 등의 제자, 일광천자 · 월광천자, 난타용왕 · 발난타용왕까지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의 구도로 질서정연하게 배치하였다. 조각상마다 붉은색 바탕에 금니로 존명을 빠짐없이 새겨둬서 범본 목각탱의 위상으로 손색이 없다. 중단 조형 중에서 부처께서 앉아 계신 수미대좌는 특별한 시선을 끈다. 가운데가 잘룩한 수미대좌는 받침과 연꽃의 층층을 이룬다. 팔각과 원, 타원, 연꽃 등으로 중중의 구조를 이룬다. 그 중 4개의 층위에 도교적 색채가 강한 지(地)와 방(方), 륜(輪), 시(時)의 세계를 펼쳤다. 수미대좌의 제일 아랫단에는 지(地) 세계를, 그 위엔 방(方) 세계, 다시 그 위엔 수륜, 화륜, 지륜 등 륜(輪) 세계를, 제일 위 단에는 오시, 사시, 진시 등 시(時) 세계를 조영했다. 시간과 방위, 세계의 구성이 망라된 우주적 동양세계관을 보여준다. 조형에 불교 수미산 세계관과 유교 세계관이 복합적으로 통합돼 있다. 이 조형은 목각탱의 틀에 새긴 64괘 중에서 12개의 괘를 표현한 것과 긴밀히 연결된다. 12괘는 '12소식괘(消息卦)'다. 12소식괘는 〈주역〉에서 음양의 조화를 통해 시간이 순환하는 우주의 시간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 상징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공의 양변을 초월한 광명변조의 빛임을 일깨운다. 그런 상징적 뜻은 광배문양에 집약돼 있다. 광배는 육각수문, 넝쿨연화문, 붉은 화염문으로 구성했다. 아미타여래의 48대원과 상통하는 진리와 자비의 본원력로 해석된다. 그 본원력에 의해 시공을 초월하여 오색의 빛은 무한히 확산한다.

불화와 조각 결합한 후불탱
대승사, 한국 목각탱 '범본'
현존 목각탱 등 最古, 最大
부석사에서 조성 대승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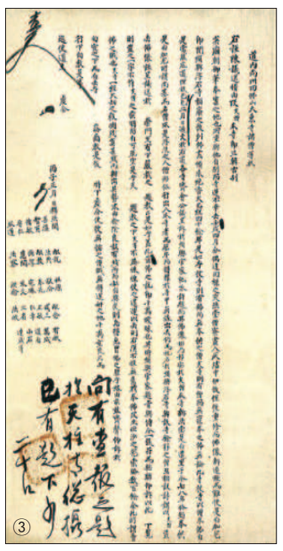
목각탱의 하단은 극락정토에 있는 구품연지 세계다. 중심에 보병이 자리한다. 보병에는 극락정토의 감로수인 팔공덕수가 가득하다. 보병에서 연꽃이 좌우로 뻗어나간다. 연꽃은 중앙에 하나, 좌우에 네 송이씩 모두 아홉 송이다. 아홉 송이 연꽃은 쌓은 공덕에 따라 하품하생에서부터 상품상생까지 구품왕생하는 자리다. 목각탱 조형에 극락회상도와 구품왕생도가 통합돼 있다.

이제야 조형의 큰 그림이 보인다. 대승사 목각탱 틀에는 없지만 용문사 목각탱에는 좌우 양변의 틀에 네 구절을 새겨두고 있다. 사실 대승사 목각탱 틀에도 똑같은 네 구절이 있었다. 1956년 화재로 틀의 원형을 소실했다. 1905년에 촬영한 유리건판 사진에는 같은 구절이 보인다. 특히 세 구절은 조형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 틀에 적어 둔 구절이 조형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다. '대수미지중미진찰토(大須彌之中微塵刹土: 대우주 속의 무수한 불국토)', '당극락지계보지구품(當極樂之界寶池九品: 여긴 극락정토의 칠보로 장식한 구품연지)', '삼종존용우성승지위 귀의(三種尊容又聖僧之位 歸依: 아미타삼존과 여러 성스러운 성중들께 귀의합니다)' 대승사 목각탱 속 수수께끼 같은 지, 방, 륜, 시를 새긴 수미대좌와 12개의 주역의 괘, 상단의 과거칠불은 '대우주 속의 무수한 미진찰토' 구절과 연결되고, 목각탱 하단의 보병과 아홉 송이 연꽃은 '극락정토에 칠보로 장식한 구품연지' 구절과 연결된다. 아미타여래 삼존과 성중, 호위신중들은 '귀의' 구절에 상응한다. 틀에 새긴 구절들은 목각탱에 담은 교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다. 왜 저렇게 나무로 조각한 독특한 후불목탱을 만들었을까? 시각의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그렇다. 목각탱은 극락정토를 실감하게 하는 관상과 염불수행의 방편장엄으로 탄생한 것임에 분명하다. 조형의 입체감은 사실감의 깊이와 비례한다. 목각탱은 구품왕생 연화좌와 우리를 극락정토로 이끌어주실 분을 또렷하게 각인시킨다. 방편반야가 빛나는 감동적인 목조각이다.

〈사진작가〉









①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② 예천 용문사 대장전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③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관계문서. ④ 문경 대승사 대웅전 목각탱 하단부 보병.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원과 발달장애 예술인이 함께한
시화전 성료



발달장애 예술인들과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원들이 시화전에서 함께 웃고 있다.

부산불교문인협회(회장 차정연)는 3월 27일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월 31일까지 제3회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시화전을 개최했다.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원과 라온누리 발달장애인들이 동참하여 시화와 시낭송, 그림, 비즈공예그림, 도자기 공예를 선보였다. 전시기간 내에 관람하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뜻깊은 전시회였다.
차정연 회장은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원과 라온누리의 발달장애인들이 함께하는 시화전은 불교의 지혜와 자비를 대중에 전하는 실천이며 장애가 있지만, 각자의 소질을 개발하여 표현하는 능력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회사로 격려했다.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불교인문학살롱 ⑧ 〈화엄경〉 만난 인연



▶**황다연 시조시인**은 1975년 〈시조문학〉 천료 이후 사정에 의해 문학 활동 중단, 1988년부터 다시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 시조집으로 〈그의 나이테〉, 〈천년 사랑의 바다에서〉와 세 권의 산문집 등이 있으며, 한국시조시인협회, 한국 여류시조시인협회, 한국해양문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1991년부터 故 이기영 박사가 설립한 한국불교연구원 부산 구도회에서 경전공부를 하고 있다.

우리 인생은 개인 몫만 아니다

무수한 생명의 어울림 한마당인 세계를 음악적으로 설명하면 하나의 화음이다. 이를 다시 부처님 우주관에서 볼 땐 일체 생명계 일체 현상의 움직임들은 곧 '화엄(華嚴)'이다. 이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책이라면 곧 일체 생명이 생멸하는 대자연은 그대로가 불멸의 경전이랄까.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생명체인 인간으로 살면서 도외시할 수 없는 우리가 희구하는 복(福)은 기본적으로 환경의 풍요로움 속에 있다. 그러나 대(代)를 이어 오래 누릴 환경의 풍요를 조성하는 바탕인 더 중요한 덕성은 의식의 풍요로움 속에 있다고 하겠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일차적 정신교육 현장은 가정이고 2차적 학식 습득은 단계별로 프로그램된 제도권 교육에 있다. 이 단계를 계속 밟아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한계에 도달한다. 그 한계 너머 무한 세계를 찾다 보면 저절로 고전의 세계에 진입하게 된다. 일상성 속에 겪는 여러 갈래 고통을 넘어서는 공부는 한정 없는 수행이 뒤따르는, 즉 내겐 경전공부에 있다고 느껴졌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래 축적된 독서의 힘으로 여러 권의 책을 출간했고 덕분에 나를 손짓하던 수필단체에 들어갔다.

어느 결에 그 단체협회지 주간을 맡았을 때 불교단체도 아닌데 왜 그때 표지화를 세계적 선화가로 알려진 수안 스님께 부탁드릴 생각을 했을까.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스님께선 내게서 남다른 기운을 느끼셨는지 '정수리 보자', '손바닥 펴봐', '생년월일 말해 봐' 하시며 내 신상에 나타난 운명을 읽으셨다.

표지 그림을 찾으러 다시 찾아뵈었을 때 차 마시는 동자 그림을 표구한 선물과 백화점 상품권, 연꽃 그림 등등을 주시면서 "〈화엄경〉을 매일 기도하듯 조금씩 읽어봐요. 그러면 불광(佛光)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하셨다.

그 말씀이 내 몸 안에 가득 차오른 다음 날 부산에서 제일 큰 영광도서에 갔다. 백용성 대선사 번역본이 2000년도에 재발행된 정가 10만 원의 한 권이 대사전 방식으로 모습을 나타내 나를 손짓하고 있었다. 기꺼이 곧장 모셔 와 펼쳐보니 법손 도문선사께서 이 나라 불교계의 중추적 인물 백용성 대선사 발자취를 뒤편에 실었는데 그것을 읽어보니 '아! 이분은 보현보살의 화신(化身)이시면서 비로자나불의 현현(顯現)'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국광복과 불교중흥을 위해 30여 종이 불서 저술과 20여 종의 역경을 해내시는 가운데 웅장한 80권 화엄을 대본으로 한 〈화엄경〉을 번역하신 위업을 이루셨다. 해인사 대장경판 보수, 각종 선회(禪會) 개설, 봉익동 대각사 건립, 대사동에 임제종 중앙선종 교당 건립 그리고 독립자금 조달 목적으로 산속에 과수원 경작, 또 3여 년 동안 북청에 있는 금광까지 경영하셨으며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으로 3·1 독립운동을 주도하시다 옥고를 치루신 일 등등. 초인적인 힘으로 초능력을 발휘하시며 장엄한 발자취를 남기신 백용성 대선사. 민족정기를 일깨우고자 고군분투하신 삶 앞에 저절로 두 손 모아 합장하게 된다.

세월이 흘러 절판된 〈화엄경〉을 법손 도문 대사 대원력의 힘으로 3여 년 동안 불교문학을 전공하신 사재동 교수의 도움을 받아 중복된 내용을 제외하고 일부 현대문장으로 옮겼고, 불교서적을 전문적으로 발간하는 김정길 사장님의 협조로 이 방대한 대작불사를 원만회향하게 되었음을 밝히셨다.

중생은 업(業)에 의해 태어나고 보살은 서원(誓願)에 의해 태어난다고 했다. 셀 수 없어 '천백억 화신(化身)'으로 표현된 제불보살 화신들이 생명사회 평화를 도모하고자 끊임없이 제 몫의 일을 하고 계시는 감인토(堪忍土) 사바(娑婆)는 언제나 층층의 다양함으로 화엄을 이루고 있다. '선재'라는 상징적 인물이 53선지식을 찾아가는 구법(求法) 여행을 통해 존재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을 그린 현묘한 화엄의 바다… 오래 수행하다 보면 만덕(萬德)이 쌓여 덕과(德果)가 무르익으면 저절로 뭇 생명을 이롭게 하게 되는 보현행의 길 화음(和音), 화엄(華嚴)….

수필단체서 일하며 협회지 제작
표지 그림을 수안 스님께 부탁
수안 스님 인연…불교공부 권유
"화엄경 매일 읽으면 佛光 가피"

모든 건 연결돼 만물에 영향 줘
길상 에너지 파급하는 것이 도리



국고 제314호 순천 송광사 화엄경변상도. 〈화엄경〉의 7처9회(七處九會)의 설법내용을 그린 변상도다.

대승불교 경전 최고봉인 〈화엄경〉은 부처님 성도 후 제일 먼저 설법하셨으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다. 부처님도 구법(求法) 여행을 하셨는데 최고단계에 이르러 더 이상 당신을 가르칠 스승 없음을 아셨을 때 보리수 아래서 6년 고행을 닦으셨다. 공부가 무르익어 존재의 이유에 대해 어떤 의문도 남음이 없는 상태에 결국 도달하여 성도를 이루신 것이다. 선재의 53선지식을 찾아가는 과정도 이러한 이유인 것.

가히 함부로 설명할 수 없는 화엄사상은 정토사상 영향을 받아 생명의 실상을 통찰하게 하면서 서원(誓願)의 갑옷을 입게 만든다. 많은 문제 안에 살기에 사량분별심(思量分別心)을 벗어나야 함은 한 생각이 쉴 때라야 존재의 평정이 가능해서다.

전생에도 불교경전을 이윽히 들여다보고 살아왔던가. 아무리 경전을 오래 들여다봐도 지루하거나 싫증나지 않는다. 어느덧 내 정신세포 하나하나 사이에 불광(佛光)의 에너지가 드나들었음인가. 내 삶 발자취에 스며든 보살 마음 한가닥 한 가닥이 새삼 운명의 작용임을 느낀다.

덜 닦여 아둔한, 곧 지혜부족으로 피할 수 없던 내 삶 몇 마당 고난의 페이지에 남겨진 생활의 피멍자국은 그러나 이유 모를 바람으로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나를 확장시키며 더 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자양분이 됐다. 고단위 섭리의 씨줄과 날줄로 지은 내 수필 속엔 생명 사회 평화를 일구는 문인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등불 역할을 했다고나 할까.

자력(自力)이 다할 때 가피지력인 타력(他力)이 나타난다고 한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마음이기에 마음이 창조주라고 한다.

이미 깨달았지만 중생제도를 위해 중생 상태에 머무는 보살은 어떻든 중생계 정화(淨化)를 끊임없이 돕는다. 그래서 보살십지품 이구지(離垢地)에선 보살지계가 논의돼 있는데 "윤택한 말과 부드러운 말과… 여러 사람이 사랑하고 즐거울 말과… 몸과 마음에서 즐거움이 솟아나는 말을 항상 낼지니라"란 먼저 입으로 짓는 죄를 경계하려 생활 용어 향상을 비롯하여 보살도를 실현할 언어생활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았다.

그러면서 보현행품에서 보현보살 마하살의 마지막 말씀이 엄청난 에너지원으로 대두한다. "불자야 우리 모두가 이름이 보현이니…" 보현행이 보살의 행원行願이기에 결국 보현행을 수행해 가는 과정이 우리들의 구법 여행임을 깨닫게 하고 있다.

부처님 품 안에 들어왔다면 일체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체 생명을 꽃피울 무목적성 보현행을 마땅히 추구해야 한다. 이를테면 예경제불(禮敬諸佛)이 되는 '고맙다'란 말, 칭찬여래가 되는 '잘했어'란 말, 그 어느 순간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며 업장(業障) 참회가 되는 '미안하다'는 말들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요익중생의 길이 보현행의 길이지 않은가.

진리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의미인 대방광(大方廣), 부처님이 만행(萬行)의 꽃을 피워 장엄함을 의미하는 불화엄(佛華嚴), 여기에선 부사의(不思意)한 생명의 본질이 곧 보현(普賢)이다.

일승불교 철학이 지배했던 신라시대는 화엄경이 신라불교의 핵심이 되어선지 의식수준이 높았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화엄경을 들여다봐야 부처님 은혜를 알 수 있다고 한다.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기에 마음을 보살 마음으로 사용하는 선용기심(善用基心) 즉 보현행은 이래서 우주 보편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한참 되돌아가서 보살문명품 한 구절인 "마음이 업을 알지 못하며 받음이 보報를 알지 못하며… 인(因)이 연(緣)을 알지 못하며 연(緣)이 인(因)을 알지 못하며…" 그러기에 우리들의 수행은 멈출 수 없는 것이다. 업과를 이루는 허물을 만들지 않으려면 끊임없는 자아탁마, 마음수행뿐이기에 정행품에선 문수사리보살이 지수보살께 "만일 보살이 그 마음을 잘 쓰면 모든 면에 곧 모두 뛰어나고 묘한 공덕 얻으리라"고 지혜롭게 잘 사는 삶의 대가가 평이하게 명시되어 있다. 또 비로자나품으로 돌아가 보면 "행(行)이 용렬한 자는 이 방편을 알지 못할지니 큰 정진의 힘을 얻은 뒤에야 능히 세계 바다를 깨끗이 하리니"란 구절에선 모든 경전이 제시하는 자기 정화(淨化), 청정심 회복이 보살도에 오르는 꾸준한 학습과정임을 거듭 주지시키고 있다.

운명을 만드는 마음자리는 헤아릴 길 없고 이치의 세계가 너무 오묘해 화엄경은 일어남과 소멸하는 것은 불가사의하다 했다. 그러면서 존재의 완성도를 높이는 공부는 보현행에 있다고 이 화엄경은 일러주고 있다. 우리는 어차피 다양한 문제 속에서 다양한 계층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전생의 서원으로 관음, 보현 역할을 하며 운명적인 업무를 이행하는 보살이 사는 국토도 중생이 사는 삶의 현장이다.

가장 위없는 공부는 제도권 교육,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라 대자연 생명 사회 낱낱의 존재 이치 속에 있기에 일반 육안(肉眼)으론 해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외·내연으로 자신을 크게 확장하려면 안목부터 길러야 한다. 그 안목이 곧 그 삶이어서다.

마음가짐이 행위를 유발하기에 기도 시간엔 언제나 〈화엄경〉 앞에 합장하고 입법계품에서 나를 압도한 글귀 "네가 무량세계가 없는 복덕 바다에 보현행을 닦으면 모든 큰 원(願)을 성취하리라"는 덕운 비구가 선재에게 일러주신 이 말씀 한 구절을 경건하게 읊조린다. 어떻든 나는 화엄경의 여러 내용 중 내 삶을 자극하는 글귀들을 읊으면서 거듭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 속에 있다. 복(福) 중에 큰 복은 자기를 이끌어 올리는 큰 스승을 만나는 일, 이를테면 길상 인연 만나는 일인데 내 삶 굴곡진 곳에 묵연히 깃든 인욕행이 플러스 에너지를 불러들여 여러 길상 인연을 연결해 주었다.

어디서나 정신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야 만물을 이롭게 해 줄 수 있다. 흔히 관상학적으로 눈빛이 맑아야, 그 얼굴이 밝아야 그 삶에 질적(質的) 발전이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 인생은 우리 개인 몫만이 아니다. 미세하게 만물과 연결되어 있어 만물에게 영향을 끼친다. 넓게는 내가 머무는 사회, 나라, 지구촌 우주 법계 일체 생명에게 영향을 끼친다. 어렵게 사람 몸 받고 태어났는데 최대한으로 수행하여 최상승의 값어치를 다하고자 그냥 하염없이 길상 에너지를 길어 올려 파급시키는 것이 내 존재의 일상적인 도리다. 이것이 내가 재가불자로서 아니 그 이전 누구의 자손, 누구의 부모로 살아가는 무조건의 예의다. 굳이 문자로 표현하면 수행지수가 높아질수록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난다고 본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 그러기에 내 생활 도구에게도 일상적으로 건강함에 대한 감사함을 낮은 목소리로 표현한다. 이것은 나와 함께 존재하는 일체물상에 대한 기본적 보현행이다. 쉬울 리 없지만 늘 생명의 어머니 대지와 같은 마음으로 산다면 오롯이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23-0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종 합 향 : 130.000원
• 선 향 : 80.000원
• 불 향 : 10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 가루향(도향) : 90.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性이 色인 眞空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⑮ 여래장묘진여성(如來藏妙眞如性)

〈원문〉 "아난아 네가 원래 알지 못하는구나. 여래장 가운데에 성(性)이 색(色)인 진공(眞空), 성이 공(空)인 진색(眞色)이 청정하고 본래 그러하여 법계에 두루 있으면서, 중생의 마음을 따르고 아는 바의 양(量)에 응하느니라. 업(業)을 따라 현발(現發)하는 것이거늘 세간은 무지하여 의혹 되어 인연이다, 자연이다, 하나니, 모두 식심(識心)으로 분별하고 계탁하는 것이라. 다만 언설만 있을 뿐 도무지 실다운 뜻이 없느니라."

〈강해〉 부처님이 아난에게 여래장묘진여성(如來藏妙眞如性)을 다시 일깨워 주기 위하여 거듭 말씀해 주는 대목이다. "성(性)이 색(色)인 진공(眞空)"이라는 말은 성(性) 자체에 색이 갖추어져 있다는 말이다. 곧 여래장 가운데 색(色)이 될 성질이 내재해 있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성(性)과 상(相)을 두고 말할 때, 색은 상을 가리키는 말이 되지만, 여기서는 성(性)에서 색상(色相)이 나올 수 있는 분(分)이 있는 것을 말한다. 또 진공(眞空)은 여래장 자체다. 공(空)이면서도 색(色)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색이면서도 자체는 공하다는 말이다. 청정하다는 것은 순수함을 말하고, 본래 그러하다(本然)라 한 것은 본래 여래장에 갖추어져 있는 것을 말한 것이다. "중생의 마음을 따르고 아는 바의 양(所知量)에 응한다"는 말이 매우 미묘한 말이다. 여래장 안에 본래 갖춰져 있던 것이 중생의 마음 따라 나온다는 것이다. 가령 사람이 불을 발견하고 또한 전기를 발명했다면 본래 있던 불이 사람에 의해 현상적으로 나온 것이고 전기를 발명한 것도 본래 있던 전기를 사람이 과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것이니 이러한 것이 모두 중생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된다. 또한 이것이 중생이 알아낸 정도의 수준에 맞춰지는 것이므로 소지량(所知量)에 응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이렇게 마음을 따라고 아는 정도에 응하는 것이 결국 업(業)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다. 원래 업은 중생이 생사윤회를 거듭하는 중심적인 힘을 말하는 것인데, 인과 개념과 결합되어 과보를 초래하는 행위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힘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말이다. 업은 어떤 개체에 대한 강한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탈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불교는 무아론(無我論)을 바탕에 두고 있으면서도 신(身), 구(口), 의(意) 등에 의한 행위를 선악으로 구분하고, 도덕적인 모범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업을 다양하고 폭넓게 설하고 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은 생사의 문제도 업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경문에 여래장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것이 중생의 업을 따라 발현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아는 것이 없어 미혹하여 인연이다, 자연이다, 한다는 것이다. 인연이란 화합하는 것이다. 씨앗이 땅속에 뿌려져 싹이 터 자라는 경우를 예로 들면 씨앗이라는 인이 땅, 땅속의 수분, 공기 햇빛 등의 조건에 의하여 싹이 터서 자라는 것이 인연의 화합인 것이다. 자연은 인연이 아니므로 불화합이다. 인연이다, 자연이다,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이러쿵저러쿵한다는 것이다. 식심의 식(識)은 육식(六識)으로 육근(六根)이 육진(六塵)을 상대할 때 일어나는 분별심이다. 분별로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는 것을 계탁(計度)이라 한다. 이 식심 분별로 계탁하는 것을 희론(戱論)이라 하고 또한 망상(妄想)이라 한다. 허망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실상을 모르기 때문이다. 중생의 망상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집착하는 의식의 작용 전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망상은 진리에 어긋나는, 전도된 생각이다. 진로(塵勞)에 의해 청정한 마음을 오염시켜 괴롭히는 번뇌가 된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으며, 바깥의 대상 경계에서 촉발되는 것이 있다. 이때는 객진(客塵)이라 하며, 번뇌를 본래는 없었던 것이 외부에서 온 손님처럼 와 있는 것이라 하여 객진번뇌(客塵煩惱)라 한다. 어느 선사의 법문에 이런 말이 나온다.

"여러분, 하루 내내 밤낮없이 망상과 번뇌에 사로잡혀 지혜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분별하는 모든 것이 망상으로부터 나온 것뿐이니, 도대체 어디에 쓰고자 그러는가?"

〈반야불교연구원장〉



지흠스님의 〈능가경〉 강설

⑮ 일승불법의 이치

오온은 죽을 수 없어

세상은 모양과 크기 또는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등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생명체들의 집합이다. 그리고 모양과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생명체의 근원은 다르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 근원을 알지 못해 보이는 힘에 따라 우월한 것과 우월하지 못한 것에 차이를 두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러한 잘못된 견해가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험담하게 부추겨, 자신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게 만든다. 생명체의 모양과 크기가 다른 것은, 어리석음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서 차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지 않고 상대보다 우월함을 찾는 데 정신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남들보다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텅 빈 볍씨와 다르지 않은데, 우리는 자신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일대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사탕의 단맛에 젖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만다. 불현듯 원력을 세웠다가도 인연이 일시적인 것에 그쳐지고, 다급한 생활이 앞서게 되면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자신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경스럽지만 엉뚱한 질문이 절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가? 아마 대답하려고 하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할 것이다. 왜 우리는 나 자신을 표현하려면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망설이게 될까? 대부분 한두 번 이상 많은 생각을 해봤겠지만, 이 해답을 얻기 위해 끝까지 탐구하는 노력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자신을 탐구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인간이 향유할 만한 재미라는 것은 없고, 딱히 지금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중간에 포기하고 살아간다.

그렇기에 자신이 무엇인지를 자신 있게 말하고 싶겠지만, 한 번도 제대로 끝까지 답을 구한 적이 없으니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거듭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 그 다양한 태어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약난생(若卵生) 약태생(若胎生) 약습생(若濕生) 약화생(若化生) 약유색(若有色) 약무색(若無色) 약유상(若有想) 약무상(若無想) 약비유상(若非有想) 비무상(非無想)', 여기에도 엄청 다양한 조건이 결합하는 뭇 삶의 태어남이 존재하고, 서로 교차하며 유전한다. 우리는 이러한 태어남을 선택할 수도 없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없다. 그리고 그만둘 수도 없다. 이처럼 어찌하지 못하는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부처님은 이러한 반복적인 태어남을 진짜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태어남에서 겪는 사사로운 고통을 괴로움으로 착각한다. 부처님은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이 말씀 또한 온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불필요한 행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여덟 가지 바른 가르침을 말씀하신다. 이 여덟 가지 바른 가르침 또한 불필요한 행위를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오온에게 멈춤은 더한 괴로움으로 와 닿는다. 우리는 이 더한 괴로움이 오온의 속임수인 줄 알지 못하고 사실처럼 느끼게 된다. 오온의 괴로움이 속임수로 와 닿지 않는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가려져 환상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로 괴로운 것은 선택할 수 없는 태어남 자체가 진짜 괴로움인 것이다.

우리는 '태어남이 고통'이라는 진리에 자신의 힘을 집중하여야 오온의 괴로움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 오온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개체의 괴로움이라기보다는 허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미혹이다. 미혹을 걷어낼 진리를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몹시 어렵다. 그것에 대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전부 오온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잔꾀만을 원하고 진정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바른 소리는 싫어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온의 고통을 바르게 보는 것이 자신이 무엇인지를 참구하는 것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두 번째 척추순화, '선천원기' 각성으로

〈先天源氣〉



구선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⑮ 척추 순화

손바닥 위에 공이 얹힌 듯한 기감이 생겨나면 이번에는 심장의 박동을 느껴본다. 그런 다음 손바닥의 진동과 심장의 진동을 함께 느껴본다. 손바닥이 둥둥하고 울릴 때, 짧은 호흡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낚아채듯이 노궁의 구멍 속으로 공을 빨아들인다. 이때 손목에 약간의 스냅을 가해 준다. 공이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손목 쪽이 뻑뻑해진다. 그러면서 뻐근한 통증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때의 통증은 머리나 흉부 쪽에서 빠져나오던 냉기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옴' 자 발성법을 통해 장부 순화를 더 한 다음에 진동관을 해야 한다. 들숨에 손목까지 빨아들인 공을 날숨에 손바닥 위로 내보낸다. 그런 다음 다시 공의 형태를 만든다. 이번에는 공을 팔뚝뼈까지 끌어들인다. 날숨에 다시 손바닥으로 공을 내보낸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공을 대추혈까지 끌어올린다.

기운이 손목을 지나 뼈 속을 통과할 때 빽빽한 기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열기가 올라오기도 한다. 노궁에서 대추혈까지 기운의 통로가 만들어지면, 대추에서 명문까지 척추뼈 경로를 열어준다. 한 번에 열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노궁과 대추, 대추와 명문 사이를 따로 열어준 다음 연결해 준다. 숨을 들이쉬면서 공을 노궁에서 대추까지 끌어들인다. 그런 다음 숨을 내쉴 때 그대로 대추에 머물게 한다. 다시 숨을 들이쉬면서 대추에서 척추를 따라 명문까지 공을 끌어내린다. 이 과정에서도 경로가 한 번에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막힌 부분이 있으면 날숨에 그 자리에 공을 머물게 하고 들숨에 다시 끌어내린다.

대부분 흉추 4번, 5번, 6번 사이가 막혀있는 경우가 많다. 이 자리는심 장과 위장으로 들어가는 교감신경이 시작되는 부위이다. 이렇게 해서 대추와 명문 사이의 경로가 열리면 노궁과 명문을 서로 연결해 준다. 천천히 호흡을 들이쉬면서 노궁에서부터 팔뼈를 통해 대추혈까지 공을 끌어들인 다음, 척추를 따라 명문까지 끌어내린다. 내쉬는 호흡에 맞춰, 명문에서 척추를 따라 대추, 어깨를 지나 손바닥까지 기운을 다시 옮긴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첫 번째 단계의 척추 순화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 단계 척추 순화는 '선천원기(先天源氣)'가 각성되면서 이루어진다. 선천원기를 '쿤달리니'라고 한다. 척추뼈는 선천원기의 통로이다. 선천원기는 선천기(先天氣)와 원기(源氣)가 합쳐진 것이다. 선천기는 생명이 수정란에 깃들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혼의 에너지이다. 원기는 영혼이 수정란에 깃들 때 생성되는 적정(寂靜) 에너지이다. 영혼이 수정란에 깃들게 되면 영성이 혼절하고 혼성만 활동한다. 이 시간이 3일 정도 유지되는데, 이때 적정 에너지가 생성된다. 육체에서 영혼이 처음 들어온 자리가 척수의 '황정'이다. 척수의 황정에는 선천혼이 생성해 내는 선천기와 영성이 적정에 들었을 때 생성해 내는 원기가 하나로 합쳐져 있다. 이 에너지가 요추 2번과 3번 사이에 내장되어 있다. 그 자리가 명문이다. 선천원기는 육체생명의 수명을 결정하는 원인이다. 선천원기가 소진되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된다. 명문에 내장되어 있는 선천원기는 육장과 연결되어 있고 세포의 텔로미어와 연결되어 있다. 육장으로부터는 습득혼이 생성해 내는 선천기를 제공받으면서 소진된 에너지를 보충하고 텔로미어를 충전시켜서 세포수명을 유지시킨다. 명문에 내장되어 있는 선천원기는 척추뼈를 타고 흐른다. 충맥을 통해 육장과 교류하고 경락과 핏줄, 신경을 통해 세포와 교류한다. 노궁을 통해 척추로 끌어들인 공은 '후천기(後天氣)'이다. 후천기란 별에서 생성되는 공간 에너지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32호 | 17 | 전면광고

모든 쌓임[蘊]과 덮힘[蓋]이 원수가 되지 않게 하며 모든 여섯 감관에 괴로움이 없게 하며 온갖 세간을 괴로움이 아닌 것으로 되게 하며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1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매가 : 20억
- 위치 : 경기 • 부지 : 150평 • 건평 : 약 100평 • 산 밑 주차 가능 • 매가 : 15억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받습니다.
※사찰 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 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용호리 835번지, 약 130평 / 836번지 약 300평
- 4년 전 포크레인 작업, 조용하고 청정지역, 아담하고 포근한 자리, 샘물 나옴, 절터, 산소자리 적합
- 가액 : 3,150만원, 건강상 양도

010-7628-9997

영암 월출산 토굴안내

- 전남 영암군 미암면 남산리40(답198평) 21년 10월 진입로 4m포장(군비) 마을 수도 연결 가능
- 계곡 맞은편 남산리 41(전512평) 산아래 마을 없음
- 총710평, 도합 3천 5백만원 (스님 사정이 급해 5천에서 낮춤)

010-3921-7590

사 찰 안 내

- 위치 : 익산시내 십분 거리 조용한곳
- 대지 : 300평, 사유지 포함 1,000평 가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법당 집기 일체 포함
- 가액 : 2억 5천만원

010-5581-3081

포교원 안내

- 지역 : 구포시장 농협~신협(중간)
- 상가 : 1층 주차장 & 2층 건물 50평(전체)
- 법당 : 아미타, 대세지, 관음, 지장, 신중, 영단
- 시설 : 종무실, 객실, 공양간, 황토찜질방
- 주차 : 50평, 시장 유료 주차, (직)관리
- 전세 : 2천/90(1, 2층 포함), 사권 : 4천 8백만원 (현법회중)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350-2115
010-4535-2568

부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온천장 시장 바로 인근
- 2층 약 50평(방, 친견실)
- 시설비 3천 2백만원(2개월 전 완전수리)
- 보증금 2천만원, 월7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010-3582-8975
010-5511-7000

사 찰 안 내

- 위 치 : 충남 금산 추부
- 대 지 : 280평, 임야 : 50평, 총 330평
- 삼성각 : 7평, 전통 기와 목조건물
- 법 당 : 22평, 경량골 철골
- 요사채 : 슬레이트 지붕, 블록, 방 5개, 거실, 주방, 화장실
- 대전 옥천 15분 이내(교통 편리)
- 뒤는 산, 앞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경치 좋은 곳
- 가 액 : 2억 5천만원, 대출 5천만원

010-3875-630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 버스 역세권 도보 3분 거리 도시가스, 유동인구 많음

010-3402-4990

사찰(급)안내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431
- 대지 300평(종교부지), 농지 114평(논)
- 목조법당 25평, 요사채 30평(방 3개), 태양광, 기름보일러, 저장식 전기온수기, 지하수, 욕실2개, 실외화장실1개
- 가액 : 2억 5천만원

010-4835-1739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대지 143평
- 가액 : 1억 2천 (조정 가능)
- 당일 법회 가능, 현재 운영중입니다. 노스님 몸이 약하신 관계로 양도 법사님, 보살님도 인연 맺습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 600평, 대웅전(53평)
- 부속 건물 :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 3억 8천만원

010-8957-8089

춘천 금선사(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2억(살분만 전화)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 입니다.

010-3428-2774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23길 55 지장사
- 단독 주택, 법당 1, 큰방, 작은방, 화장실 2개
- 전월세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권리금 1000만원, 40평 안쪽에 마당 있음

010-4844-7098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344~43번지
- 대 지 : 500평
- 법 당 : 30평
- 요사채 : 20평
- 가 액 : 5억(조정 가능)

010-6449-9552
010-3640-3128

사 찰 안 내

서울 노원구 덕릉로 126길 30, 3층 도불사(한국불교태고종)

- 법당 : 63평
- 보증금 5천만원, 권리금 3천만원, 월세 210만원, 관리비 30만원
- 바로 법회 가능합니다. (스님께서 갑작스럽게 열반하심)

010-3784-0181

사 찰 안 내

경기도 가평군 중미산 자락에 위치한 절입니다. 남향으로 전망 좋고, 법당도 넓고 깨끗하여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 1층 82.53㎡ (방 3개, 부엌, 거실), 2층 82.53㎡ (법당, 방, 베란다)
- 보증금 3천 월세 80만원, 권리금 없이 모든 시설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직접 보실 수 있음)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160

010-2551-3752

절터(급)안내

- 위 치 : 강원도 정선 아우라지 5분 거리 42번 국도 옆
- 임야 5,000평, 안에 절터 자리 다수 있음, 대지 300평, 암자 6평, 약초농원
- 산 정상까지 길, 관수, 전기 시설 완료, 산삼급 약초 있음, 산 정상에 평탄작업 가능
- 가 액 : 급양도(상담 후 결정)

말기 암 환자 95% 완치도 있음(산기운이 좋음)

010-7922-207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 8백평
- 건물: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10억

010-4547-0023

사찰(급)안내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소재
- 대 지 : 약 600평,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스님 노환으로 급매
- 집기류는 그냥 주고 갑니다. 꼭 하실 분만 연락 가액은 상담 후 결정

010-2366-2821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사찰(급)안내

- 김해 동IC에서 5분 김해 공항에서 15분
- 창건 30년, 도량 270평
- 가액 : 8억 9천만원

010-6898-9114

암 자 안 내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2387, 화룡사
- 가액 : 3천 2백만원

기타 문의는 전화로 알려 드립니다.

010-6688-994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에서 10분 거리
- 종교 부지 243평 건물, 대웅전 27평, 용왕각 15평, 요사채 35평, 화장실 5평(재래식) 전 511평
- 가액 : 5억 5천

010-3845-244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 대지 : 약 230평
- 스님, 법사, 보살님도 환영
- 집기류는 그냥 드립니다.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1억 2천만원(조정 가능)

010-3415-7833

사 찰 안 내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603번지 (신.금곡4길 68-81)

- 대 지 : 700평
- 건 물 : 법당 25평(산신, 칠성, 용왕)
- 요사채 : 슬라브 2동, 향토방 1동
- 해우소 1동(실사용), 주차장, 전 · 천오백평 감나무, 자두, 두릅, 나물, 고사리 등 다량 남향이라 따뜻하고 포근한 살기 좋은 도량
- 가 액 : 5억, 차량 진입 가능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부근
- 대지 약 365평, 가용 평수 약 600평(하천부지 포함)
- 법당, 약사여래, 삼선각, 요사채, 스님이 사용하는 방 3칸 입석부, 종무실 1개, 창고 2개, 신도님 식당 약 25평, 23년 초 현대식으로 새로 지음, 주차장 완비
- 시내버스 거리, 정류장까지 걸어서 5분
- 가액 : 4억 1천만원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절 창건한지 30년

010-4583-4895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 218쪽 |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 292쪽 |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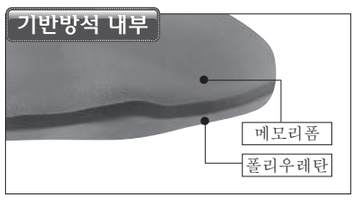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제품의 특징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32호 | 18 | 전면광고

병든 사람을 문안하는 것은
나(부처님)를 문안하는 것이요,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사람은
나를 간호하는 사람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중일아함경》에서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 영산재 보존회 학인 모집(영축사)

1. 법패(염불·장엄)
2. 작법무(오공양·운심게)
3. 바라(사다라니·사물)

- 특별과정수업
- 개인 3개월 과정

※ 사찰 등록 및 승려증 발급(종단)

사)부산영산재 보존회 사무국 담당 010-5511-7000

극락왕생 · 인도환생 발원
반려동물 천도재 · 49재
태아령(낙태, 유산) 영유아 천도사찰

해인승가대, 동국대 출신 철학박사 큰스님 직접 집전

부산 온천장 약불사 051-556-2270
반려동물 수의판매 · 부산 반야원 010-8543-4289

영산범음집 3판 증보판

A4 320페이지 특수용지 2중 배접

1. 의식편-천도의식, 종사영반, 상용영반 관음시식, 구병시식
1. 해설편-의식문 자체가 한자로 되어있는바 전문(全門) 한글로 해석
2. 악보편-옹호게, 거불성, 산화락 등 바라춤, 각종진언 사물장단 수록

※※영산범음집 한 권으로 상용 재의식을 집전할 수 있으며 시종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게 되어있음 책의 마지막엔 지금까지 보시하신 스님과 사찰명단 수록

정가 50,000원 유튜브 '영산범음집'검색 전 과정 동영상 제공
010-3842-1040 범패연구소



추천 · 책이름 검색 해보세요 !!

民佛宗秘法傳修院

鬼門神功 귀문신공 知止神功 지지신공
六爻神功 육효신공 不立神功 불립신공

※ 다음카페 꼭 참고, 장애스님, 보살무료

Daum 역학대통령 ▼ Cafe.daum.net/yokhak

직통 02-907-5858, 백운곡 010-2693-7712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리 다 함께 불교를 살리는데 동참합시다

- 전국 시 · 군 · 단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포교활동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기본급 월 3백만원 외 활동 범위와 능력에 따라서 배당금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 불교를 위해서 무언가 공덕을 짓고자하는 불자님들은 망설임 없이 연락 바랍니다.

010-8459-1472, 043-642-9413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부전스님 모십니다

- 경북 문경 쌍용사
- 월 보시 : 200만원 (제비 별도)
- 개인 방사 (원룸식)

010-8819-8988

범음·범패 학인 모집

각단의식, 천수바라, 오공양작법, 법고, 송주북, 정근북 및 개인지도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 륜 사
전화 010-7579-82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결혼상담소

나라님께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인연만나 행복을

010-5624-1365
02-306-7988

기도스님 모십니다

010-2811-0118

빙의, 공황장애, 우울증치료 간질 있는 분 연락주세요.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33-366-2309 / 010-4804-2309
대구종무소 : 010-4009-2388(강법사)
※ 몸 아프신 분들 천도재 해드립니다.
※ 친견하실 분은 330만원 별도입니다.

단청, 탱화, 개금, 고건축

문화재청
화공기능보유자

010-9387-1518

● ● ●

무보시 기도하며 같이 지낼
75세 이상 노스님 모십니다.
부산시내 작은절
대원정사 주지

● ● ●

010-9010-540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효민의
서도로 새기는 경구

⑦ 관해난수(觀海難水)



바다를 본 사람은…

어떤 분들이 나한테 이런 말들을 한다. 어떤 글을 보고 참 멋있게 잘 썼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왜 글을 그렇게 썼냐고들 한다. 다들 각자의 보는 견해에 따라 이렇다 저렇다 말들을 할 수 있겠다. 각자의 생각과 보는 관점에 따라 그렇게들 평가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그때 그 작가의 감정과 느낌 그리고 마음이 끌리는 대로의 예술 그 자체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세상일들도 그런 것 같다. 서로가 보는 관점에 따라 또 취미에 따라 취향에 따라 서로가 보는 모습들이 다름을 느낀다. 표현 역시 말이다.

관해난수(觀海難水), "바다를 본 사람은 물을 말하기 어렵다"는 말로 직역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깨달음의 차이, 생각의 차이, 느낌의 차이, 모든 것이 다 같을 수는 없다.

요즘 우리들의 삶 자체가 각박하고 힘들고 미래보다는 눈앞의 일들에 헉헉거리고 힘들어 하며 앞을 쳐다보지 못하는 힘든 세상. 모든 것이 녹록하지가 않은 우리들의 삶.

그러나 2023년을 맞이하며 나름 여러 가지 계획과 꿈 그리고 각오와 결심들. 올해도 3월이 지나 4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매, 지나간 3개월의 후회보다는 아직도 남아있는 올해의 날들에 대한 기대와 여유로움을 가져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

그리고 내 마음 속의 부처님, 올해는 어떻게 해 보아야지 하는 마음을 새롭게 일깨워보며 다가오는 5月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 뭔가 풍성하고 여유롭고 그 넓고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 바다를 본 사람이 물을 말하기 어렵다는 '관해난수'의 글과 같이 부처님 세상을 우리가, 내가 만들어 갈수 있을까? 석가모니불.

〈서예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㉚ 박규리의 '산문일적'

'善知' 알고 '지범개차' 해야

〈持犯開遮〉

산문일적(山門一適)/ 박규리

산어귀에 홀로 사는 할매가 한살배기 천복이를 양자 삼아 데려왔을 때, 산중턱 작은 절 스님이 하, 고놈 참 자알 생겼다 내 아들 하자 내 아들 하자며, 아침 저녁 산책길마다 쓰다듬어도 주고 안아도 준 지 엊그제 같은데
매미도 삼복에 지쳐 목이 쉰 여름 한낮
느닷없이 천복이가 전화를 걸어서 스님 큰일났응께 후딱 좀 와보소 하길래, 하릴없는 스님 한걸음에 산문 밖으로 달려가니 할매가 아니! 스님이 웬일이라우! 하는 게 아닌가 천복이가 큰일났다는디 무슨 일이오? 물으니, 할매는 그 큰 응덩이를 마구잡이로 흔들며 부지깽이부터 찾아선, 이눔이 옥수수 한솥단지 삶았길래 좀 갖다드리라 했더니, 지는 자빠져 누워 또 건방지게 스님께 전화질했다우? 하면서 벌써 도망간 천복이 쪽을 어림잡으며 고래고래 소리지르는데, 됐어라우 고만 됐어라우……스님 옥수수 한덩이 맛나게 먹고, 인적도 없는 이 토담집 쪽새가 전기선은 안 쪼았나 장마비에 개울 옆 지붕은 무사한가 두런두런 돌아보다 어느덧 해 저무는 숲길을 옥수수 한소쿠리 들고 되짚어 오는데
밤나무 숲 마악 지났을 때였나, 후두둑 비명을 지르며 산꿩이 날아오르는 찰나 주먹만한 돌멩이가 스님의 맨머리를 사정없이 후려친 것은,
아. 부. 지. 어쩔껴? 나도 벌써 열 살이란 말여!
철없는 스님 놀라 돌아보니, 아직 주먹만한 짱돌을 한손에 움켜쥔 채 파르르 떠는 천복이 두 눈에 하, 말똥 같은 눈물이 석양보다 붉게 떨어져……

– 박규리 시집, 〈이 환장할 봄날에〉, 창비, 2004

일적(一適). 물 한 방울. 여기서는 눈물 한 방울로 읽어도 되겠다. 그것도 절의 출입문인 산문(山門) 안에서 떨구는 눈물 한 방울. 왜 그런지, 짠하기도 하고 알싸하기도 하다. 천복이의 말똥 같은 '일적'이 왜 '석양보다 붉게 떨어' 졌을까. 스님은 천복이의 진짜 아버지였을까, 아님 천복이가 어릴 때부터 '하, 고놈 참 자알 생겼다 내 아들 하자 내 아들 하자며, 아침 저녁 산책길마다 쓰다듬어도 주고 안아도' 줘서 진짜 아버지처럼 여겨서 그랬을까. '아. 부. 지. 어쩔껴? 나도 벌써 열 살이란 말여!'. '짱돌'을 쥐고 '석양보다 붉'은 '말똥 같은 눈물' [일적(一適)]을 떨구는 천복이의 모습이 코끝을 찡하게 한다.

'밤나무 숲' 길을 지나다 느닷없이 맨머리에 짱돌을 맞은 스님의 놀람도 폭소 대신 서글픔을 자아낸다. 그 짱돌은 천복이의 스님에 대한 그리운 부정(父情)이다. '철없는 스님'은 과연 그 짱돌이 천복이의 부정인 줄 알까 모를까.

이 시는 이야기 시다. 서정적이고 희극적이면서도 잔잔한 웃음과 함께 눈물이 핑 도는 시다. 한 살 때 할머니에게 안겨 산어귀 토담집으로 온 천복이(필자는 이 천복이의 이름을 天福이라고 규정했다)가 커서 벌써 열 살이 되었다. 열 살을 먹는 동안 천복이는 자연스레 스님이 자신의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했을 테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사는 부정에 대한 사무침 때문에 삶은 옥수수를 핑계로 '큰일났응께 후딱 좀 와보'라고 한 뒤 밤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누르고 눌러 왔던 부정을 짱돌에 담아 아버지의 맨머리를 향해 (나를 책임지라고) 사정없이 던져버린 것이다. 이 대목에서 눈물 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랴.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근데, 천복이의 진짜 어머니는 누구고 진짜 아버지는 누굴까. 진짜 아버지는 스님으로도 읽히고, 스님으로 안 읽히기고 한다. 그러나 (오독이어도 좋다) 필자는 스님이 천복이의 진짜 아버지이길 바라며 이 시를 읽었다. 그래야 이 시가 더 인간적인 시가 될 것 같아서였다. 그럼 진짜 어머니는 누구일까. (이 또한 오독이어도 좋다) 스님을 너무도 사랑하던 어떤 젊은 처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물론, 이것이 파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스님을 너무도 사랑하던 그 처자는 스님과 하룻밤을 보낸 뒤 아기를 낳아놓고 스님을 위해 어디론가 조용히 사라져버렸다.(필자는 그 젊은 처자 역시 승려가 되었으리라 여긴다.) '철없는' 스님은 그 아들을 진짜 아들이 아닌 척하고 보고 싶을 때마다 맨날 찾아가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하, 고놈 참 자알 생겼다 내 아들 하자 내 아들 하자' 고 한다. 이쯤 되면 부정자정(父情子情)일 밖에.

어딘가 설화에 바탕을 둔 듯한 이 시는 박규리 시인의 재치와 유머와 끈질기게 밀고 나가는 시적 저력을 보여준다. 특히 2연에서 보여주는 박 시인의 재치와 유머는 능청을 넘어 으멍스럽기까지 하다. '할매는 그 큰 응덩이를 마구잡이로 흔들며 부지깽이부터 찾아선, 이눔이 옥수수 한 솥단지 삶았길래 좀 갖다드리라 했더니, 지는 자빠져 누워 또 건방지게 스님께 전화질했다우? 하면서 벌써 도망간 천복이 쪽을 어림잡으며 고래고래 소리지르는데, 됐어라우 고만 됐어라우'. 웃음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철없는' 스님이 '철없는' 스님이 아니라 '철 있는' 스님이고, 진짜 스님이고, 진짜 천복이 아버지임을 암시하는 대목은 바로 그 뒷부분이다. '스님 옥수수 한 덩이 맛나게 먹고, 인적도 없는 이 토담집 쪽새가 전기선은 안 쪼았나 장마비에 개울 옆 지붕은 무사한가 두런두런 돌아보다 어느덧 해 저무는 숲길을 옥수수 한소쿠리 들고 되짚어 오는데'. 토담집 이쪽저쪽을 둘러보는 스님의 모습을 영사기로 보는 것 같다. 천복이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면 할매와 천복이가 사는 낡은 토담집을 이리 자상히 살필 수가 없다. 또한 깊은 수행과 정진이 없는 승려가 아니면 이런 자비와 보살행을 할 수 없다.

〈초발심자경문〉에 '지범개차(持犯開遮)'라는 말이 있다. 맨 처음 구절에 나오는 대목이다. 계를 범하는 것과 여는 때를 잘 알아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효 스님이 요석궁에 든 것은 '개차'(開遮)다. 계를 열어야 할 때였던 것을 원효 스님은 잘 알았던 것이다. 요석공주가 아들 설총을 낳자 원효 스님은 다시 산문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지범'(持犯)이다. 다시 계를 지켜야 할 때를 원효 스님은 잘 안 것이다. 그러나 이 '지범개차'를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지범개차' 앞에 있는 두 글자를 잊어서는 안 된다. '선지'(善知)다. '선지지범개차'(善知持犯開遮)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지(善知)] 이를 '지키고, 범하고, 열고, 막을 줄을 잘 알아야 한다' [지범개차(持犯開遮)].

'밤나무 숲'에서 '주먹만한 짱돌을 한손에 움켜쥔 채 파르르 떠는 천복이 두 눈에' '석양보다 붉게 떨어' 지는 천복이의 '말똥 같은 눈물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불교문학연구소장〉

일일시호일

척추염에 식도·심장까지 구멍나 생명위협

스리랑카 가장 아누라씨, 응급 수술로 위기모면
수술 빚 1600만원에 척추 수술도 남아 막막해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마음책 다시 읽기 아픔을 다스리는 마음공부 ❻ 올바른 마음공부의 길

▶ 한줄 요약
나와 대상이 따로 없는 경지에서 자유가 나온다.

감정·감각 현혹 이기는 진언 수행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 특히 감각에 현혹된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감정이 우리의 적이 되고 마귀도 되는 것이다. 감각적 쾌락은 사실 포기하기가 정말 어렵긴 하지만,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이런 감정들을 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의 삶은 항상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선과 악, 옳음과 그름, 높고 낮음, 밝음과 어둠 등등으로 모든 것은 이원성(二元性)이다.

특히 속세의 쾌락에는 반드시 가슴 아픔이나 분노, 슬픔이 따른다. 그래서 속세의 쾌락에 빠지느냐 아니면 그것을 초월하느냐의 판단의 문제가 생긴다. 또한 속세의 지식과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 수 있기 위해서 수행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가지지 않았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해도 그것은 속세의 것일 뿐이며, 우리를 해탈로 이끌어줄 수 없다. 그러므로 수행의 과정이 절대 필요한 것은 내 욕심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옳게 일으켜서 바르고 반듯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이다. 적게 먹고 적게 자고 적게 말하는 삶,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삶의 참 무게를 알게 되고 아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무조건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할 수는 없다. 아무리 평등을 부르짖는 훌륭한 공산주의라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 참 행복의 길은 어느 누구라도 노력하면 찾을 수 있지만, 반드시 자기 스스로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찾아 나서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우리는 집착을 버리고 참다운 지혜를 깨닫기 위해,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을 한다. 보고 듣고 받아들인 그 많은 지식들을 정리하려면 고요히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그 대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밖으로 달려 나가 있던 자신을 도로 불러와서 마치 대상을 바라보듯 냉정히 하나하나 풀어서 다시 들여다보노라면 그제야 그것들이 내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의 우리들은 이런 순서는 잊어버리고 그저 밖으로만 달려 나가려 하고, 무엇이든 무턱대고 많은 지식을 흡수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평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착란 증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냉정을 잃고 좋은 것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인 지식들을 소화시키지 못하니, 그런 것들이 그냥 쌓여만 간다. 넘쳐서 쌓이면 무엇이든지 썩기 마련이고 이런 것이 위기가 되게 하는 것이다.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 된다. 그런데도 옆에서 가져가니까 뒤질세라 끌어들인다. 끌어오느라 힘이 빠지고 노력도 들었을 것이다. 눈먼 욕심 때문에 헛일을 한 것이다. 현실의 위기는 바로 이런 데서 부풀어간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시 단정히 앉아 정신을 가다듬고 고요히 생각함을 가져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의 나 자신을 잠시만 되돌아본다면, 좋고 나쁜 일들이 원만하게 용해되어 내 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져 내일의 나를 위한 올바른 힘이 되어줄 것이다.

현재의 우리들은 너무도 새로운 물결 속에 파묻혀 지내느라고 생각하고 닦는 일을 잃은 지 오래다.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을 되씹어 음미해보고 다시 생각해보는 과정이 뒤따라야만 한다. 되새김질을 뜻하는 반추(反芻)라는 단어를 기억하길 바란다. 듣고 생각하고 가다듬는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수행인 것이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배우고 닦은 것을 실천에 옮겨서 실지로 부딪히고 터져도 보면서 다시 건전하게 일어설 수 있을 때 얻어지는 깨우침이 있어야 한다.

단순한 생각은 인간을 편하게 해주는 반면 많은 생각은 욕심을 일으켜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 명상하는 것을 체계화하여 실천해온 민족이 인도인들이다. 이들은 명상을 고요히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각을 끊는 데까지 심화시켰다. 그리고 병상의 보다 높은 경지를 찾아낸 것이 바로 '요가'다. 서양 사람들의 'Meditation'이라는 말은 절대자인 신을 깊이 생각하여 신과 합일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묵상에 가까운 뜻을 가지고 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사유수(思惟修),Sayusu:선(禪)또는 선나(禪那)]라고 한다. 마음을 한곳에 모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고요히 앉아 마음을 오로지 한곳에 두고 정신을 그 대상에 쏟아서 인생과 세상의 참된 모습을 알아 최고의 값진 삶을 사는 방법이다.

인도에서 요가의 일부분으로 취급된 명상은 인간이 취해야 할 가장 기본이다. 인간의 생활 속에서 정신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떤 신에게 매달려 구제를 받고자 하는 종교가 아니고, 샤먼이나 주술과 같은 신비한 능력에 의존하는 종교가 아닌, 단지 명상에 의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종교는 매우 경지가 높은 종교인 것이다.

생활 속 응념의 수련 일환
명상의 첫 단계 의미 지녀
진언 외우며 상념을 하나로
일체 사물 대한 관심이 명상

평상을 통해서 명상의 최고의 경지인 삼매에 이르면,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자각을 가지게 되고, 자기 마음의 본래의 모습을 알게 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주가 내 속에 있고 내가 우주 속에 있다는 자각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서는 일체 속에서 나를 보고 내 속에서 일체를 보는 행복감을 갖게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인간이 되도록 스스로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요가에서의 모든 체위법이나 호흡법은 모두 명상을 위한 것이다. 호흡과 마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마음이 동요되면 호흡을 놓치고, 호흡이 흐트러지면 마음을 놓치게 된다. 몸으로 보면 이것은 호흡을 다스리는 자율신경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호흡을 조절하면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고 감정의 움직임도 조절할 수 있다. 몸의 건강이나 마음의 안정도 유지할 수 있다.

명상의 첫 단계에서는 감각기능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억제하며 지각의식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마음이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감각의 자제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감각기능과 마음의 움직임이 하나가 되는 상태를 얻으면, 여기서 다시 마음으로서 감각기능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게 된다. 응념(凝念)이란 마음을 한곳에 머무르게 하여 움직이지 못하도록 집중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몸의 어느 한 부분, 배꼽이라든지 구체적인 데에 정신을 집중시키는 훈련을 쌓아서 이것이 제대로 잘되게 되면, 다음에는 추상적인 관념을 생각하여 거기에 집중한다. 예를 들면 관음상을 보면서 고요하고 자비로운 모습에 생각을 집중하면, 그 관음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또는 예수를 생각하여 거기에 모든 생각이 집중되면, 목숨을 내놓고 우리에게 진지하게 전하고자 했던 그의 가르침의 참 목소리가 들려와 전해질 것이다. 이러한 응념의 수련을 하려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응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앉아서 하건 누워서 하건 서서 하건 간에 항상 응념하는 습성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나처럼 병들어 있는 사람은 누워서 정신을 집중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런 때에는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오른팔의 손바닥을 베개로 하여 머리를 받치고, 왼팔을 뻗어서 왼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는다. 두 다리는 뻗어 포개놓고 눕는다. 더 큰 병이 든 환자는 이런저런 격식 없이 그냥 편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이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행주좌와(行住坐臥)를 통해 명상을 읽히는 방법은 요가만이 아니라, 불교의 참선에서도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응념의 방법으로써 순수한 내관(內觀)의 방법이 있다. 이것은 자기의 의식의 흐름을 주시하여 보는 방법이다. 이것은 보다 높은 단계로 들어가야 가능한 것이다. 의식의 세계를 좁히고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명상인 것이다. 즉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노력이 명상이요, 그 첫 단계가 응념이다.

정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는 명상으로 '만트라(Mantra:진언 眞言)' 같은 상징어를 명상하는 방법도 있다. 신을 상징하는 성구나 기도문 같은 것이나, 진언이나 다라니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런 것들은 사유를 초월한 세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말들이다. 짧은 한마디 말로서 여러 뜻을 나타내는 만트라를 외우면 많은 말이 필요 없게 되고, 한 가지 말소리로서 많은 생각을 대표할 수 있으므로 많은 생각이 필요치 않다. 그래서 만트라를 명상하면, 한 가지 생각만을 한결같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을 점유할 수 없게 된다. 가령 '옴'이라는 만트라는 생(生:A), 주(住:U), 멸(滅:M)의 우주의 생명현상과 우주의 신비한 능력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옴'은 삼라만상의 실상을 나타내는 말이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소리로 생각되고 있다. 또한 불교에서 '육자대명왕진언'이라고 하는 '옴 마니 반메 훔'은 '연꽃 속의 보석이여'라는 뜻이 있는 관세음보살님의 진언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뜻을 함축한 진언들이 있다. 고로 이런 진언을 외우면, 그 상념이 하나가 되므로, 그 상념의 근원으로 들어가서 드디어는 무념무상의 근본 세계에 안주한다. 내가 만트라를 외우고 있다는 생각조차도 없이 만트라 속에서 생활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세계는 바로 일체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일체가 있는 세계인 것이다.

다음은 고요함 속에서 명상하는 정적이며 세밀하게 들어가는 명상법이 있다. 콩알을 명상해 보면, 콩 하나를 눈앞에 놓고, 이것의 찌그러진 껍질, 벗겨지는 껍질, 콩 껍질이 갈라져서 그 속에서 솟아 나오는 새싹, 흰 뿌리가 나오고 긴 줄기가 자라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드디어는 열매를 맺는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정신을 집중할 때는 두 눈을 감고 마음을 미간에 집중시켜서, 미간에서 이런 과정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가라앉게 되니 이에 따라서 심장의 고동이 점차로 감지되고 세세한 모든 소리가 다 들려올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집중하고 있으면, 그런 소리들이 점차 멀어져, 들린다는 느낌이 없어지니 이때에는 나와 대상의 대립이 없어져 하나가 된 상태가 된다. 이때에 우리는 일종의 행복한 기쁨을 느끼게 된다. 어떤 대상에 정신 집중을 하는 훈련을 약 10분씩 매일 행하자. 명상 훈련에서는 초조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명상훈련에는 어떤 일정한 대상이 있을 수 없다. 마음이 어떤 대상에 집중하도록 하면 되는 것 이므로 모든대상에 우리의 주의력이 이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체의 사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명상으로 들어가는 기본이다.

〈최혜자 지음 / 운주사 펴냄〉

전통과 미래, 그리고 한국불교의 자부심
BTN 불교TV
방송시간안내
BTN 불교TV 대표 프로그램



법상스님의 반야심경과 마음공부
법상스님만의 논리적이면서도 편안한 생활법문
본방송 (월) 07:30 재방송 (월) 19:30, (토) 22:30



자현·광우스님의 끝판! 맛수다
자현스님과 광우스님의 '맛있는 수다' 재미있는 불교공부
본방송 (수) 07:30 재방송 (수) 19:30, (일) 14:00



동훈스님의 다음생 이야기
오늘 좋은 씨앗은 내일 좋은 열매!
본방송 (금) 07:30 재방송 (금) 16:00, (일) 21:00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tv 295번 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대행 스님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오늘로, 하루살이로만 살아 보세요

생활 속에서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이 쇠약해지고 병이 들고 또는 어느 한편 짝이 기울어진다면 살맛이 안 나고 덧정이 없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고, 그 마음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런데 나는 그전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집을 정해 놓지 않고 떠돌아 다니다 보니까 먹는 것도 어디서 어느 시간에, 저녁이다 점심이다 아침이다 그런 거 먹는다는 생각조차, 어느 시간을 두지 못했습니다. 닥치면 닥치는 대로 물도 마셔야 하고 그래서 그것이 고정되지가 않고 '네가 있다면 먹게 될 것이고 네가 없다면 못 먹게 될 것이지.' 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모든 것은, 이 오장육부 내의 나쁜 가스라든가 나쁜 것은 다 이 안에서 조절을 해서 내보내고 또 온도와 공기를, 안에서 모든 것을 좌우해서 이 원조가 튼튼하다면 모든 것을, 바깥의 자원을 끌어들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사람이 풀뿌리나 또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물을 마시고 이럭하고는 생명을 길게 지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길게 지속이 되더라는 얘깁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또 한번 힌트를 얻었느냐 하면 내가 공부를 했다면 나의 길잡이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점입니다. 나의 길잡이가 없다면 한 치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리를 옮길 수가 없어. 저 하늘을 지붕 삼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녁이다 아침이다 하는 그런 문제에 자기가 착을 두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리드할 수 있는 스승이 스스로 지혜로이 생기면서 그 지혜가 무기가 되고 양식이 됐을 때 비로소 그것을 좌우하리라고 믿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살면서 이런 걸 또 한번 느낍니다. 어떤 땐 어느 분이 이것도 드셔 보시라고 그러고 가져오곤 합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한 공기를 가지고 하루를 지내야 할 것을 좀 더 먹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정신이 흐려지고, 또 정신이 흐려진다는 건 둘째쳐 놓고 거기서 내 육체를, 덜 먹은 거보다, 알맞게 먹은 거보다 오히려 이끌어 나갈 수가 없이 돼 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끌어 가는 내 주인공이, 참나가 있기 때문에 안에서 모든 부분을, 소임을 맡아 가지고 해



그림 · 최주현

나가는 데에 정상적으로 해 나가면서 먹는 것도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이 중도를 지켜라" 하는 것은, 그리고 분수를 지켜라, 환경에 따르라, 질서에 따르라…, 질서를 문란하지 않게 하는 도리는 바깥세상에도 있지만 안에도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더 먹는 것도 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는 겁니다. 더 갖는 것도 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고요. 내 거라고 고집을 하는 것도 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신경을 더 써야 하고요.

모든 것이 이 신경 쓰는 데에 사람의 몸은 망가질 수밖엔 없는 겁니다. 신경을 쓰지 않게끔 하면서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역대의 그 습들을 떼어 버려라. 그 습을 떼면 모든 과거의 업보, 유전이 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알맞은, 내 참나로서의 지혜로운 그 평등의 활용이 그대로 내부 외부를 평등하게 쥐고 균등을 잡아서 나간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접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맛있는 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애를 쓰시고 또 말을 많이 하시니까 맛있는 거를 더 잡수셔야 합니다." 하고 주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걸 먹었으면 기운이 더 나야 할 텐데 말입니다, 아니, 반칙을 한 겁니다. 허허허, 이 공장에 위반을 한 겁니다. 법도의 위반을 한 겁니다. 자루가 이렇게 요만큼만 돼야 될 텐데 자루 위로 아주 멜 수가 없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먹지는 않습니다마는, 나한테는 그렇죠. 왜?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뛰는 사람이야. 그럼 뛰는 사람은 곱을 먹어야 하고 앉아 있는 사람은 반밖에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아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말입니다, 어떠한 단서가 나왔느냐 하면 야, 그냥 쪼끔 저거 하니까 목이 칼칼하고 아, 기침이 나오고 골이 띵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죠. '너 맛있는 걸 더 줬는데 왜 그러냐?' 이랬더니 말입니다, 걔 하는 소리가 또 우습죠. 아니, 그게 요 한 그릇이 들어가야 될 일인데 만약에 두 그릇이 들어간다면 이것이 그냥 막 돌아간단 말입니다. 짤깍짤깍 돌아갈 게 막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반칙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내가 더 먹은 것을 평상시에 먹는 데서 뺄 것이다, 그럼.' 허허허. 이거 재밌는 얘기도 됩니다마는 이걸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생활에 그것이 아주 좋은 결과가 될지도 모릅니다.

평소의 한 공기를 가지고 반씩 나누어서 아침 저녁을 먹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날서부터, 그걸 또 반에서 반을 줄였습니다. 왜 줄였느냐? '너 반칙했다. 그러니 반칙한 거 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이 내 상황 속에서 맞느냐 하면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을 반씩 줄이니까 그것이 도로 없어지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그만두고, 잠자고 싶으면 자고 자기 싫으면 밤을 새우더라도 나 자기 싫은데 어떡하냐. 그것을 잠이 안 온다고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어요. 잠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그냥 즐겨. 그런데 잠이 안 온다고 막 신경을 쓰고 이러니까 오히려 사람이 망가지고 못쓰게 되죠. 그런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를, 안 오는 것도 '네가 자기 싫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서 밤에 참, 조용한데 즐기거든요. 즐기니까 그 이튿날 피곤한 것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하나서부터 열까지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을 조절해 나가면서 참답게, 괴롭지 않게 살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리고 포기 상태로 들어가고 허망하다 그러고 또는 아프면 의욕이 안 생기고 이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건 우리 자신이 조절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늙으면 이젠 허망하고 다됐다 이러지만, 늙으면 늙는 대로 바로 나는 젊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모습을 바꿔서 우리가 어린애로 탄생을 한다면 벌써 우리는 삶에 의해서 기초를 닦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 또 늙어 간다 그럴 땐 우리가 젊어질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고가 없어요. 모든 게 준비 과정이에요. 그러니 요기서 요기 옮겨 놓고 요기서 요기 옮겨 놓고 이럴 뿐이지, 모습을 바꿔서 옮겨 놓을 뿐이지, 아무 죽는 것도 없고 죽을 것도 없고 새삼스럽게 나온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굼벵이도 애당초에 굼벵이로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게 없어서 죽지 않았단 말입니다. 굼벵이라는 몸만 갈아 가지고 매미로 옮겼을 뿐이지 그것은 죽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습만, 옷만 벗고서 딴 옷을 입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딴 옷을 입을 때까지 어떻게 의욕이 없어지지 않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즐겁게 살 수 있겠느냐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허망하다고 그러는데, 난 허망할 것도 거기 붙을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병이 나는 원인이 신경을 너무 쓰고 일일이 간섭하고 일일이 자기거, 증오 이런 걸로 인해서 신경을 많이 쓰거나 또는 음식으로써 생기는 병이 아마 삼분지 이는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떠한 비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조절에 달렸다 이겁니다.그러면 우리 몸을 지탱하고 나가는 것도 조절에 달려 있고 지금 내 배 속에 든 생명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역시 조절에 달렸다고 보고 또는 바깥에서 살아나가는 생활도 조절하기에 달려 있어요.

☞ 22면으로 계속



나라는 것도 공해서 고정됨이 없으니 세울게 없다

☞ 21면에서 계속

자기가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그것을 한 개의 지혜로운 무기로 삼아서 해 나갈 수 있는 그 조절.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색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무루인의 내놔도 내놓을 게 없는 나 자체, 또 내놓을 게 있는 색으로 봐도 그 색조차 공해 버렸으니 뭐가 있을 것인가. 색조차 공해 버렸다고 그러는 거는 아주 삶의 근본적인 바탕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변질돼 가고 늙고 병들고 이러는데, 늙어 가는 것도 과정이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발 하나하나 떼어 놓는데 말입니다, 오늘로, 하루살이로만 살아 보세요. 하루살이로만 산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도 뒤도 끊어진 자리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것도 공해서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나라는 것도 세울 게 없는데 어찌 거기 붙을 게 있겠습니까? 뭐가 붙습니까, 거기?

그래서 이 말도 했던 말이 항상 반복되지만 새삼스럽게 요것이 하나가 거기 지금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생활을 하는 데도 내가 마음의 한생각과 또는 행과, 음식을 먹는 데도 또 마음을 쓰는 데도 항상 조절의 활용을 제대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 나쁜 거는 소탕하고…, 이 안에서도 말입니다. 나쁜 건 왜 소탕이 되느냐? 내 안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 원자력에서 모든 나쁜 거는 태워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서 그 원자가 태워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썩은 물이나 나쁜 물이나 좋은 물이나,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받아들이면서 굴리고 또는 체내에나 이 세포에 모든 것이 공급이 되게끔 되지마는 만약에 나쁜 물질이 잘못 공급이 되면, 사람이 나쁘게 될 땐 그거는 태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한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체험하고 돌아가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가 이날까지 약을 지어다 먹으면서 누워서 앓아 본 예가 없습니다. 아, 쪼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즐겁고, 또 비켜나면 참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항상 입을 딱 다물고선…, 내가 내 몸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서 수만 개가 돼서 돌아가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집착을 할 사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붙습니까, 거기?

그래서 우리는 말만이 아니라 실천을 자꾸자꾸 해야 하고, 여러분은 지금 내가 이렇게 설법을 하는 것이 요다음에는 또 그것도 늦다고 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앞으로 점점 자라나는 사람들은 점점 새 기분으로써 새 세대로서, 또 시대가 바뀌짐으로써 점점 연구를 해서 더 우리가 연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야, 사람들이 백 명이 할 일을 지금은 열 명이 앉아서 다 해낸다 이랬을 때 "아유, 그때는 참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이러거든요. 여러분이 옛날에 버선 깁고 그걸 잿물에다 빨아서 다듬고 또 그냥 날른날른하게 명주를 다듬어서 바지저고리를 해 입히면 나가서 그저 하루도 못 입고 그냥 술 먹고는 흙탕에 다 튀여 가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날로 벗겨서 또 빨아야 돼. 이게 손이 얼마가 돌아갑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땠나. '그때 어떻게 살았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빠르다고 해도, 그것은 변치 않고 돌아갈 겁니다마는 혹시나 말 자체가 더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모든 살아나가는 게, 우리가 한생각으로 뛰는 게 나으냐. 빛이 더 빠르냐, 내 한생각이 더 빠르냐 이런다면 빛보다 어떤 게 더 빠르겠습니까? 빛으로 하는 것은, 그것도 인간이 참, 수없이 연구를 해야만이 그것도 빛으로 갈 수 있고 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이건 천연적으로 빛과 모든 게 구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만날 얘기해 드리죠. 그래도 그게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지금 오관을 통해서 하고 원자력과 통신기와 천안기와 천이기 또는 우리의 타심기 또는 숙명기, 이 모두가 종합해서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아닌, 모습도 없는 어떠한 데 저런 것이 전부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그 구름도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구름 따라서 흘러서 그냥 한생각에 그저 왔다 갔다,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것이 얼마나 빠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만약에 육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미국을 본다 하고 저 은하계를 본다 할 때, 그럼 여러분이 아시는 집을 생각하고 보는 그것하고 은하계를 보는 그 생각하고 차이점이 납니까, 안 납니까? 가깝고 멀고 차이점이 안 나죠. 요기 요 바깥의 요거 한번 생각하는 거하고 저 은하계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안 납니다. 이렇게 빠른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도 초월되고 또는 무중력 상태에서 어디까지나 멀고 가까움이 없이, 가고 옴이 없이, 이게 말을 하려니까 "가고 옴이 없이" 이런 말을 하고 또 말을 하려니까 모든 게 이런 말이 붙습니다마는 가고 옴이 없다는 그 말조차도 붙지 않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마음의 눈으로 보신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항상 사셨으니까 집은 잘 보시겠죠, 여기 앉아서. 한번 봐 보세요. 시간이 걸리나 안 걸리나. 몽땅 보세요! 집을 한번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실 때에 어디가 대문이고 어디가 뭐고 어디가 뭐고 이런 거를 막론하고 아예 그냥 몽땅 봐 보세요. 그럼 이 생각으로, 머리로, 벌써 그거는 뜻으로 이게 어디가 뭐가 있고 어디가 뭐가 있다는 게 종합해서 나오죠. 어떻습니까? 이래도 못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데에
> 할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걸 떠나라.
> 떠나서 환경에 닥치는 대로 조절하고
> 또 자기의 분수에 맞게 생활하라.

그래서 그렇게 보건마는 보는 것만이 도가 아니라고 했으니 엄청난 말입니다, 이게. 보기만 하면 뭘 합니까? 여기 지구 안에 공기가 없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사람에게 보급되는 공기나 또는 어떠한 에너지를 가져와야만 우리 여기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들이 다 산다고 할 때 이것을 보기만 하고 가져올 수 없다면 그 본 것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듣고, 또는 가고 오고, 함이 없이 가고 오고 또는 내 몸을, 모습을 수만 개로 바꾸고 한다, 또는 남의 속을 뚫어지게 본다, 남이 이날까지 살아온 거를 뚫어지게 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목마른데 마실 수 없다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 마실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용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하죠.

십대 제자가 손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뜻으로도 돼 있고 한생각에 내가 그 집을 몽땅 보듯이, 몽땅 보기 때문에 그것은 보는 게 아니라 순간 생각할 때 벌써 집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게 그냥 뜻으로다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항상 사시면서도, 여러분의 집에 뭐가 있고 뭐가 있는 거 다 알면서도, 자기가 쓰면서도 어디 가 있는 줄 모르는 게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제삼자가, 만약에 이런 공부 한 사람이 볼 때는 그거까지도 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쥐구멍까지 볼 수 있고 쥐구멍에까지 에너지를 보급할 수가 있는 것은 인간의 참마음입니다. 저 태양이 아무리 저렇게 따뜻하게 비춰 주고 모든 일체 만물을 다 성장케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저 쥐구멍에는 햇빛을 못 들여보내.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쥐구멍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너무나 광대하고 무변하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알아서 앞으로 해 나간다면…. 그것을 날더러 어떤 사람은 천부당만부당한 소리라고 할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또는 자녀들을 키워 가면서, 그 자녀들이 앞으로 점점 성장해 가면서 아마 내 이 말을 증명해 줄 겁니다. 사람사람이 누구나가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오백 년 후에도 또 똑같이 이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앉아 있을 거라는 그 신념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불법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명이 돌 하나라도, 풀 한 포기라도 있다면 그것은 불씨가 있는 것입니다. 왜 없어집니까? 불법이 쇠퇴해진다고 아주 망가진다, 없어진다 이러는데 우리 생명 하나만 있어도 불씨는 있는 것입니다. 생명 아닌 게 어디 하나라도 있나요? (녹음 안됨) 내 지금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듣는다면 바로 거기에서 생각나는 게 있을 테니까 질문하세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면서 오손도손 서로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은, 내가 높으면 얼마나 높고 알면 얼마나 더 알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모르면 얼마나 더 모르고 얕으면 얼마나 더 얕겠습니까?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공생 공용을 하고 지금 공체로 돌아가는 입장에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대로 스승이 될 수가 있고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대로 스승이 될 수가 있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을 부리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세요. 아주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은 꼭 밑에서 일을 합니다. 허허, 가만히 생각 좀 해 보세요. 모르니까, 못났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이것이 활달하고 또 똑똑하고 잘 알고, 아주 학식으로써 풍부한 사람은 풍부한 사람대로 똑똑하고 풍부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하면 안 되겠기에 실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더 못한 사람들이 위에 앉고 아주 철두철명한 사람들은 밑에서 실무자가 돼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가만히 보면.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람을 부리게 돼 있고 알면 아는 대로 또 쓰게 돼 있거든요. 하게 돼 있고, 밑에서.

그런데 여러분이 딸을 기르고 아들을 기르다가도 어떤 때는 '야, 우리 딸은 저렇게 배운 게 없으니 어디 가서 무얼 해 먹고 사나. 남의 집에 가서 뭐를 어떻게 하고 저거 지탄이나 받지 않을지 모르겠다. 또 우리 아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예가 없이 저렇게 살다가, 부모가 번 거 가지고 공부하고 저렇게 살다가 저거 어떻게 살까?' 이러지마는 환경에 닥치면 다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날더러 "그렇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는데 나는 "닥치면 어쩔 수가 없더라." 이 말 한마디밖엔 못 합니다. 닥치면 어떡하느냐 이거야. 영화에서 말입니다, 노예를 부리는 사람이 노예를 말입니다, 그냥 막 두들겨 패서 피가 철철철철 나도 튀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그냥 맞아 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 그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매달고 치면 뭐, 맞았지 별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환경에 들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데 닥치면 여러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환경이라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할 수 없는 게 없다 있다 할 수 없어요. 두 가지를 다 놓고 볼 때 할 수 있다도 아니요, 할 수 없다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걸 떠나라 이겁니다. 떠나서 환경에 닥치는 대로 우리가 조절하고 또 자기의 분수에 맞게 생활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분수에 맞게 하되 분수에 맞게 하는 그 자체가, 누가 하는가 이겁니다. 이날까지 누가 해 왔으며 지금도 누가 하고 있는가를 보시라 이겁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6년 4월 22일 일반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New 어싱 접지 슈즈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특판가 : 65,000원(배송비 포함)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어싱슈즈 블랙그레이

Hit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배송비 포함)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불논단

우리는 어떻게 전법할 것인가



백도수
능인대학원대학 교수
한국불교학회장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 '챗GPT' 열풍
불교, '전법GPT' 기대하며 전법사 발굴
'나는 부처님 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등
부처님 법 전하는 일은 바른 질문 기본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말만으론 안 돼
전법, 삶의 정답 아닌 해결점 제시 주력
전법 실천 이전 자기 사전점검들 필요해
전법사, 출재가 떠나 자기수행 철저해야

최근 오픈AI가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는 100일 만에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사람을 대신해 다양한 소스를 바탕으로 방대한 텍스터 데이터를 학습하여 백조개의 매개변수를 갖추고 질문에 대한 가능성 있는 해답을 단 몇 초만에 제시하고 있어 인공지능의 활용범위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산업현장의 제조용 로봇뿐만 아니라 생활편리를 위한 청소로봇, 서빙로봇, 요리로봇, 안내로봇, 헬스케어로봇 등이 인간을 대신에 활동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조계종은 '전법GPT'를 기대하고 시대에 적합한 전법 문제 전문해결사를 찾고 있다. 이 시대에 전법은 삶의 정답이 아니라 삶의 해결점을 찾아주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전달하는 일은 바로 전법GPT에 적합한 질문을 던지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부처님의 법은 무엇인가? 과연 나는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전법사의 자질이 있는가? 전법의 대상을 무슨 근거로 어떻게 정하는가? 그 대상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전법환경은 마련되었는가? 어떤 방법이나 도구를 가지고 법을 전달할 것인가? 나는 전법하며 기쁘고 행복한가?'

현실적으로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라는 말만으로 전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전법 실천 이전에 자신에게 전법 관련 질문을 하나하나 던지고 사전점검을 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자신 머리카락에 불이 난 이는 남의 불을 끌 수 없고 스스로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에게 전할 수 없다고 했다. 행복을 맛보지 못했고 지금 스스로 행복하지 않는 이가 어떻게 부처님의 법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는 모든 데이터를 담고 있기에 전법의 첫걸음은 부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경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진정한 전법은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지금 자신이 행복하고 자신의 행복이 넘칠 때 지혜와 자비로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전법 승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스님 개개인이 교육과 수행을 통해 자신의 삶이 행복해져야 승가의 행복 향기가 신자에게로 전달되고 대중에게로 흘러가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땅(또는 물 등)에 대한 가르침만으로도 설법하고, 상담하고, 전법까지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가? 불교와 삶에 대한 어떤 물음에도 땅(또는 물 등)에 대한 가르침만으로 대중을 행복하게 만들고 불교에 다가오게 하고 법을 듣게 하며, 이해하고 법을 실천하며, 법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가 라고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이러한 전법능력을 익히는 일의 전제는 바로 전법 데이터를 축적하고 학습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지금 여기 전법목표와 대상, 내용과 방법에 맞게 해답을 내놓을 수 있다.

챗GPT가 주는 해답이 세속의 무상한 것에 속한 것이라면 전법GPT가 주는 해답은 무상한 것을 넘어서는 마음의 평온과 진정한 인간 행복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이고 물질적인 일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정신적인 일에 전념하는 전법을 추구해야 한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짐을 내려놓거나 버리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일이다. 전법은 업바람(업풍)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아니라 업바람을 가라앉히고 부처님의 법바람으로 중생의 마음을 평온하고 따뜻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전법사는 외적 데이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지혜와 자비의 데이터를 입력(Input)하고 출력(Output)해야 한다. 승려이든 재가자이든 전법사로서 법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수행이나 신앙생활에 충실해야 한다.

社 說

산불 피해, 불심으로 보듬자

순간 최대풍속 초속 30m에 달하는 태풍급 강풍을 타고 미처 손쓸 틈도 없이 확산한 강릉 경포 산불. 4월 11일 발생한 이번 산불은 8시간만에 진화됐지만 주민 1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냈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강릉 해맞이길 순례코스에도 포함돼 있는 조계종 4교구 말사인 위빠사나 수행도량 경포 인월사가 산불로 소실됐다. 이번 산불로 온국민이 사랑하는 경포는 하루아침에 적막강산이 됐다. 그 상처는 피해규모보다 더 커보인다. 정부 차원에서 피해조사를 비롯하여 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당장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보상장치는 너무나 미흡해보인다. 강릉 인월사만 하더라도 일주문을 제외한 모든 전각이 전소되는 막대한 피해에 전국비구니회까지 나서 성금 모연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1일 발생한 충남 홍성 일대의 산불에서도 덕숭총림 수덕사를 비롯해 홍성주지협의회 등 많은 불자들이 성금을 보내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중생이 아프니 보살도 아프다'는 〈유마경〉의 가르침이 떠오르는 때다. 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지만, 산불 이재민처럼 하루 아침에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은 더욱 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주변에 아픈 중생을 돌보는 때는 지금이 아닌가 싶다. 피해복구를 위한 금액의 많고 적음 보다 이들의 아픔을 보듬으려고 하는 불자들의 마음이 하나라도 더 필요한 때다.

불교계의 성금모금에 담긴 온정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아픔을 보듬는 마음은 재난피해를 극복하는 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전국의 사찰과 불자들의 온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환경' 생각하는 부처님오신날

희망이 꽃피는 환희로움이 산하대지에 가득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교계 시민사회단체와 사찰 등 60여 개 단체들로 구성된 불교기후행동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불자들의 실천행동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2023 환경을 생각하는 부처님오신날'을 주제로 하는 이번 캠페인은 최근 기후위기가 중요 사안으로 부각되면서 기후변화 대처에 의지는 있지만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비롯됐다. 이에 불교기후행동은 약 한 달간 개인과 사찰을 대상으로 불교 수행의 일환인 108배와 연등만들기 등을 통해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성찰과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일회용품 없는 날'로 정하면 어떨까 한다.

사찰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대신 스테인레스 컵 등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신도들에게도 사전에 텀블러 등 개인컵을 지참토록 제안할 수 있다. 식사 시에도 1회용 용기 대신 다회용 그릇을 이용하고 개인 그릇 등을 활용하며, 떡을 나눠줄 때 비닐 대신 뻥튀기 과자나 회수용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부득이할 경우 생분해 비닐을 사용해 환경 보호를 위한 대안을 고려해달라는 요청도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국 주요사찰과 단체들에 캠페인 안내공문과 함께 포스터를 발송했던 불교기후행동은 올해부터 종이 홍보를 멈췄다. 종이생산과 우편발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대신 이메일을 통한 웹자보 전송으로 캠페인을 지속한다.

불교계 시민단체와 사찰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작은 실천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불자들도 합심, 불교적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할 수 있길 기대한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진달래꽃

진달래꽃이 피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나기 전에 마른 가지에서 분홍색 꽃을 피우는 진달래. 왜 하필 그 많은 이름 가운데서 진달래가 되었는지 알 수 없다.

꽃이 진다고 진달래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온갖 꽃들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데 진달래는 어찌하여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일까. 지겠다(落花)는 결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달래꽃은 죽음 같은 겨울을 뚫고 나온 후 피어나고, 병아리는 어두운 계란 속에서 껍질이 깨어져야 밖으로 나온다. 인간의 정신도 생사를 구분 짓는 분별지(分別智)에서 벗어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성인의 가르침이 가슴에 내려앉는다.

인간은 탐진치(貪瞋癡)의 삼독(三毒)이 떨어져야 한다. 번뇌와 망상으로 물든 마음을 떨쳐내야 한다. 선과 악, 세간과 출세간에 사로잡힌 마음을 비우면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 것이다.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거짓 내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진여가 드러난다.



그림 · 최주현

유한 속에서 무한을 보는 견성(見性)이다.

세상 짐을 진다는 진달래일까? 나의 짐을 지기도 힘든데 남의 짐을 지겠다는 진달래다. 내가 못다 진 짐을 나눠지는 진달래. 그 연약한 꽃잎으로 어떻게 이웃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려는 것인지. 이른 봄에 깨어나 세상 짐을 지고 일찍 꽃잎을 떨어뜨리는 진달래, 거룩하고 아름답다.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 십자가에 매달려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으며 간구했던 그님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홀로 떠났다. 일본에게 억압당한 민족의 비참함을 어깨에 짊어지고 해방을 부르짖으며 고난의 삶을 살았던 선구자들의 얼굴이 어른거린다. 그들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죽어갔다. 이보다 큰 사랑의 짐이 어디 있으랴.

수줍게 웃는 진달래꽃이 네 짐을 지라고 속삭인다. 인간의 삶도 태어나서 지는 진달래와 다르지 않은 것을. 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짐을 지리라. 네 짐을 내가 지고, 내 짐을 네가 나누어지면 제 짐을 제가 지는 것이니 짐이랄 것도 없구나.

나는 시방세계의 모든 존재들이 연계되어 짐을 져주어서 살아간다. 짐을 져주는 것을 자비나, 보시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매순간 자연이 주는 기운과 부처님의 보이지 않는 가피로 살아간다. 짐을 져 준다는 생각 없이 짐을 지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로서 살아간다. 진달래에게 큰 사랑을 배운다. 4월의 봄빛으로 진달래꽃이 활짝 피었다. 〈작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의 깨끗함과 건강을 담았습니다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 품 구 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 품 구 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 품 구 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부산을 품은
복합문화공간
P.ARK [피아크]

피아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카페와
다양한 F&B, 문화, 예술, 체험 등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콘텐츠를
선보이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오시는 길 부산 영도구 해양로195번길 180
문의 051-404-9200

◀ 좌측의 QR코드를 통해
피아크에 대해 알아보세요.

PARK